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과 과제

박노동

연구진

연구책임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요약문

■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과학도시라는 대전이미지와 미래지향적 도시, 전통과 융합하는 도시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대전의 도시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도시 정체성을 도시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연계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대전시민이 서로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는 가치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하며, 정체성이 뚜렷한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 이 연구는 대전시 도시정체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통하여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정체성을 활용하여 도시발전에 전략화 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주요 연구내용은 지역정체성의 개념과 정책적용에 대한 이론 고찰, 대전시 도시정체성의 특징과 현 위상에 대한 검토, 대전시 정체성에 대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시발전 전략 제시로 구성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분석의 2가지 방법 적용

■ 이론적 고찰

□ 지역정체성의 개념

- 지역 정체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이
며,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
되며,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됨
- 지역 정체성 확립은 지역의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공유된 상징을 갖고 그들
상징에 대하여 자기 것이라는 정서적 관여(commitment)를 하며 동일시
(identification)하는 행위를 전제로 함

□ 지역정체성의 영역과 분석방향

○ 지역정체성의 영역

분 야	내 용
역사정체성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의 현장, 유적, 민주화운동
문화정체성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경관정체성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산업정체성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 지역정체성 분석을 위해서는 도시 이미지 뿐만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연환경,
전통적 요인,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되, 개
별성과 동질성의 매개 요인을 중심에 두어야 함

□ 분석틀

○ 지역 정체성의 조작적 정의

구분		의미
동일성	연속성	-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요소 (최고건축물, 역사적 사실, 전래풍습 등)의 존재
	동일화	-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들의 그 도시에 대하여 느끼는 자부심, 귀속감, 친밀감의 정도
개별성	특이성	- 다른 도시에는 없거나 특별히 다른 것이 존재하여 차별화 되는 정도
	우월성	-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는 정도

■ 대전 정체성의 특징

□ 대전 기질의 특성과 형성 요인

- **역사적 요인과 자연생태적 요인**에서 보면, 접경 지대에 위치한 탓에 뚜렷한 의사표명을 하지 못하는 기질이 형성
- **사회운동의 참여**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부재한 탓에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 못한 기질 형성
- **연줄망 의존도**가 낮은 탓에 지역정체성이 다른 지역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강한 색채를 드러내지 않음
-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전은 **정보 생산과 유통력**이 미미하여 지역정체성 형성 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
- 충청권 **인구이동 유형**은 권역내에서의 인구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탓에 대전과 충남의 고유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불리하게 작용
- **내재적 요인(내부 인식-대전 사람들 스스로의 인식)** 차원에서 스스로 ‘양반의 고장’, ‘행동이 느리다는 기질’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던 탓에 정적인 이미지의 기질 형성

□ 대전의 위상

- **사람측면**에서의 개별성 양상을 고려해 보면, 대전은 인구증가 지속의 젊은 도시, 전입인구가 높은 도시, 창조계층의 집적 도시, 과학기술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로서의 차별화된 위상을 갖고 있음

- **산업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업 중심 도시, 지역혁신여건이 우수한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음
- **물리적, 자연적 환경 차원**에서의 특성은 교통결절점으로서의 중심지, 전형적인 분지 형태의 재해 없는 도시, 4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도시 성격이 강함

□ **국외 및 국내 도시의 정체성 확립 사례**

- 4가지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본 국외 사례의 역점부문과 검토 내용

차원	역점 부문	사례 검토 내용	관련 사례도시
사람	인재의 양성	지역 내에서 육성한 인재가 중심이 되어 도시 정체성 확립	칼스루에, 글래스고, 도르트문트
	인재의 유입	외부에서 유입된 인재가 중심이 되어 도시 정체성 확립	두바이, 어바인
	인재의 양성+유입	지역 내에서 육성한 인재와 외부에서 유입된 인재의 양 계층이 중심이 되어 정체성 확립	밴쿠버, 방갈로르, 오스틴
산업	산업을 문화와 연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	하마마츠
	문화를 산업과 연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정체성 확립	볼로냐, 산타페이, 가나자와, 로테르담
	문화와 산업의 융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과 산업자원을 조화, 융합	오사카
공간	단일 시설	단일 시설을 개발하여 도시의 정체성 확립	볼티모어, 릴
	시설의 분산	복수의 시설 및 거점을 분산 조성하여 도시의 정체성 발현	요코하마
	도시 통합	분산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 통합	토론토
제도	민간 주도	민간이 정체성 확립의 중심적 역할 담당	노스 아담스
	관 주도	관이 정체성 확립의 중심적 역할 담당	꾸리찌바, 싱가포르
	민관 협력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정체성 확립 주도	리치먼드, 프라이부르크

○ 정체성 확립의 국내 도시 사례는 국가주도형 모델(광주광역시)과 국가와 지자체 연계형 모델(전주시), 지방중심형 모델(부천시)의 사례로 나뉜

인구/면적	광주	전주	부천
	141만명 / 501km ²	62만명/206km ²	86만명/53km ²
사업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 첨단산업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
추진 유형	중앙중심형	지방중심중앙지원형	지방중심형
지역정체성	예향, 민주도시, 문화도시	예향, 전통문화도시	공업도시, 문화도시
주요 정체성 자원	광주비엔날레, 5·18 민주항쟁, 남도화맥, 지역축제	한옥마을, 한지, 소리, 음식, 서화, 한방, 지역축제	5대 문화사업, 각종 박물관, 지역축제
주요 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옥마을	박물관, 영상문화산업단지, 만화의 거리
추진 조직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광주시무노하수도추진지원단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천시 정책개발연구단, 부천시청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
제도적 장치	특별법, 조례	특별법 추진, 조례	조례

■ 지역정체성 시민의식 조사 분석

□ 대전시 현 위상에 대한 평가

- 대전시에 대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하여 높다고 평가, ‘안정적이고 편리하며 깨끗한’ 도시로 보고 있음
- 대전에 대한 현재 이미지는 ‘과학의 도시(54.2%)’가 ‘교통의 도시(23.4)’, ‘행정의 도시(7.2%)’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미래상 또한 ‘과학의 도시(43.4%)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의 사람 차원에서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고학력자가 많은 도시이미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71.3%임
- 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개별성 판단에 있어 볼거리·즐길거리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거나 적다라는 응답이 54.6%로 나타남

□ 대전에 대한 관심, 자부심

- 대전에 대한 자부심은 5점 만점에 3.41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정체성(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나, 유대감의 경우 강하다는 인식이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다른 차원의 동질성 가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정주의식 또한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사를 표한 응답자는 28%로 현 대전 거주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음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는 58.9%가 차별을 받아왔다고 응답하여 지역차별에 대한 지역민의 공통적인 인식과 태도가 존재

□ 대전사람들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동일성 인식

- 대전사람들의 **독특한 기질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82.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대전사람은 **느긋하며, 온순하고, 뜨뜨미지근한 면**이 있으며, 속을 알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 대전사람이구나라는 자각의 계기(동일성 가치 형성의 계기)는 주로 ‘스포츠 경기 관람시(29.3%)’, ‘타 지역에 갔을 때(19.3%)’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시사점

- 시민 주도의 대전 정체성 확립 방안 필요
- 다차원적 문화시설 및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필요
- 대전시에 적합한 창조적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적 직업 확충 필요
- 기존 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계 구성 및 적극적인 활용 노력 필요
-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정체성 확립
- 과학도시의 미래 정체성 확립
-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다차원적 발전전략 필요

■ 지역정체성 확립의 정책방향과 과제

□ 지역정체성 확립의 기본전제

- 지역주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화 자치화 촉진
-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및 새로운 개발 철학 정립

- 자치구별 특성화를 통한 다양성 전략 추구
- 공공주체와 민간주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 형성
-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기 발전 목표 및 전략의 체계성 구축
- 지역정체성의 내재화 전략 및 모델 강구

□ 대전정체성 확립의 여건 분석 및 정책방향

- 정체성 확립 SWOT 전략

		강점 (S)	약점 (W)
		<p>풍부한 R&D 인력 높은 젊은 층 비율 첨단과학 및 R&D 핵심도시 다수의 잠재적 교류 공간 국내교통의 중심지, 친환경 도시 이미 시작된 정체성 확립에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p>	<p>문화예술 인프라 및 환경 취약 상호교류를 통한 자극 미흡 대덕 단지의 낮은 사업화율 낮은 문화예술 산업 비중 관광자원 이용률 저조 국제교류 기반 미흡시민의 공감대 부족 대전만의 자부심 부족</p>
기 회 (O)	<p>삶의 질(문화예술, 여가 등)에 대한 관심 증가 창조 산업의 성장세 첨단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월빙, 주거 환경의 중요성 부각 다양한 축제, 이벤트 등의 행사 시정참여 요구 증가 공동체성에 대한 높은 관심</p>	<p>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통섭 교류 공간의 경쟁력과 고유성 을 강화 정체성 확립의 시민 참여 확대</p>	<p>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강화 시정참여 기회 확대</p>
위 협 (T)	<p>문화예술의 수도권 집중 과학 비즈니스 벨트화 차세대 과학도시의 경쟁 치열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원화 관광객 유출의 심화 경쟁 도시의 정체성 확립 추구</p>	<p>교육기능 차별화 과학기술 차별화(사업화 관점) 대전시의 랜드마크 조성 정체성 확립 정책 재정비</p>	<p>시민 주도의 운영, 공연 지원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관광자원 정비 정체성 확립 캠페인 강화</p>

□ 세부 전략과제

○ 대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류체계 강화

- 대전 정체성 확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
- 대전 문화상징 개발
- 대전문화 가이드북 발간 및 보급

○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 대전 정체성 규명 연구 사업
- 대전학연구 활성화 지원
- 대전학 지식저장소 운영
- 대전학 국제 세미나 개최

○ 사람 중심의 정체성 확립-인재 발전소 대전

- 커뮤니티 커넥트 지원사업
-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참여의 장 조성
- 대전상상포럼 발족 및 운영
- Voluntainment(즐겁고 신나는 자원봉사) 도입
- 다문화 공동체 구축

○ 산업 중심의 정체성 확립 - 대전형 Cre-Biz 육성

- 지식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지원
- 융·복합 산업 육성

○ 문화예술전략을 통한 과학도시정체성 강화

- 아트 플라자 조성
- 문화산업 창업기반 구축
- 상상력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 대전정체성 확립 지원시스템 구축

- Middle Up & Down식 행정체계 구축
- 창의행정 인프라 구축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제2장 지역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지역정체성이란 무엇인가?	11
제2절 지역정체성의 영역과 분석방향	20
제3절 지역정체성 확립 분석틀	24
제3장 대전 정체성의 특징	33
제1절 대전정체성의 흐름	33
제2절 대전 기질의 형성 요인과 특징	39
제3절 대전의 위상	49
제4절 국외 및 국내 도시의 정체성 확립 사례	62
제4장 지역정체성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77
제1절 조사개요	77
제2절 조사결과	78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114
제5장 지역정체성 확립의 정책방향과 과제	121
제1절 지역정체성 확립의 기본전제	121
제2절 대전정체성 확립의 여건과 추진전략	126
제3절 세부 전략과제	139
제6장 결론	159
제1절 논의 요약	159
제2절 정책 제언	163
참 고 문 헌	169

- 표 목 차 -

<표 1> 지역 정체성의 개념적 구분과 의미	13
<표 2> 지역정체성 확립 분야의 내용	22
<표 3> 지역 정체성의 조작적 정의	25
<표 4> 통일신라시대 대전시 연관 군·현	35
<표 5> 우리나라 창조계층의 성장과 분포	52
<표 6> 대전의 창조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55
<표 7> 국외 주요도시의 정체성 확립 사례	62
<표 8> 광주, 전주, 부천의 정체성 확립 전략 비교	73
<표 9>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78
<표 10> 대전의 현재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79
<표 11> 대전에 대한 이미지	80
<표 12> 시민이 바라는 대전의 미래상	81
<표 13> 대전시에 고학력자가 많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82
<표 14> 대전의 불거리·즐길거리 분포 정도	83
<표 15> 대전시의 불거리·즐길거리 다중응답 결과	84
<표 16> 대전 시민의 지역 관심도	85
<표 17> 대전시 거주기간	86
<표 18>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	87
<표 19> 중앙정부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88
<표 20> 대전사람들의 기질적 특성(다중응답)	89
<표 21> 대전기질이 지역민의 삶에 대한 기여 정도	90
<표 22> 대전시민의 기질적 특성(친밀성)	91
<표 23> 대전시민의 기질적 특성(책임성)	92
<표 24> 대전시민의 기질적 특성(활동성)	93
<표 25> 대전시민의 기질적 특성(전통 및 권위)	94

<표 26> 정체성 형성의 계기	94
<표 27> 대전시민의 스포츠나 공연 관람시 응원 및 호응 정도	96
<표 28> 응답자의 스포츠나 공연 관람시 응원 및 호응 정도	97
<표 29> 타인의 부탁에 대한 대전시민의 정확한 의사 표현	98
<표 30> 타인의 부탁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의사 표현	99
<표 31> 타인의 부탁거절시 쓰는 표현	99
<표 32> 대전시민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는 상황	100
<표 33>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정도	102
<표 34>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투리	102
<표 35>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듣는 사투리	103
<표 36> 대전을 대표하는 경제인 여부	105
<표 37> 대전을 대표하는 경제인	105
<표 38>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여부	106
<표 39>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106
<표 40>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 여부	107
<표 41>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	107
<표 42> 외지인에게 대전향토음식 권유 여부	108
<표 43> 외지인에게 권유한 음식	109
<표 44> 외지인에게 권유한 음식에 대한 만족도	110
<표 45> 대전이 자랑할 만한 장소 여부	111
<표 46> 대전이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장소	111
<표 47> 대전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 사건	112
<표 48> 사람 부문 SWOT 전략	133
<표 49> 산업 부문 SWOT 전략	135
<표 50> 공간 부문 SWOT 전략	136
<표 51> 제도 부문 SWOT 전략	137

- 그림 목 차 -

<그림 1> 지역정체성의 아키텍처(Architecture)	28
<그림 2>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 영역	29
<그림 3> 대전광역시 연령 및 남녀별 인구구조	49
<그림 4>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50
<그림 5> 우리나라 창조계층의 성장과 분포	52
<그림 6> 대도시 창조인력 비교	53
<그림 7> 서울 및 6개 광역시 과학기술인력(연구원) 분포(2006년)	54
<그림 8> 대도시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 비교.	54
<그림 9> 16개 시도의 지역혁신지수 비교(2010년)	56
<그림 10> 대전광역시 위치도	58
<그림 11> 대전광역시 교통체계도	58
<그림 12> 볼로냐 중앙도서관	64
<그림 13> 볼로냐 전경	64
<그림 14> 가나자와 시민문화예술촌	66
<그림 15> 가나자와 전통차 거리, 염색옷감	67
<그림 16> 싱가포르의 신도시 근린공간의 정체성 지도	69
<그림 17> 지역정체성 내면화 모형	125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도시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보다 개성적이고 특색 있게 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대전광역시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대전시가 뚜렷한 특색을 발굴하지 않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내용의 구체적인 기술에 앞서 밑바탕이 되는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 및 범위를 한정하는 한편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약술하고자 한다.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의 도시들은 획기적인 변환기에 처해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가 된지 수백 년이 되었고 이미 후기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산업사회에서의 우리 거주·생산·위락공간은 고유의 토착적 의미와 역사적인 가치가 배제되고 균질화, 획일화, 기계화되었다. 급속한 도시화로 기존의 양호한 자연·사회환경이 훼손되었다. 인구 및 산업이 특정지역으로 급속하게 집중됨에 따라 그 지역이 갖는 특수한 요인을 부인하고 보편주의 아래에서 전통과 지역문화를 해체하고 이를 대신하여 경제합리주의에 기초한 기능중심의 사회공간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공간은 차별화, 네트워크화, 개성화, 유기화라는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치가 훼손되거나 상실되는 상황이 초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역설적이게도 지방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시대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지방의 주체성, 지역문화 및 지역개성이 강조되고 지역간,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는 체제에서 도시정체성의 확립이야말로 지자체간 경쟁,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된다. 특히 산업화의 폐해인 균질화, 획일화된 도시개발·정비에서 탈피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고 고유특성을 살리고 개성이 있는 도시의 개발·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자율화, 분권화라는 가치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각 도시정체성이 지역발전 및 지역민 삶의 질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자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의 맥락에서 보면, 지역정체성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과 대전시민들이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는 가치를 모색해보는 일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진행되어온 세계화 혹은 전지구화의 물결과 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세계화는 이미 우리 생활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지역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인식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 분권화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삼은 이후 지방자치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거대 담론으로만 논의되던 환경·소비·문화 같은 이슈도 지방의 맥락에서 구체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바야흐로 지방화와 전지구화가 동시에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 한 사회의 특성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만 기대거나 일반론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한데 어우러져 한 사회의 특성을 구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 대전광역시역의 지난 역사와 주민의 집합적 특성에 기반 하지 않는 대전지역과 관련한 연구는 공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도시정체성에 대한 일반의 관심에 비하여 지역단위에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성과는 극히 부족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성과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 기대거나 일반론으로 파악코자 하는 선형적 경향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어우러져 한 사회의 특성을 구성해 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대적·공간적 맥락하에서 대전광역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과학도시라는 대전이미지와 미래지향적 도시, 전통과 융합하는 도시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대전의 도시이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도시이미지를 도시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연계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자본 확충을 시정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대전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대전시민의 공동체성 회복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더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타 도시와 구별되는 상징성을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 전략으로 동력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도출되어 시정에 접맥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전시의 특성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차별화될 수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발현시켜 궁극적으로 대전시의 도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향후 좌표나 방향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우선 연구의 배경이자 필요성으로 제기한다. 나아가 대전시민이 서로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는 가치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하며, 정체성이 뚜렷한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연구목적

전통적인 산업사회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적 체제가 지방분권적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각 도시들이 채택하는 발전전략도 크게 수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발전패러다임의 변화 중에서 정체성의 확립 또는 회복이란 측면에 착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가 급속히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유지하여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적인 관점

에서 이론적 기본방향과 시행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대전시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고 나아가 도시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기업·주민·관광객이 선호하는 이미지·제도·시설을 개발하는 등 각 도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도시정체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통하여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도시정체성을 활용하여 도시발전에 전략화 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적으로 다양한 지역적 배경을 갖고 있는 대전 시민들의 지역정체성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 대전시민들이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는 가치를 모색코자 한다. 또한 대전이 급속히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유지하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적인 관점에서 기본 전략방향과 시행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전략적 목표 또한 갖고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정체성의 개념과 정책적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대전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정체성 확립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도시정체성과 도시정체성 확립에 대한 개념 규정 및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또한 도시정체성과 도시정체성 확립이 도시정책상 어떠한 기능과 역할,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대전시 도시정체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대전시 정체성의 시·공간적 형성 및 전개, 상실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정체성의 형성 요인을 내외부 교류 및 네트워크 차원에서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대전의 현 모습을 사람 차원, 산업 차원, 환경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나누어 어떠한 현상으로 발현되어 있는지 현상을 요약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가능케 했던 국내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대전시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시민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서술내용은 대전시의 도시이미지, 대전사람들의 기질적 특성,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지역에 대한 관심, 대전의 대표적인 인물과 음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정체성확립 실태와 방향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대전시 도시정체성 확립 정책방향에 대한 요구 및 태도조사를 통하여 도시정체성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나아가 대전시 도시이미지의 호감도, 이미지 특성, 타도시와 비교시 우수한 점,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전시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사항과 대전시가 채택하여야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정체성 확립 대상을 발굴하고, 도시정체성이 반영된 도시의 유형별 추진전략을 제기하고, 지역정책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제도적 시행기반, 추진주체의 육성, 장소마케팅을 통한 홍보 및 이미지 개선 시책을 발굴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관련이론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시민대상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의식조사는 대전광역시의 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한 후, 조사단위인 동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580개의 표본을 추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2014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전문조사원에 의한 면

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후 분석결과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 이루어졌다.

제 2 장

지역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지역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제2절 지역정체성의 영역과 분석방향

제3절 지역정체성 확립 분석틀
.....

제 2 장 지역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이란 무엇이며 지역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정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조작적인 개념정립 노력도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관련문헌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역정체성의 개념, 지역정체성 확립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는 동시에 본 연구를 위한 지역정체성 확립의 조작적인 정의를 시도한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 분야 중에서 정책적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지역정체성이란 무엇인가?

1. 개념 검토

1) 지역정체성

정체성은 우리 인간환경 속에 존재하는 개체 또는 집단이 참된 본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영어로 identity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어원은 라틴어인 identitas, identicus이며 idem 즉 동일하다는 뜻에 기원한다. 원래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의 자아이론(self theory)에서 나온 것으로 한 개체 또는 사회적 집단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이다.¹⁾ 인간을 정체성의 주체로 보는 경우는 인간정체성이고 도시를 주체로 보는 경우는 도시정체성(city 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은 다른 것과 통합되는 ‘상관적 공유성’ 과 다른 것과 구별되는 ‘배타적 고유성’ 둘 다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정체성의 개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축

1) E. H. Proshansky et al., 1983, "Place-Identity :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3, pp. 57-83.

면을 가진다. 즉,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경우는 그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특징인 ‘동일성(sameness)’이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의 개체로서 보았을 때는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특성인 ‘개별성(individuality, oneness)’의 측면이 있다. 전자는 …와 같은 (identity with)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의 (identity of)라는 뜻을 가진 정체성이다.²⁾

동일성을 도시 혹은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도시 혹은 지역은 바로 그 도시 혹은 지역답다라는 개념이다. 동일성은 변화에 대한 연속성(continuity)과 어떤 대상에 대한 동일화(identification)라는 개념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연속성이다.

어떠한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그 지역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지거나 그 지역에 관련 되는 나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지는 것은 ‘동일화’라고 할 수 있다.

‘개별성’은 특정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고 더 낫다는 개념으로서 특이성(uniqueness)과 우월성(excellence)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특이성은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월성은 특정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무언가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³⁾ 우월성도 여러 지역들 간에 공통적인 요소를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경우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요컨대 지역 정체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이며,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2) E. Relph,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 Pion Ltd., p.45

3) 유병림·황기원, 1992, 「도시문화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p.23-26.

〈표 1〉 지역 정체성의 개념적 구분과 의미

구분		의미	
동일성 (그 지역은 그 지역답다)	연속성		
	동일화	투입에 의한 동일화	그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그 지역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진다
		정합에 의한 동일화	그 지역에 관련되는 나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진다
개별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특이성		
	우월성	공동요소를 비교한 우월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도 있는 요소들과 비교하여 더 뛰어나다
		고유요소 존재에 의한 우월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요소가 있어 더 뛰어나다

지역 정체성은 물리적 공간과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 개념의 결합에 토대하는 것으로 지역과 연관된 우리 의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나 공동체 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거나 정치적 담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집합적 정체성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지역 정체성은 해당 지역의 경제, 문화 또는 지역의 특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그 지역 주민뿐 아니라 타 지역 거주자들의 의식 속에서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정체성이 그렇듯이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조건들이 역사적으로 변함에 따라 지역 정체성도 변할 수 있다.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어떠하며 실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자신을 규정하는 힘이다. 또한 정체성은 무엇이 선하고 올바르며 정당한지,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다시 말해 정체성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복잡한 관계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자신과 자

신을 둘러싼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이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방향을 잡아 주는 틀이다. 따라서 정체성은 자신을 이해 가능한, 그리고 질서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이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시간적임과 동시에 공간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 장소와 공간적 맥락에서 구현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정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 친족, 교육 기관, 생활 습속, 제도적 통제 등이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기능하는 특정 장소적 맥락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그가 처한 지역적 상황 안에서 일정한 지향성을 갖고 행동하게 된다. 한 지역과 타 지역간의 대비와 경쟁을 통해 독특한 집단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은 이처럼 지역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집단 정체성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전지역의 정체성이란, 곧 누가 대전 사람이고, 대전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체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지역정체성 확립의 의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구현한다는 것은 자기를 보는 자기의 눈 즉, 자기인식과 자기를 보는 타인의 눈(나에 대한 타인의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개인, 조직)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잘 알고 내면과 외면 그리고 행동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체성과 일관성 있는 행동양식을 중시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알려주고 항상 ... 답다라는 것을 타인이 생각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5)

지역의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공유된 상징을 갖고 그들 상징에 대하여 자기 것이라는 정서적 관여(commitment)를 하며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경우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정체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강요되어온 중앙집권적 문화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 지역적 개성, 지역의 내생적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상징이다. 지역정체성의 확립은 도시활성화를 위한 기초조건이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자립, 자위, 자치의 삼위일체를 보장하는 분권체제이다.

따라서 도시정체성은 다른 도시에서 빌려오거나 흉내낸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상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된 것이 아닌, 자생적으로 축적되는 것이고 도시발전 전에 이르는 공통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정체성 확립의 유형

지역정체성 확립의 유형은 현재 갖고 있는 정체성의 수준이나 요소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될 수 있다.

(1) 과거의존형/장래조성형

첫 번째는 과거의존형으로서 도시가 과거부터 현재에 걸쳐 보유, 축적하여온 지역자원 중에서 발굴하는 전략형이다. 천연자원, 경제자원, 인적 자원, 문화적 자원, 생활자원, 역사자원 등과 같은 유형을 기초로 지역자원을 망라하고 그 중에서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 되는 변하지 않는 것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거의존형에 비하여 장래조성형은 장래를 향하여 새로운 지역자원을 축적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에 있어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존하는 지역자원에 깊이 의존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2) 무형자원의존형/유형자원의존형

무형자원의존형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 전통관습 등의 무형적 요소에 의존하여 도시의 특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유형자원의존형은 자연경관, 건축물 등의 유형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미지 개선형/이미지 부각형

도시 이미지별로는 이미지 개선형과 이미지 부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지 개

선형은 환경오염, 전염병, 빈곤 등과 같이 종전에는 그 도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았으나 이를 긍정적 측면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지 부각형은 그 도시의 장점을 부각하여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동일성 강조형/개별성 강조형

동일성 강조형은 역사적 연속성이나 주민의 집단적 자아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연관성이 높다.

이에 비하여 개별성 강조형은 다른 도시보다는 우월하고 독창적인 것을 유지하고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유형이며 도시의 집단적 정체성과 연관성이 높다.

(5) 공공주도형/민간주도형

정체성 확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나뉘어 진다. 민간주도형은 민간에 의한 자생적 발전(민간주도) 방식으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민간이 주도적으로 경영측면을 고려하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뉴욕의 소호와 노호지역·헤이리 아트밸리, 파주출판문화단지 등이 그 예이다.

공공의 기획에 의한 발전(공공주도)형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주체를 선정하고 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수립과 재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전체를 주도하는 경우이다. 일본의 홋카이도 유바리·토카무라, 전주 멀티미디어폴리스, 서울 영상벤처센터, 인천 미디어밸리, 부천 영상테마파크, 춘천 애니타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정체성 개념과 연관된 국내외 연구

정체성이란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의 해답으로서 자아의식과 같은 뜻을 지닌다.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 자신의 해답, 규정, 혹은 인식이다. 따라서, ‘집합적 자아’의 경우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자의식을 의미한다.

Goffman, Haabermas 등의 사회학자들은 이 같은 자아정체성을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때문에 정체성은 주관적인 성질이 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정체성에 대한 판단과 인식은 일정하게 객관적인 사실, 경험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또 사회적·인위적 노력을 통해 교육, 각인되는 측면이 있다. 또 정체성은 일단 한번 형성되면 시각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성질을 갖는다(유팔무, 2000 : 35~36 ; 홍승직, 1994 : 82).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면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Ericson이다. 그는 ‘정체성이라는 말은 …… 자아 내부에 있는 지속적 동일성과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몇 가지 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자아형성을 문화·사회와 관련지어 연구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E.H.Ericson, 1968). 정체성은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험 또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환경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거듭하게 됨으로 생각이나 행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기는 언제나 과거의 자기와 같고 내일이나 미래의 자기와 이어진다고 생각하여 점차 그 통합성을 굳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외 정체성 개념⁴⁾에 의해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인문·사회 등 여러 과학과 사회사상에 미친 영향도 지대하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인간의 정체성에 한정되었고 도시나 장소의 정체성까지 확대되지 않았었다(계기석외, 2001 : 12-13).

그 이후, 캐나다의 지리학자 Relph은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장소가 갖는

4) 정체성(正體性)의 사전적(事典的) 개념은 ‘본래의 성질’ 혹은 ‘본래의 가치’를 말하며, 학문적 용어로는 ‘세계관 가치관이 정립된 주체의식’을 말한다. 정체성이란 영어로는 ‘identity’이며 그 어원은 라틴어인 identitas, identicus 이며 idem, 즉 ‘동일하다’는 뜻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체성(identity of places)에 대해 개념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소와 장소정체성을 정의하고 장소정체성의 구성요소로서 정적인 물리적 장치, 관찰되는 활동이나 기능 그리고 의미성과 상징 등을 선정하는 한편 장소정체성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근대도시의 경관형성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경관측면에서의 장소정체성 확립을 논의하였다(E. Relph, 1976 : 44-61 ; E. Relph, 1987).

더 나아가 Lynch는 환경적 이미지는 정체성, 구조물, 의미성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Kevin Lynch, 1960 : 8). Lim은 환경정체성(environmental identity)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을 지역성, 상황성, 역사성, 도시적 공간, 환경적 스케일, 도시경관, 도로의 선택성, 상징성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은 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W. Lim, 1984 : 183-188). Belay는 문화정체성 측면에서 시간성, 지역성, 대비성, 상호성, 복수성이라는 다섯 가지 개념요소 정체성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시간성과 지역성인데, 문화정체성의 개념에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시간의 축과, 지역문화의 보편문화를 잇는 공간의 축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양건열, 2002 : 237).

2)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정책 관련 국내외 연구

지역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지방자치적 차원에서 논의된 사례는 1990년 초반 영국의 지방자치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가 지방의 정체성과 관심에 대한 정책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영국내에서도 이슈로 대두되었다. 지역정체성은 그 지역의 역사, 지형·지세, 스포츠, 레저 등을 포괄하는 문화, 산업, 교통, 인구이동성 등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점이 이 위원회에서 강조되었다(Rick Ball & Jon Stobart, 1996 : 113-115). Giddens는 그의 저서(권기돈 역, 2001)를 통해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변증법적인 논의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논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 지역정체성과 관련한 논의는 탁석산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유성과 창조성을 겸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을 제시하였다(탁석산, 2001 : 84-114).

유병림·황기원 등은 도시환경의 문화적 정체성 연구에서 도시문화환경과 정체성과의 관계, 정체성의 개념구조 및 구현 방법론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사례연구를 함으로써 쾌적하고 개성 있는 도시환경의 질을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 김한배는 한국 도시의 원형과 고유의 구조를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매력없고 비인간적인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한배, 1997 : 19-29).

한편 지방자치와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전략을 축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김준, 2002 ; 정근식, 1998 ; 정호기, 1998 ; 이정덕, 1998 ; 송갑태, 2001 ; 김병철, 2002)가 있다. 이외에도 일정 지역의 지역주민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을 논한 연구(최병목, 1999 ; 유팔무, 2000 ; 이선이·김병관, 1996 ; 전상인, 1998)가 있다.

제2절 지역정체성의 영역과 분석방향

1. 분석의 차원 및 단위

지역정체성은 상징과 이념수준에서 표현되는 사회상의 한 차원이다. 사회의 상은 세 가지 층위를 이룬다. 첫째는, 지리적·자연생태적·경제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지역성을 지칭한다. 각 지역의 공간적 특성, 인구분포, 산업구조의 특성 등이 주요 측정항목이 된다. 도시의 상이란 현실적 생활의 장으로서 도시민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도시민은 이 사회상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순응이든 거역이든- 기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행위자가 소유한 지식, 능력, 동기 등의 요인에 따라 상황을 규정·예상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의 선택과 능력은 환경이 부여하는 제한된 자원의 한도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관계구조라 부를 수 있는데, 특정지역이 외부지역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폐쇄성·개방성의 정도, 연결망에서 연고주의의 정도 등이 관찰대상이다. 예를 들어 인구이동이 빈번하고 활발한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정체성은 고정되기 보다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하는 관계의 망을 ‘사회구조’라고정의하기도 한다. 지역 내, 그리고 지역간 관계구조는 한편으로 행위를 합리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정체성은 상황에 대한 해석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체성은 상징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문화적·이데올로기적·심리학적 측면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지역의 정체성은 사투리와 색상 혹은 다른 지역과 구분짓는 구체적 상징으로 표출되며,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부각시켜 내집단 의식과 귀속감 형성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역정체성은 하나의 상징형태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자연적 조건이나 상호접촉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내면화된 편견이나 스테레오 타입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외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뿌리 깊게 잔존하는 편견이 생겨나기도 한다.

지역정체성은 역동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시간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설명하는 ‘역사적 개념화’가 필요하다. 대전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파악하려면 각종 역사적 자료나 체험의 증언을 통한 자료들을 찾아 지금까지 정체성이 형성돼 온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체성은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지역정체성은 역사적 유적을 발굴·홍보해 상징물로 삼거나,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거나, 각종 지역축제와 이벤트 사업을 개최해, 어떤 부분은 감추고 또 어떤 부분은 부각해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고 창조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정체성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역민들 사이의 사회운동을 통한 변화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2. 구성요소와 분석방향

1) 지역정체성 및 지역정체성 확립의 구성요소

정체성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우선, 지역이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실로부터 기인하는 사항이나 지리적·환경적 고유요소로부터 도출되는 사항 중에서 지역주민의 수요와 부합되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대체로 역사, 문화, 경관, 산업 등과 같이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고 지역적인 수준에만 영향이 과급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계기석외, 2001 : 10-11).

역사분야를 보면, 어느 지역에서 역사적 사건이 대동되었거나 국민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래자원이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나 인물들의 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홍보한다면 그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문화 분야에는 음악, 미술, 문학, 영화, 민속 등 다양한 세부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 지역에만 전래하는 문화활동이 존재한다면 이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전래하는 문화적 요소가 없는 지역이라면 새로이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

여 장기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공간 차원에서의 정체성 확립은 주로 산림, 하천 등의 수려한 자연환경이나 지역 내 건축물, 구조물, 지역공원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미적이고 쾌적한 공간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적인 시각의 공간 외에 미적이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인지되었거나 특별한 의미나 인연을 갖는 것도 중요한 공간정체성 확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되는 산업이 존재할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산물이나 수공업은 그 지역에 귀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지역정체성 확립 분야의 내용

분 야	내 용
역사정체성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의 현장, 유적, 민주화운동
문화정체성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경관정체성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산업정체성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출처: 계기석외, 2001 : 24.

2) 지역정체성 분석을 위한 방향

다음에서는 앞서 논의된 지역정체성의 개념적 구성요소와 확립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즉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역정체성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시의 이미지가 중요한 변수이다. 주택(단지)구조, 도로, 랜드마크, 경관 등이 지역의 이미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인공적인 도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환경은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들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정체성요인의 내재적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일정한 지역의 지역정체성은 전통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어느 일정지역의 관습, 습관의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관습, 전통적인 문화행사 등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획일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커뮤니티 사회가 현대화 과정에서 커뮤니티적인 요소가 해체되고 주민들은 익명성 속에 자기 생활에만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동네에 대한 귀속감이 희박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주거이동현상도 동네의식을 희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도 주거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급격한 주거이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모든 도시민이 몇 년에 한번씩 주거를 옮기는 상황에서 우리 동네라는 의식은 형성되기 힘들다. 우리 동네의식이 형성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 도시라는 의식이 생기는 더욱더 힘들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유사성도 앞서 논의된 동질성의 개념으로 하나의 변수로서 고려될 수 있다. Wittgenstein의 가족적 유사성과 같은 개념으로 한 가족의 성원을 한사람씩 살펴보면 모두 서로 다르지만, 한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가족원들과는 구분되는 어떤 동질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 41).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중소도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공간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논외로 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역정체성은 구성요인이 도시이미지와 같은 인위적인 부분과 자연환경과 같은 부분을 포함하는 경관요인과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전통 등을 주요소로 하는 역사적인 요인 등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이고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등을 통한 지역의 산업적 측면과 축제, 연극, 문학 등 문화적인 요인

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성은 지역의 공간적 창출이나 지속적인 측면이 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차적인 정체성 구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지역정체성 확립 분석틀

지역정체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분석의 기준을 어느 범위에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방법론적으로 뚜렷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왔다. 아래에서는 각 분석의 범위별 분석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선 정의해 보도록 한다.

1. 정체성 확립의 조작적 정의

지역의 정체성을 인간이 인식하고 나타내는 메커니즘은 자의식이며 이 자의식에는 자아에 관심을 두는 자기성찰적, 내부지향적자의식과 자아와 타아에 관심을 두는 타아지향적자의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자인 자의식은 인간의 정체성을 논할 때 적용되고, 후자인 자의식은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작용될 수 있다. 즉, 후자는 자기를 사회에서 타인과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 타아에 대한 관계에서 자아를 의식하는 외향적 자의식이다. 이것은 지역을 구성하는 인간개체가 실존이라는 관점에서 추구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개체군의 구성요소라는 귀속감을 느끼게 하는 자의식이다.

지역의 정체성 중에서 동일성이 확보되면 시민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고 개별성, 특히 우월성이 확보되면 시민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확보할 수 있다. 정체성이 결핍되면 주민들의 자의식이 현재화하여 자기소외감이 생기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자기 실현욕구가 대두된다. 정체성이 주목받고, 결여됨을 우려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희구는 민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집합에 의하여 도출하는 현대적 과제이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의 정착 또는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지역이 개성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당해 도시에 귀속감을 가져야 하며 또한 다른 도시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경쟁과 배타의 공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자기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시대적인 고민 위에 근거하여야 한다.

지역 정체성은 이상과 같이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됨에 따라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고 난해한 면이 없지 않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시도함으로써 지역정책상의 실체를 정립하고 이들의 확립과 구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동일성의 연속성

지역정체성을 동일성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도시에 현존하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특정요소가 다른 도시에 비해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 그 도시의 정체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도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천주교가 전래되어 그 유적과 신도가 많은 도시이다, 민속놀이인 고싸움놀이는 이 도시에서 발생하여 지금까지 매년 재현되고 있다 등이 해당된다.

② 동일성의 동일화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들이 어느 도시에 대하여 느끼는 자부심 또는 소속감의 정도가 강한 경우 그 도시의 정체성이 높다고 한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들 간의 끈끈한 연대감이 조성되어있다,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 도시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에 이 도시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반갑다, 이 도시가 배출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자랑스럽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표 3> 지역 정체성의 조작적 정의

구분		의미
동일성	연속성	-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요소 (최고건축물, 역사적 사실, 전래풍습 등)의 존재
	동일화	-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들의 그 도시에 대하여 느끼는 자부심, 귀속감, 친밀감의 정도
개별성	특이성	- 다른 도시에는 없거나 특별히 다른 것이 존재하여 차별화 되는 정도
	우월성	-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는 정도

③ 개별성의 특이성

도시정체성을 개별성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도시와는 특별히 다르거나 또는 다

른 도시와 다르면서 그 무언가 우수하여 차별화 된다면 개성이 뚜렷하고 정체성이 높은 도시이다. 예를 들면 이곳에 있는 폭포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바다로 직접 떨어진다, 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직물은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 도심에 이만한 면적의 공원이 있는 곳은 이 도시밖에 없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 계획 및 정비는 이 도시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도시는 인구 천명당 교육 기관이 가장 많은 교육도시이다 등이다. 이렇듯 다른 도시와 다르고 독특한 경우는 개별성 중 특이성 측면이다.

④ 개별성의 우월성

다른 도시에는 없는 고유요소가 있거나 공동요소를 비교해 볼 때 더 나은 경우는 개별성의 우월성 측면이다.

상기의 조작화된 정의에 준하여 종합적으로 정의할 경우, 도시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어떤 도시를 그 도시가 갖는 정체성 요소(개별성 및 동일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그 도시답게, 그 도시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도시정체성의 확립에 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조건이 개인의 정체성을 집단적 정체성으로 끌어올리며 또한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그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개념으로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관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적 장소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중심성, 복합성, 가시성을 고려해 두도록 한다.

① 중심성

중심성이란 자기 자신을 어떤 장소에 위치시키고 그 장소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② 복합성

복합성은 일상적인 감각적 경험 속에서 정보를 얻고 이미지를 형성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자기가 지각하는 여러 환경요소들간의 차이, 대비, 상관성 때문에 의미가 부여된다.

③ 가시성

가시성이란 눈에 보이는 경관(건조환경 포함)을 의미한다. 정체성 영향요소에 비추어보아 도시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심성의 개념에서 역사적인 요인이, 복합성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인적 교류와 상징이, 가시성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건조환경과 의례로서의 축제가 의미있다.

이와 같이 추상적인 정체성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여 보았으나 현실사회에서는 여전히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특정도시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여러 측면 또는 요소들이 단독으로 발현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상의 것을 환언하면 결국 도시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주민과 외부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도시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조작적, 실체적 정의는 본 연구에서 국내외 사례연구와 정체성 확립방향 설정과 전략 강구시 기본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2. 정체성 확립의 속성과 키워드

지역정체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문화정체성 그리고 지역브랜드 제고 전략이나, 도시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문화정체성, 도시이미지와 스토리 창출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거나, 이 같은 정책지원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입장에서의 연구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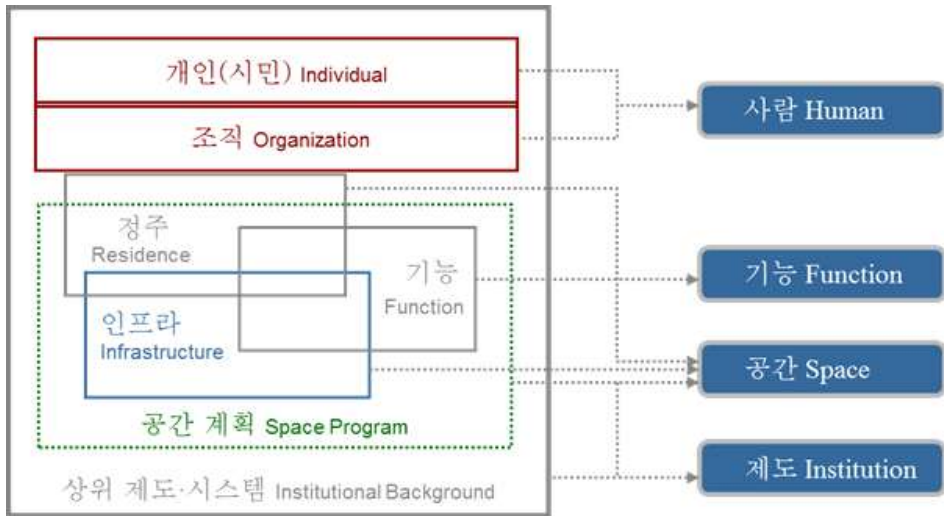
더 나아가 수동적인 관리형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혁신 구현을 도시정체성 확립 전략의 기대효과로 이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논의 속에서도 도시가 지닌 정체성 확립이 도시 경쟁력의 출발이라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천착해 볼 때, 도시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를 대전에 적용할 경우, 지역정체성에 대한 보다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의 경우, 특정 부문에 국한된 전략보다는 도시의 전 부문과 요소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으로서 정책성 확립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전 지역정체성 모델 구축은 도시이미지 형성의 역사적 흐름과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고, 도시정체성 형성의 키워드를 새롭게 발굴하는 작업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대전의 지역정체성 확립은 개인 단위에서 구현되는 생활 및 삶의 방식의 속성과 가치를 집단적, 제도적, 구조적으로 확산한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의 차원과 전략영역의 발굴은 아래 그림과 같은 영역 구분의 논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1>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 영역

제 3 장

대전 정체성의 특징

제1절 대전 정체성의 흐름

제2절 대전 기질의 형성요인과 특징

제3절 대전의 위상

제4절 국외 및 국내 도시의 정체성 확립 사례

제 3 장 대전 정체성의 특징

이 장에서는 대전의 지역정체성 형성을 동일성과 개별성이라는 차원에서 역사적 흐름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지금 드러나는 지역정체성 현상이 어떠한 과정이나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대전정체성의 흐름

1. 대전의 역사⁵⁾

1) 선사시대

대전광역시에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없지만, 대전 주변의 공주 석장리나 청원군 가덕면 두루봉 등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대전시도 공주와 청원의 구석기 문화권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최근 선사시대 유물을 비롯해 도요지 등 각종 유적과 유물들이 잇따라 발굴되면서 대전이 뿌리 없는 도시라는 그릇된 통념들이 무너지고 있다. 오히려 대전지역은 선조들이 시대에 따라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윤택한 삶의 터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철기시대

청동기 시대에 이어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은 대전지역에서 아직 발견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는 역사상 삼한시대에 해당된다. 철기문화가 보급되면서 한강 이남지역에는 삼한의 연맹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삼한시대의 대전지역은 마한 54국 가운데 신흠국이 위치하였던 곳이다. 신흠국은 진잠근처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마 이들은 이 근처의 훌륭한 청동기문화를 이은 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신흠국은 수 개의 씨족사회가 모여서 이룩한 부족국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마한 신흠국의 문화는 삼국이 터전하면서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문화는

5) 대전의 역사에 대한 분석 자료는 대전시(1991)을 참조함

소멸되고 이 곳에서는 백제문화가 꽃을 피게 되었다.

3) 백제시대

백제의 지방제도에 의하면 대전은 북방(웅진성, 지금의 공주)에 속한 군현이었다. 군으로는 우술군과 황산군이 있었다. 우술군의 치소는 지금의 회덕으로 추정된다. 우술군은 소비포현과 노사지현(지금의 유성)의 두 현을 영현으로 하였다. 황산군은 연산에 치소를 두었는데, 그 영현인 진현현(지금의 진잠)이 대전에 자리잡았다.

이와 같은 군현의 영현관계는 백제 후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후 근세에 이르기까지 대전지역 군현의 영현관계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되어 왔다.

이후 백제는 웅진 천도후 신라와 동맹관계를 맺으면서도, 한편으로 국경선의 방비를 공고히 하였다. 금강의 상류인 영동에서 대전에 이르는 지역은 인위적인 요새가 필요하였다. 그 가운데도 특히 대전은 삼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신라와 접경하고 있는 주요한 방어지점이었다. 이리하여 백제는 이곳에 많은 성을 쌓았다. 동성왕은 식장산 아래에 탄현성을 쌓고, 이어 그 근방에 계족산성, 질현성, 능성, 성티산성 등 많은 성을 쌓아 동쪽에 성을 쌓은 왕이라는 동성왕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동쪽의 신라가 공주 쪽으로 가려면 옥천에서 동성왕이 설치한 탄현을 넘어 통과하게 되어 있다. 이 같이 신라의 국경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통로를 따라 백제의 수준 높은 문화가 신라로 흘러들어 갔으며 문물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4)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는 통일 이후 점령지에 대하여 행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서기 687년에 9주를 설치했는데 9주의 하나인 웅천주는 공주에 두었으며, 대전부근을 포함한 충남 일대를 다스렸다.

<표 4> 통일신라시대 대전시 연관 군·현

백제시대 군·현	신라시대 군·현	지금의 지명
熊津	熊州	충청도·공주
雨述郡	比豊郡	대덕구·유성구
奴斯只縣	儒城縣	유성구·서구
所比浦縣	赤鳥縣	탄동(덕진)
黃等也郡	黃山郡	연산
眞峴縣	鎭嶺縣	진잠

대전은 웅천주에 속했는데, 이 웅주는 지금의 충청남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충청도의 원형은 이곳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왕위 계승 싸움이 빈번한 가운데 헌덕왕 때에 김현창의 난이 일어났다. 웅주 도독으로 나가 있던 김현창은 웅주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고 기세를 올렸다. 김현창의 반군을 진압하려 출동한 관군과 반군이 대치한 곳이 바로 대전이었다. 대전은 예부터 삼남의 교통요지였고,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킬 때, 백제 부흥군이 신라의 군량을 차단했던 거점이 대전이었듯이, 이 때 양군의 격전도 대전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반군 세력은 결국 왕군에게 진압되고 말았다.

5) 고려시대

고려시대 대전은 기층민중의 인간해방을 부르짖는 투쟁의 터전으로서 정부군과의 충돌이 끊임없었다. 1176년 천민들의 집단거주지인 명학소(지금의 탄방동 부근)에서 발생한 천민 망이와 망소이의 반란은 기층민중의 신분해방투쟁에 불을 당긴 사건이었다.

6) 조선시대

고려왕조를 무너뜨린 이성계는 조선을 창건하면서 건국 초에 조선의 도읍지를 계룡산에 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계룡산 정도계획」은 지금의 신도안(계룡시)지역으로서 대전 근교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자못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1년 남짓 벌어진 신도안의 신도건설은 곳곳에서 건설의 망치소리가 메아리를 이루었으며 그 메아리는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관찰사 하륜의 상소로 신도건설은 반대에 부딪쳐 정도계획은 한낱 신화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대전은 주자학의 큰 맥을 형성하며 기호학파의 요람으로 부상하였다. 예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은 한밭 땅에 유학의 씨를 뿌리고 탐스러운 결실을 맺게 해준 큰 스승이었다. 그의 문하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인 송시열과 송준길이 배출되었다. 대전지역은 김장생을 중심으로 기호학파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며, 그의 아들 신독재 김집과 제자 송시열 등에 의해 더욱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따라서 대전은 기호학파의 요람이며 봉당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봉당정치가 한창일 때 한밭은 대학자와 정치가들이 논쟁을 벌였던 정치의 중심마당이였다.

7) 일제시대

대전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문화재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는 매우 낮은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대전이 일제 때인 1905년 경부선의 개통과 더불어 생긴 신흥도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4년에는 대전에서 호남선이 갈라지면서 교통의 요지로 부상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인구의 유입이 급속화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전 중심부의 원주민이라 해도 100년이 안 된 거주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8) 해방이후

8.15광복 이후 정치·사회·문화 등이 일본식 잔재와 서구풍에 휘말려 우리의 정통성에 많은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6.25사변이 발생하였다.

그 당시의 대전시가지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피해가 극심하여 폐허화되었다. 전 재 복구는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10여 년이 걸렸다. 1950년대 대전시의 두드러진 변모양상은 많은 군부대의 주둔으로 군사문화를 제외하고라도 도시계획을 비롯한 개발과 발전에 많은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그 지역 일대가 통제되고 제한되는 문제점으로 대전시의 성장속도가 늦었다

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은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왔다.

① 1960년대

1960년대(1960-1969)는 대변혁기였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이후 1962년 1월 15일에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국토개발 및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국책목표로 설정한 것이 한국근대사의 분수령이었다.

대전재건계획(1961-1963) 기간 중 시행된 주요 사업은 도로개수 및 포장, 치수, 국민주택(판잣집 개량사업), 상하수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서 대전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다.

② 1970년대

1970년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고, 제3차, 제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온 시기였으며, 특히 1972년부터는 새마을운동이 도시와 농촌에 구별없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조국 근대화의 기반을 확립한 시기였다.

대전에서도 국가시책에 바탕을 두어 단위별 종합개발 5개년 계획(1972-1976)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며, 전 시민의 ‘자조·자립·협동’ 의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욕과 저력을 총 집결시켜 변영의 1970년대를 향한 개발과 건설에 주력하였다.

1970년대 중반기부터 개발정책의 두드러진 특색은 공업의 지방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의 분배시책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대전에서는 1950-1960년대보다는 1970년대가 모든 면에서 도로개발사업이 활발하였다.

③ 1980년대

1980-1990년은 대전역사상 제일 약동기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제5,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제1,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지역균형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1980년대 전·중반기는 대전광역시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기였고, 그 결과 198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로의 승격으로 우리나라에서 1특별시 5개 광역시 내에 포함되는 대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광역시 승격과 함께 도시행정구역이 208.28㎢에서 503.25㎢로 2배 이상 확장되었고, 서울 다음가는 광역도시구역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종전의 3개 구청 1개 출장소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구청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각급 군대의 이전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그 자리에 둔산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토지이용률이 높아졌다.

특히 1980년대는 서해안과 대전의 개발시대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택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주택, 도로, 교량, 상수도,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등 도시토목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이 많았으며, 광역시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조성사업에도 눈부신 진전을 가져 왔다.

④ 1990년대

1990년대에는 서해안개발의 영향권, 행정수도로의 기능강화,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과학도시로서의 활성화, 유성온천종합관광휴양도시개발, 3대 도시 하천종합개발, 용계, 진잠 등의 서부권 신도시개발, 계룡시, 공주, 부여, 조치원, 옥천, 금산, 청주 등과 연계되는 광역도시권개발, 순환도로 하천변고속화도로, 전철 및 고속전철 등 교통망체계확립, 도시환경개선, 대전 세계박람회 등이 계획 및 추진되었다.

아울러 정부의 청단위 부처가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 제3청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⑤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대전은 대한민국의 신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여러 변수들이 발생했다. 우선 대전 부근에 행정수도이전문제로 위헌논란을 겪었지만 행정도시로 자리매김되면서 2007년부터 세종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앙부처 9부 2처 2청이 점진적으로 이전해오면서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이 세종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권력의 이동으로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비교적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진 대전에 정착하면서 대전은 중부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더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가 대전으로 결정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과학수도로 각인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기초연구로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과학도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제2절 대전 기질의 형성 요인과 특징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정체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일화와 개체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게 되면서 순간 순간 구조화되며, 장기적으로 변화해가는 속성을 지닌다.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 본 대전의 역사 속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안정화되어가도록 하는 요인들이 어떠한 역학관계 속에서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전정체성의 형성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1. 사회구조적 요인

우선, 대전의 기질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심의 요인으로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흔히 대전의 정체성은 다른 지역의 그것에 비해 색채가 뚜렷하거나 강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소극적이거나 느리다거나 자기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듣는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대전 사람들 스스로의 생각이다. 지역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스스로 탐색하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이러한 대전의 지역정체성을 형성하였는가? 아래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역사적 요인과 자연생태적 요인

첫 번째, 여러 요인을 상정할 수 있지만, 사회구조적 방식으로 설명하면, 먼저 자연적이고 역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대전 사람들(충청도 전체도 크게 틀리지 않지만)은 대체로 어떤 사회적 쟁점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데, 이것을 대전 지역이 삼국시대의 접경 지역에 있어서 지배세력의 교체가 잦았다는 지정학적 사실이나 척박하지 않은 자연환경에 기인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2) 산업화와 사회운동의 역학

다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산업화와 사회운동 참여의 정도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대기업과 일부 지역에 특혜를 주는 불균등 성장 및 발전정책을 채택하여 압축적 성장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이다.

이 성장정책의 혜택을 받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충청도라는 범위에 놓여 있을 때 대전은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호남이나 강원도처럼 배제된 지역도 아니라는 애매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충청도는 정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그렇다고 수혜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게 되었다.

노동운동도 자본축적 과정에서의 지역의 정치경제적 토대와 상황을 반영한다. 산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지역(예컨대 영남과 수도권)은 노동자들의 공간적 집중이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운동을 벌였지만, 대전을 포함하여 충청도는 이것과도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운동(노동운동 포함)에의 참여에 있어서도 대전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다. 대전에서의 강한 사회운동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관계로 충청도로 경계를 확장해서 보면, 주민운동으로서는 충남 안면도의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충북의 ‘고속전철 본선역 유치운동’ 정도가 주목할 만한 운동이었을 뿐, 이렇다 할 사회운동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충청도 사람들이나 대전사람들의 지역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일반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현재 대전시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관계적 요인 - 연줄망 및 정보생산·유통능력

상기의 구조적 요인 이외에도 현재의 대전시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몇 가지 더 있다. 이들 요인은 연줄망 및 정보생산·유통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대전의 지역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 왔다.

1) 연줄망

한국 사람들의 사회관계의 핵심적 특징인 연줄망의 의존 정도가 지역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⁶⁾

이미 우리에게서 TK(대구·경북)나 PK(부산·경남), 혹은 MK(목포·광주)라는 약어가 낯설지 않다. 그리고 각종 향우회가 투표행태와 사업성과 등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향 까마귀만 보아도 반갑다’는 속담은 단순히 고향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만이 아니라, 고향을 연줄망의 하나로 간주하여 활용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학연이건 지연이건 이해관계의 증진을 위해 모든 연줄망을 다 이용하지만, 상층은 학연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일반 사람들은 향우회와 같은 지연을 이용한다.

그리고 지연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서 활발하게 작동한다. 영남 향우회보다는 호남 향우회의 활동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두드러졌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향우회와 같은 지연 연줄망이 미약하다고 해서 그 지역의 연줄망 자체의 힘이 약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학연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학연과 지연은 상당 부분 겹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K와 PK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연과 학연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 사실 대구·경북 지역 사람들은 지연과 이 지역 명문고의 학연을 교차하여 이용한다. 부산·경남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도는 이러한 별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대전이나 충청도 연줄망의 유약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전을 비롯한 충청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연에 의한 연줄

6) 정체성은 개인의 의식과 태도와 관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의 반영물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 속담에 ‘친구따라 강남 간다’거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말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이다. 개인의 행위는 준거집단과의 포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알면, 그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집단적 연줄망은 학연이다. 학연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연줄망은 지연이다.

망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06년에 조사한 “전환기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중 연줄관계를 묻는 조사항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연줄망은 평균 2.7명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다소 많은 연줄망을 갖고 있다.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 연고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은 제주도이다. 다음이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의 순인데 대체로 서울과의 거리에 비례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비율이 적은 것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출생지 출신비율은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높는데, 이것과 영호남의 지연에 의한 연고주의 성향의 고조간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연고주의 성향은 서울토박이 비율이 낮고 여러 지역 출신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가장 낮다. 서울 다음으로 연고주의 성향이 낮은 지역이 충북이다.

대전은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수도권인 경기·인천보다도 지연에 의한 연고주의 성향이 낮다.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서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전이 가장 연고주의 성향이 낮은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

대전을 비롯하여 충청도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기 지역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지연에 의한 연줄망 의존도가 낮다. 이것은 그만큼 지역정체성의 색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이러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출향자)만을 상대로 연고주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국을 모집단으로 했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현저히 연고주의 성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도권에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동향이 아닌 사람과 지연 이외의 다른 연줄망으로도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제주도와 영남과 충청도 출향자들의 연고주의 성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비하여 호남 출향자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출향자들은 지연 이외의 다른 연줄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호남 향우회가 매우 강력한 것이 이와 관련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 인사들의 경우에도 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연고주의 성향이 높다. 종합적으로 말해 충청도 사람들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나 수도권에서나 지연에 의한 연줄망이 매우 낮다. 대전을 비롯하여 충청도 사람들의 지역정체성이 다른 지역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강한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연줄망은 하나의 자원이자 동시에 개인의 의식과 행위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준거집단의 역할을 한다. 자신이 지연에 의한 연줄망 의존도가 낮을수록, 즉 자신이 속한 집단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비중이 높을수록 다른 지역을 차별하는 태도는 낮아진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대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 사람들과 달리 출신지역이나 거주지역에 대한 응집력이 높지 않다.

2) 정보의 생산유통

지역정체성을 형성시키고 형성된 지역정체성을 강화시키려면 지역 자체적으로 정보(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의 정보 생산과 유통능력이 지역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화 요소이다.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생산능력과 지역사회간의 교섭력간의 관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두 지역사회의 정보 생산능력이 비슷하고 서로 독자적인 지역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두 지역간의 교류가 많지 않은 경우로서, 이 때는 두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지역정체성이 계속 유지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지역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영남과 호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두 지역사회가 원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조건으로나 비슷한 지역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교류가 많을 때에는 원래의 지역정체성이 더 강화된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광주와 전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간의 정보 생산능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두 지역사회의 교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보 생산능력이 큰 지역사회가 그렇지 않은 지역사회의 지역정체성을 약화시킨다.

한국 사회의 경우 서울과 나머지 모든 지역 사회간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도 서울과 인적 교류가 많고 거리가 가까운 지역사회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대전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대전은 영호남과 인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서로 독자적인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의 관계는 다르다.

이 두 지역간에는 인적교류가 상당한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서울의 정보 생산력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 서울의 정보(문화) 생산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대전시가 지역정체성을 자체적으로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은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역정체성의 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지역사회의 정보 생산과 유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신문(지방지) 구독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정체성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을 주로 보도하는 언론을 자주 접함으로써 형성되고 전파된다. 이것은 중앙지도 보도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신문이 주로 담당한다.

이 점에 유의하여 대전의 지역신문 구독 비율을 2008년에 일부 아파트 지역을 표본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 비율이 대전은 15%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았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완결하느냐의 여부가 지역사회 고유의 정체성의 생산과 유지를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한다면, 매우 미흡하다.

특히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전은 이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력이 극히 미미하여 지역정체성의 형성 조건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대전의 지역정체성은 다른 지역사회의 그것과 비교하여 뚜렷한

색채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 자체가 약화될 소지를 분명히 안고 있다.

3. 인구학적 요인- 인구의 흡입 배출

지역과 지역 간에는 사람들의 교류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부터는 산업화의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에서 산업화 지역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불균등 지역성장 정책을 통하여 산업화를 단시간 내에 이룩하였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사이의 인구이동의 흡입과 배출이 매우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구의 증감 여부 자체보다는 인구이동 유형과 그 정도이다. 지역정체성이 비슷한 두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인구이동이 다 같이 대거 이루어지더라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 산업화의 질이나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서 지역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후자의 지역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중심권과 주변권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계속되면 주변지역은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중심권의 정체성에 흡수될 가능성이 많다.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자체적인 지역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서울의 정보 생산능력이 월등히 뛰어나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생산능력이 있는 중심지역과 그렇지 못한 주변지역과의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거리이다. 어떤 지역의 정체성의 생산과 유지는 중심권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경기도와 인천이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처럼 다른 지역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 생산능력이 압도적으로 크면 서울과의 교류가 확대될수록 그 지역의 정체성은 약화된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의 인구이동 유형은 매우 특이하다. 특히 대구와 경북, 부

산과 경남, 광주와 전남처럼 인접 광역시와 광역도간의 인구이동 유형과 대전과 충남간의 그것을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인구이동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광역시와 광역도간의 인구이동이 다른 지역간의 인구이동보다 매우 활발한데 비하여 대전과 충남은 그렇지 않다.

서울의 총전입자 중에서 경기도 전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5.9%, 부산의 총전입자 중 경남 전입자들의 비율은 43.6%, 대구에 대한 경북의 경우는 51.2%, 광주에 대한 전남의 비율은 56.2%이다. 그런데 대전에 대한 충남의 경우는 26.9%로서 위의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경기도 총전입자 중 서울 출신의 비율은 68.1%, 경남의 총전입자 중 부산 출신의 비율은 54.7%, 경북과 대구의 경우는 37.1%, 전남과 광주의 비율은 29.2%인데 비해 충남과 대전의 경우는 10.5%에 지나지 않아, 대전과 충남의 경우는 다른 광역시와 인접 광역도와 관계와 달리 인구이동의 양이 매우 적다. 그러면 대전과 충남으로 들어오는 전입자들은 어디서 오는가? 대전의 경우 서울로부터의 전입자가 22.0%이고 경기도 출신이 12.1%로서 수도권 출신이 가장 많다. 충남의 경우는 대전보다 더 분명하다.

충남의 총전입자 중 서울 출신은 28.3%, 경기도 출신은 22.7%로서 총전입자 중 절반을 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다른 광역시와 광역도와 달리 상호 인적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이를 수도권과의 교류로 대신하고 있다. 대전에 과학연구단지와 일부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과 충남간의 인구이동 증가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정보(문화) 생산능력과 지역사회 경제 규정력의 차이가 완전한 두 지역간의 인구이동의 증가는 대전과 충남의 고유한 지역정체성을 형성시키는데 결코 유리한 조건과 기반이 못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적교류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인구교류가 압도적으로 높고, 같은 충청권과의 관계가 미약하다는 것은 대전의 고유의 정체성이 약화될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지역 출신들로 이루어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고유의 지역정체성을 상실

하는 것처럼 대전시도 외지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또 하나 갖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서울은 정보(문화)를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대전은 그렇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4. 내재적 요인 - 대전사람들의 기질에 대한 내부 인식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연출망과 정보의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인구의 흡입과 배출 등과 같은 요인이 충청도의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논의하였다.

지연에 의한 충청도의 연출망 의존도는 전국에서 가장 약하고,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서울과의 교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아 충청도 고유의 지역정체성은 유지의 커녕 오히려 약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충청도의 지역정체성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과거부터 갖고 있던 지역정체성이 위에서 말한 요인에 의해 약화된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지역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 스스로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역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 자신이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특징을 규정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충청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부여하는 이미지(지역정체성)는 ‘양반의 고장’에 살고 있으며 행동거지가 ‘느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조선시대부터 오랫동안 형성된 지역담론, 즉 일종의 충청도의 기질론이다. 충청도 사람들 자신이 충청도를 ‘양반의 고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느린 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의하면 충청도는 “서울 남쪽에 가까이 위치하여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서울과 풍속에 심한 차이도 없으므로 (양반들이) 가장 살 만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한양에 살던 양반들이 은퇴하면 서울에서 가까운 충청도로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 양반의

비율이 높아서 충청도를 양반의 고장이라고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반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고 충분히 생각한 연후에 행동하기 때문에 자연 ‘느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로 ‘느리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 뜻을 갖고 있다. 충청도의 또 하나의 별칭은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이다. ‘맑은 바람에 밝은 달’이라는 이 말도 충청도 양반들이 충청도의 자연을 빗대어 말한 일종의 읍풍농월(吟風弄月)이다.

다른 지역에 대한 구절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의미는 더욱 더 뚜렷하다. 다른 지역은 사람들의 성격을 그 지역의 특색으로 규정한 것이 많은데, 충청도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지역의 대표적인 특색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풍명월은 충청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칭송하는 말이지만, 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상징이다. 이 별칭에 대해 충청도 사람들은 적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의 이미지를 계속 부여하면, 그 이미지는 영토적 사회화 과정에 의해 그 지역에 대한 지역정체성으로 고착된다. 물론 한 번 형성된 지역정체성은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와 같이 항상 변화한다. 현재 충청도의 지역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앞서 말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정체성의 변화의 속도는 대단히 느리게 진행된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를 거의 알아채지 못한 채 그들의 지역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 긍정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역정체성은 더욱 그렇다. 충청도 사람들이 현재도 스스로를 ‘양반의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이 ‘느린 것’을 좋게 평가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모두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충청도 사람들은 무엇을 급하게 처리하면 충청도 사람답지 않다고 산업화와 정보화가 괄목할만하게 진행된 현재에도 좋지 않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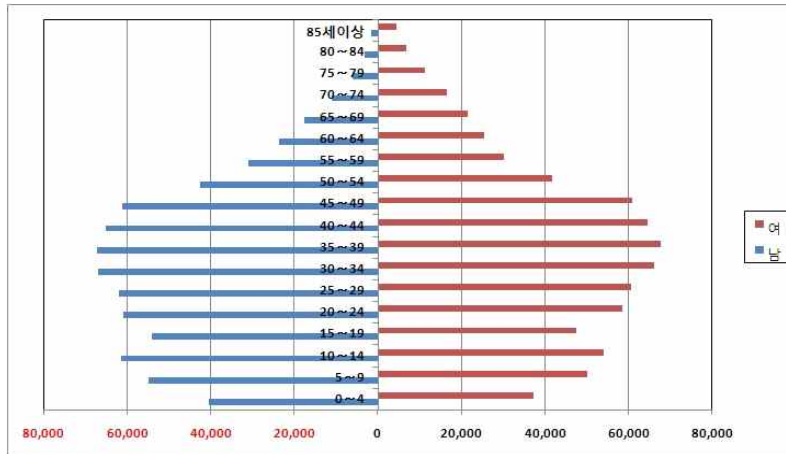
제3절 대전의 위상

지역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간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화하게 된다. 앞서 대전지역의 정체성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형성되어왔으며, 변화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현재 대전의 정체성 현상이 동일성과 개별성의 양상으로 어떻게 지역사회에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단위요소인 사람의 측면과 산업적 측면, 공간적 측면, 제도적 측면, 관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람측면에서 본 개별성

1) 인구증가 지속의 ‘젊은 도시’

대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젊은’ 도시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대전광역시 인구는 147만 5,961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18%로서 7대 도시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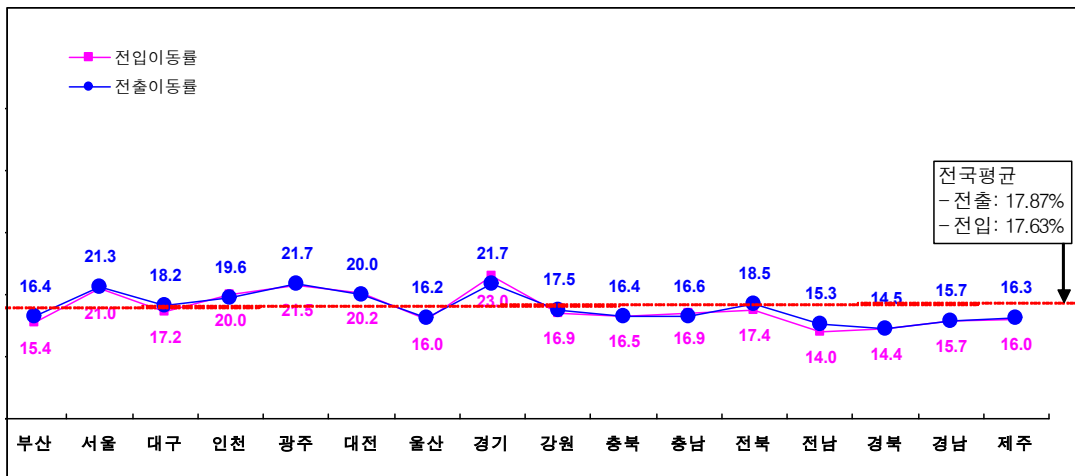


<그림 2> 대전광역시 연령 및 남녀별 인구구조

1980년, 65만 명에서 2006년, 146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 전국인구 대비 3.0%를 차지하며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항아리 형태의 인구구조를 보인다. 대전 고령화 지수는 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특성을 보이며 20~40대 인구가 대전 전체의 51.8%로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단, 10세 미만 인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특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전입인구가 높은 도시

대전의 신시가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출에 비하여 전입인구가 높은 수준이다.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현황을 비교하면, 대전의 전·출입 인구이동률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대전을 비롯한 경기, 인천, 충북, 충남은 전출에 비하여 전입인구 이동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들은 전출비율이 높다(전국 평균 전출 17.87%, 전입 17.63%). 2000년 이후 대전의 순 인구이동률은 1% 미만 대에 머물고, 지난 5년간 대전의 인구이동률은 0.6%에서 0.2%로 감소하였다.



<그림 3>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대전광역시 내 인구는 신시가지인 서구와 유성구가 중구에 비하여 약 2배가 많은 특징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신시가지인 유성구와 서구는 인구가 증가(인구증가율은 각각 5.19%, 0.05%)한 반면, 기타 자치구는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다. 대전의 자치구 중 유성구가 유일하게 1만 5천여 명이 전입하였으며, 이 중 절반은 타 자치구, 나머지 절반은 타 시도 출신이었다.

3) 창조계층의 집적 도시

대전의 정체성 현상을 사람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장 개별성 차원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한 창조계층이 집적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창조계층 433만 명 중 대전의 창조계층은 15.1만 명(3.4%)으로 대전의 창조계층 비율은 양·질적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대도시의 노동인구 대비 창조계층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은 각각 29%, 28%로 우리나라 최상위 수준을 차지(전국 평균 22%)한다.

대전의 핵심 창조계층은 전체 노동인구의 16%로 서울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임(전국 평균 12%). 또한, 대전의 창조계층은 핵심창조계층⁷⁾ 8.9만 명(59%), 창조적 전문가 6.2만 명(41%)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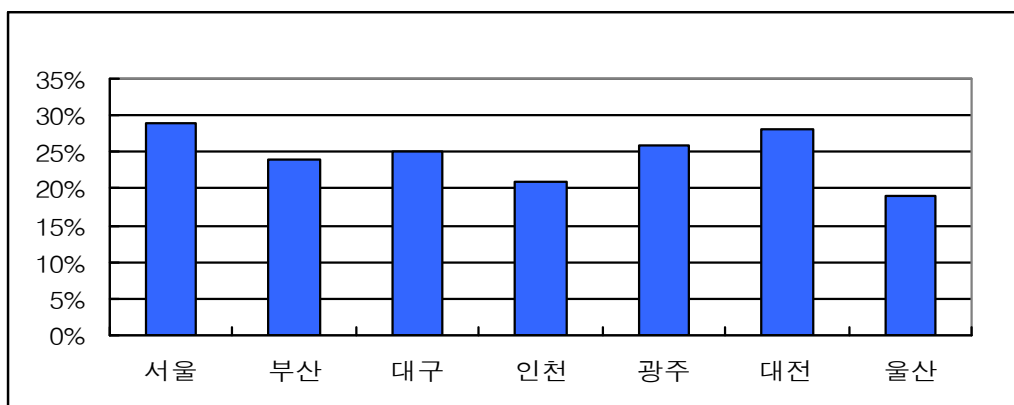
7) Florida의 분류에 따라 창조계층을 핵심창조계층과 창조적전문가로 구분, 핵심창조계층에는 컴퓨터, 수학 관련, 건축, 공학직업, 생명, 물리과학, 사회과학직업, 교육, 훈련, 사서직업, 미술, 디자인 연예오락, 스포츠 미디어 직업 등이 있음. 창조적 전문가는 사업, 금융, 법률, 건강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속한 직업 종사자들이 포함됨

〈표 5〉 우리나라 창조계층의 성장과 분포

단위: (천명, %)

	2005				2010			
	창조계층전체 (%)		핵심창조계층 (%)		창조계층전체 (%)		핵심창조계층 (%)	
전국	4,100	22%	1,986	12%	4,337	22%	2,310	12%
서울	1,285	33%	576	15%	1,172	29%	622	16%
부산	267	20%	132	10%	309	24%	145	11%
대구	193	22%	92	10%	225	25%	196	12%
인천	224	23%	101	10%	208	21%	198	11%
광주	117	25%	63	13%	135	26%	72	14%
대전	139	28%	76	15%	151	28%	89	16%
울산	83	21%	47	12%	81	19%	51	12%

*주: 이희연(2012), 비율은 전체 노동인구 대비 점유율을 말함.



*주: 이 비율은 전체 노동인구 대비 점유율임.

〈그림 4〉 대도시의 창조계층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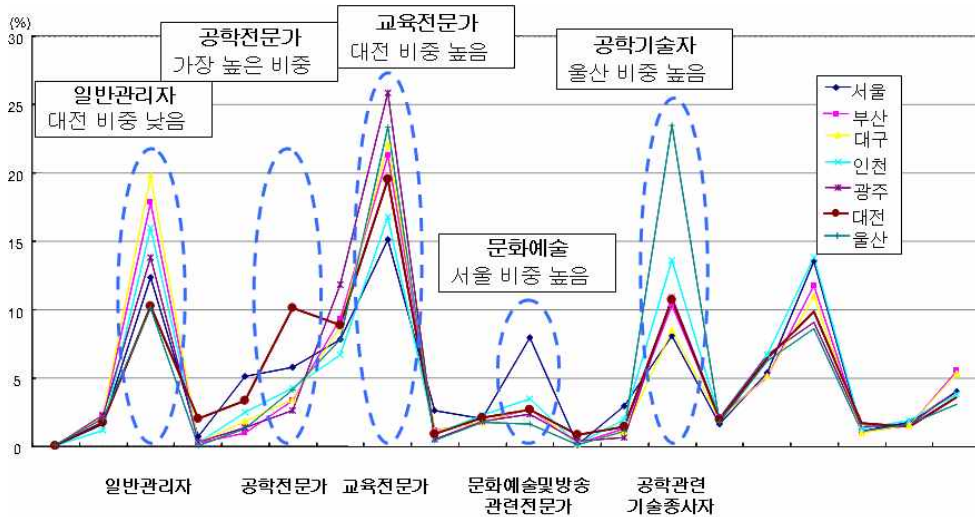
동일성과 관련하여 대전시 안의 거주를 구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전체 창조계층 중 63%가 유성구와 서구(유성구 3만 4,421명, 서구 6만 105명)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내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4) 과학기술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좀더 구체적으로 인구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전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의 약 10%가 집중되어 있다. 대전의 연구개발 인력은 총 25,929명으로서 서울(30.1%)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연구개발 인력 중 대학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대학 10,344명(39.9%), 공공연구기관이 7,863명(30.3%), 기업체 7,722명(29.8%)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 학원도시로서의 정체성 또한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투자비는 전국 대비 26.4%를 점유하고 있다. 2006년 국가 연구개발투자 예산 8조 7,639억 원 중 수도권권이 39.6%, 대전이 무려 26.4%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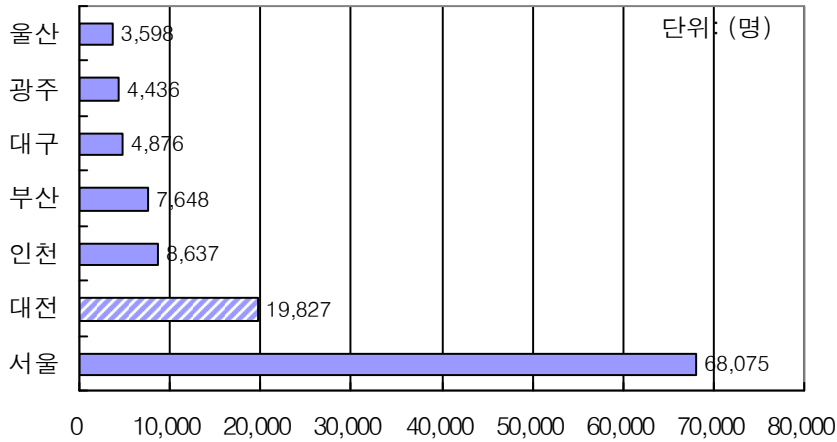
대전은 공학전문가 비율이 전국 최고이며, 교육전문가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하여 서울은 문화예술, 울산은 공학기술자의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자료: 통계청(2006),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5> 대도시 창조인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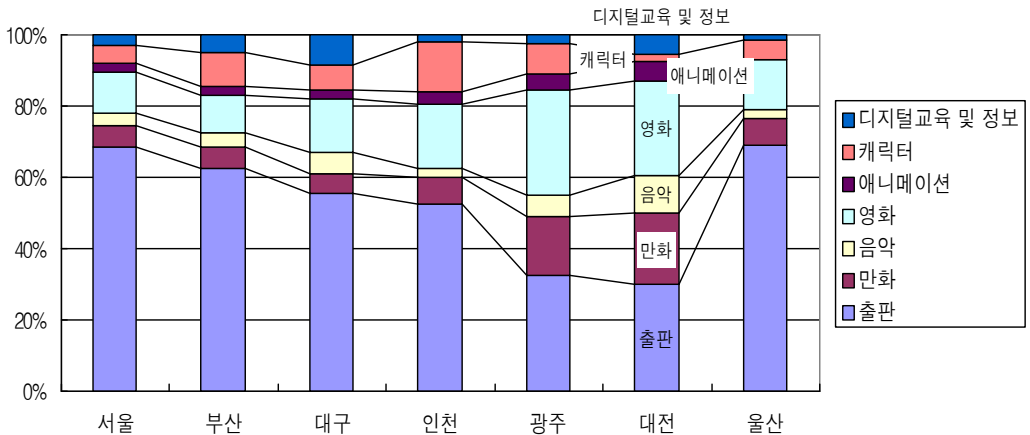
2006년 대전은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7.7%인 19,827명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과는 큰 격차를 보이나, 타 광역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서울 및 6개 광역시 과학기술인력(연구원) 분포(2006년)

5)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기반산업과의 불균등

하지만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내용은 대전의 문화산업이 걸음마 단계라는 점이다. 정체성 확립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7), 문화산업통계.

<그림 7> 대도시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 비교

2006년 현재 대전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종사자의 2.4%(3,423명) 보유하고 있어 과학기술인력의 비중에 비하여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문화산업 종사자의 대부분(70% 이상)은 수도권에 입지하여 있다. 따라서 타 대도시에 비해 대전은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 종사자 비중이 큰데 비해, 출판, 캐릭터 분야 종사자 비중이 작은 형편이다.

2. 산업측면에서 본 개별성 현상

1) 사회서비스업 중심 도시

<표 6> 대전의 창조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산업부문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대전	전국	비율	대전	전국	비율
제조업 관련	출판업	62	4,734	1.31%	1,330	62,702	2.12%
	인쇄및인쇄관련산업	555	17,604	3.15%	1,432	67,417	2.12%
	방송수신기및영상,음향기기제조	15	1,698	0.88%	211	63,322	0.33%
	안경,사진기및기타광학기기제조	38	1,036	3.67%	940	17,191	5.47%
	기타제품제조업	427	16,502	2.59%	1,466	60,809	2.41%
사업서비스 관련	컴퓨터시스템설계및자문업	9	368	2.45%	109	21,860	0.50%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	295	8,283	3.56%	2,863	137,972	2.08%
	자연과학연구개발업	151	1,884	8.01%	15,045	75,217	20.00%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19	634	3.00%	374	10,091	3.71%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	316	11,798	2.68%	2,089	128,949	1.62%
	광고업	124	5,906	2.10%	446	30,881	1.44%
	전문디자인업	44	2,392	1.84%	139	11,033	1.26%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13	10,072	3.11%	746	23,332	3.20%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441	13,652	3.23%	9,025	225,189	4.01%	
문화 관련	영화산업	71	3,199	2.22%	458	25,248	1.81%
	방송업	15	784	1.91%	770	25,153	3.06%
	공연산업	31	1,760	1.76%	257	13,756	1.87%
	뉴스제공업	3	120	2.50%	45	1,559	2.89%
	도서관,박물관 및 기타문화관련산업	212	6,310	3.36%	1,158	30,370	3.81%

대전은 전통적 제조업 기반의 도시가 아닌, 사업서비스업 중심 도시이며 영화산업의 경쟁 우위가 있는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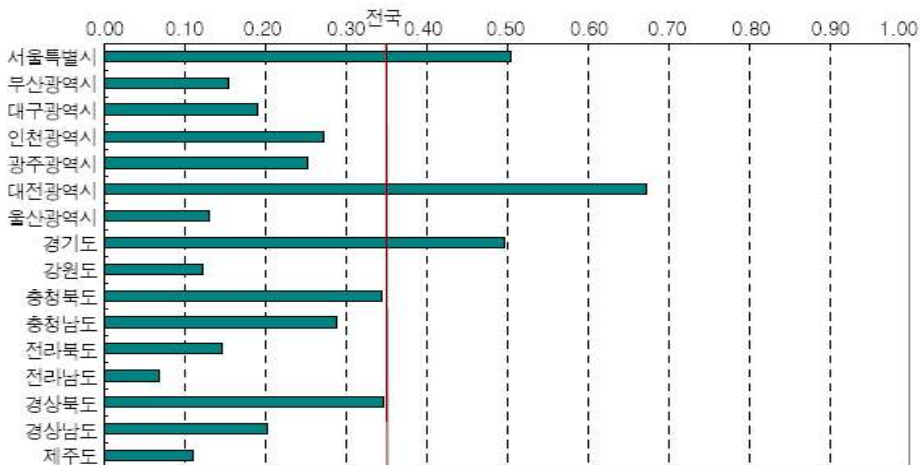
특히 창조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서 대전광역시의 전국대비 창조산업 사업체 수의 비율은 2.89%, 종사자수는 3.77%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내 창조산업 비율 중 월등한 대전의 자연과학연구개발업은 전국 사업체 수의 8.01%, 종사자 수는 20.0%를 점유하고 있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 대전의 창조산업 중 사업서비스 관련 산업은 5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제조업 관련 34.9%, 문화관련 10.6%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대전이 향후 타 시도와 구별되는 유형의 도시로 정착되거나 이미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라 할 수 있다.

2) 지역혁신여건 우수 도시

대전은 지역혁신여건이 우수한 수준에 이른 도시의 반열에 있다. 지역별 총합혁신지수는 대전이 가장 높고, 서울, 경기도가 각각 2위, 3위임. 이들 3개 시도와 나머지 13개 시도는 그 격차가 매우 크다.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총합혁신지수는 모두 전국평균에 미달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16개 시도의 지역혁신지수 비교(2010년)

*자료: 산업연구원(2006), 혁신활동의 지역간 비교분석, p.61.8)

8) 총합혁신지수는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값임. 각 평가지표는 인적자원, 지식 창출, 혁신창출, 지식재산권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별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음.

그렇지만 대전은 높은 혁신투입에 비해 낮은 혁신산출을 보이는 산업부문의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대전의 혁신투입지수는 0.8628로 전국 최고이며 다음으로 경기 0.4352, 서울0.3306, 충북 0.2578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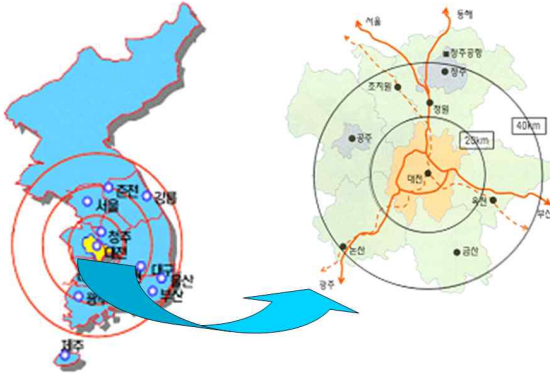
반면, 혁신산출지수와 지식재산권지수는 서울, 경기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혁신 활용지수 역시 경북, 충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전의 위상은 향후에 어떠한 곳에 집중해야 할 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3. 물리적, 자연적 환경 차원에서의 도시 개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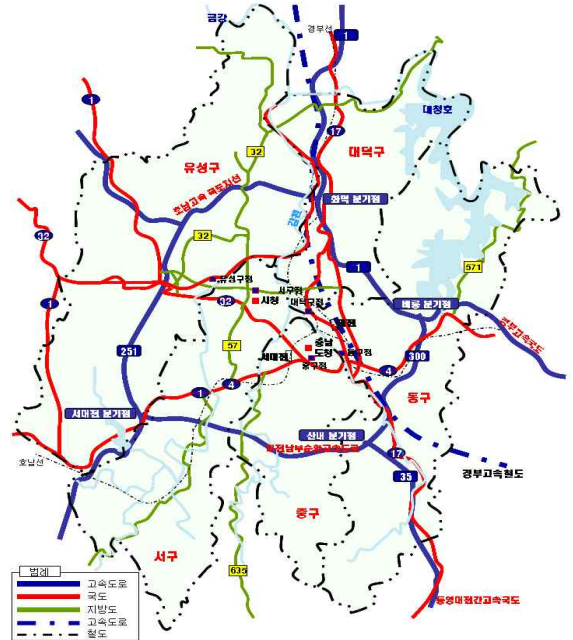
1) 교통결절점, 중심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전은 국내 교통·물류의 중심으로서 중부광역권의 거점도시로서의 특징이 뚜렷하다. 전국 2시간 생활권, 대전·충청권의 중심도시로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167.3km, 부산은 238.2km, 광주 169km로 삼각축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충남(공주/연기/논산/금산)과 충북(청원/보은/옥천)의 여러 시군과 접해 있다.

-
1. 인적자원: 총 종사자수 대비 기업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인력의 비중, 하이테크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2. 지식창출: GRDP 대비 공공 및 기업부문 R&D 지출액 비중, 총사업체 수에서 공공 및 기업부문 연구개발조직수
 3. 혁신활용: 총사업체 수에서 신규 등록 벤처기업 수, 하이테크 업종 부가가치의 점유율,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비중, 제조업 총 종사자 중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업종의 종사자수 비중
 4. 지식재산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의장권 출원건수



<그림 10> 대전광역시 위치도



<그림 11> 대전광역시 교통체계도

이러한 지리적 중심부로서의 특징으로 인하여 대전은 타도시에 비하여 우수한 기간교통망 및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보유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고속국도 5개, 일반국도 4개, 일반철도 3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대전의 광역 교통망은 1,693km에 이른다. 대전광역시 지하철 1호선 22.6km,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자전거 타기 중점육성도시 등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2) 전형적인 분지 형태의 재해 없는 도시

대전은 전형적인 분지 형태의 지형과 내륙성 기후지대에 속하여, 큰 재해 없는 안정적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전의 외곽은 식장산, 구봉산, 보문산, 계족산, 금병산 등의 산악으로 둘러쳐져 있고, 시 내부는 평탄한 분지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 외곽 산악지역의 표고가 300~600m로 중심시가지에 위치한 낮은 봉우리들

은 여전히 미개발지로 남겨져 있어, 환경에 있어서도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후 또한 한반도의 중부 내륙에 위치하여 내륙성 기후에 영향을 받고 있다. 1990년 이후 최고기온은 36.7℃, 최저기온은 -16.2℃를 기록하여 한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1,499.05mm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나, 재해 수준의 강수량이나 기후변화는 없는 비교적 안전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3) 4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도시

대전은 3대 하천 및 대청호 활용 잠재력이 큰 수변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시내를 흐르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과 그 지류들에 의하여 대전의 시가지는 분포하고 있으며 성장하여 온 특징을 갖고 있다.

도시공원과 녹지, 하천 등이 점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수변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보전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전시가 2007년 추진 한 3대 하천 생태복원,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 갑천 하상여과시설 설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중앙 데파트 철거 및 홍명상가 철거·복원, 목척교 주변 복원계획 등을 통하여 하천이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왔다.

반면, 환경의 보존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수변 공간 활용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를테면 공간활용관점에서 시민들의 친수공간 조성, 하천생태체험 등 경관 및 하천관리에 있어 시민 이용편의성 제고의 적극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4. 종합적 위상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도시보다도 인구 유입률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16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면서 대전은 교육·문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배후도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대전은 국내 및 동북아 R&D 거점도시로 발전하여 벤처 및 창조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과 우수한 대학들이 밀집되어 향후 우리나라 핵심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은 중부권의 주요 거점도시로서 충청권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도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광역권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은 또한 우리나라 첨단과학 및 R&D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도시적 위상을 갖고 있다. 1973년 이래 30년 이상 축적된 대덕연구단지의 첨단기술을 활용,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혁신클러스터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2005년 7월 28일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업그레이드, 2013년 현재 박사급 6,990명, 석사 9,896명으로 전체 인력의 84.4%가 고학력 연구기술 인력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생산액은 6조 7,719억 원으로 대전 GRDP의 34% 이상을 차지, 누적 특허출원건수는 4만 6,392건, 기술이전료 약 59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MB 정부는 대덕특구와 행정복합도시, 충북 오송·오창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화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광역시를 과학혁신의 메카로 성장 발전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 산업, 문화, 예술의 영역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지식자본과 과학기술이 창출되는 창조융합형 세계지식의 원천을 표방하고 있으며, 대전을 R&D 도시(과학비즈니스의 장), 인근 충북의 오창을 IT City(글로벌지식플랫폼)로, 오송을 Bio City(융복합 신산업 창출의 장), 세종을 융합도시(문화예술 창조 융합)로 연계발전케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대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은 결국 타도시보다 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구개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역혁신자원이 우수하고 정부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미래경쟁력 1위 도시(산업정책연구원,

2007), 정부 총 R&D투자비의 26.4%가 지원(2006년)되고 있으며, 외견상 가장 큰 특징은 현재 19개국, 46개 도시, 7개 특별회원이 가입한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WTA는 대전광역시가 주도적으로 결성한 세계 최초의 과학도시간 국제협력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UNESCO, IASP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 국제 공동연구, 정보네트워크 구축, 테크노마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절 국외 및 국내 도시의 정체성 확립 사례

이 절에서는 대전시와 유사한 여건에 처해 있던 국내외 도시의 정체성 확립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정체성은 시간의 흐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여건에 취해 있는지에 따라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해 간다. 지역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시의 발전 비전과 도시이미지를 시민의 삶 속에 투영해 가는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대전시의 지역정체성 확립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1. 국외 사례 도시 검토

국외 사례는 앞서 살펴 본 4가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7〉 국외 주요도시의 정체성 확립 사례

차원	역점 부문	사례 검토 내용	관련 사례도시
사람	인재의 양성	지역 내에서 육성한 인재가 중심이 되어 도시 정체성 확립	칼스루에, <u>글래스고</u> , <u>도르트문트</u>
	인재의 유입	외부에서 유입된 인재가 중심이 되어 도시 정체성 확립	두바이, <u>어바인</u>
	인재의 양성+유입	지역 내에서 육성한 인재와 외부에서 유입된 인재의 양 계층이 중심이 되어 정체성 확립	<u>밴쿠버</u> , <u>방갈로르</u> , <u>오스틴</u>
산업	산업을 문화와 연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	하마마츠
	문화를 산업과 연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정체성 확립	<u>볼로냐</u> , <u>산타페이</u> , <u>가나자와</u> , <u>로테르담</u>
	문화와 산업의 융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과 산업자원을 조화, 융합	<u>오사카</u>
공간	단일 시설	단일 시설을 개발하여 도시의 정체성 확립	<u>볼티모어</u> , <u>릴</u>
	시설의 분산	복수의 시설 및 거점을 분산 조성하여 도시의 정체성 발현	<u>요코하마</u>
	도시 통합	분산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 통합	<u>토론토</u>
제도	민간 주도	민간의 정체성 확립의 중심적 역할 담당	<u>노스 아담스</u>
	관 주도	관이 정체성 확립의 중심적 역할 담당	<u>꾸리찌바</u> , <u>싱가폴</u>
	민관 협력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정체성 확립 주도	<u>리치먼드</u> , <u>프라이부르크</u>

여기에서는 모두를 다루지 않고 각각의 부문에서 대표적인 도시이자 대전의 정체성 확립에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사례만을 선택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1) 인재의 양성을 통한 정체성 확립 모델 - 글래스고, 도르트문트

인재 양성을 통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한 대표적인 모델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와 독일의 도르트문트 사례를 들 수 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는 산업혁명의 발전지역일 뿐만 아니라 오래된 학원도시로도 명성이 높은 도시 였다. 산업혁명의 쇠락 이후 글래스고의 선택은 지식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우선은 항만을 스코틀랜드 개발청 글래스고 지부가 매입하여 '디지털 미디어 캠퍼스'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래의 발전이 IT와 BT의 범주에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공동화된 도시에 각종 대학과 연구개발센터를 모으기로 계획하였다.

인적자원을 이용한 산학 합작투자가 글래스고 산업단지의 장점으로 자리잡은 것은 이 이후의 일이었다. 이렇듯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과 공동연구, 정보 공유와 자유경쟁이 활발한 것이 글래스고 첨단미디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자, 글래스고를 상징하는 도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독일 도르트문트를 들 수 있다. 도르트문트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개편을 유도하고 새로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자체적으로 공급하였으며, 과학 중심의 교육으로 도르트문트의 성공적인 변신에 기여하게 되었다. 도르트문트 대학과의 산학 연계를 위해 대학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건립하여 대학과 연구소와 산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것이 도르트문트를 상징하는

2) 문화산업을 통한 정체성 확립형 모델-이탈리아 볼로냐

20세기말에 들어서면서 최악의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파산의 위기까지 몰린 이탈리아

리아에서 반도의 중부에 위치한 볼로냐(Bologna)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지구가 이탈리아의 경제적 재건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

국가파산위기에 놓인 이탈리아 정부는 볼로냐를 모델로 하는 개혁을 추진하여 정부주도의 대형 공공사업을 지양하고 산업정책에 있어 분권화를 추진함으로써 재정재건에 성공하게 된다. 분권화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산업에 있어 기업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볼로냐의 사례에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내용은 바로 볼로냐 정체성 확립 전략을 도시재생 계획에 철저히 응용하였다는 점이다. 볼로냐시는 역사적 건축물이 몰려있는 도심의 공동화로 '역사적 시가지 보존과 재생'을 계획하였으며, 1985년부터 도시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 활용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도심 건축물의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되 내부는 첨단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창의적 방식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예술 공방형 기업들은 도심재생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른바 소규모 공방형 중소기업을 거미줄처럼 엮는 '문화 정체성 확립' 전략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2000년 이후 볼로냐는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를 테마로 선정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작은 공방형 기업들은 CNA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동기획,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브랜드를 갖추고 패키지산업을 넘어선 멀티산업지구를 지향하는 등 도시발전 전략에 이러한 도시 정체성을 응용하고 있는 중이다.

볼로냐의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첫째, 예술가와 과학자의 자유로운 소통과 융합, 노동자 및 기능인의 유연한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자기혁신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대학, 전문학교, 연구기관 및 극장, 도서관 등의 하드웨어적 과학·문화시설 정비를 통해 도시의 창의적 정체성을 지탱하였으며, 신규창업이 용이하며, 창조적인 일을 지원하는 각종 협동조합 및 협회 등의 비영리부문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림 12> 볼로냐 전경



<그림 11> 볼로냐 중앙도서관

셋째, 도시를 계획적으로 미래지향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감성과 어울림을 향상시키는 경관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행정에 대한 주민참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틀을 조성하였다.

종합하면, 생산부문과의 협력과 유연한 생산시스템의 융합, 과학 및 문화부문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제공 및 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보장하는 물리적 여건 조성, 창조적 도시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동일성과 타도시와 차별되는 개별성을 동시에 확립할 수 있었다.

3) 내발적 발전을 통한 문화중심의 정체성 확립 모델-일본 가나자와

일본의 가나자와시는 산업적 특징을 통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내발적 발전을 위한 도시정체성을 확립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가나자와시의 도시경제 특징을 살펴보면, 본사 및 연구개발기능을 갖춘 주력공장을 지역에 두고, 장인 기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면서 상호 경쟁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다. 독자적인 도시경제구조가 지역 내에서 서로 연관성을 이루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내에서 산출된 소득이 내부로 순환되는 내

발적 발전을 통해 중견기업들의 기업 혁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역 내로 순환된 소득이 문화적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 민간 디자인 연구소, 미술관, 오케스트라 등의 운영을 지원하며 도시의 문화자본을 고도화하게 되었다.

문화적 생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폐업한 가나자와방직 공장터를 사들여 연극 및 음악연습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가나자와 시민예술문화촌을 들 수 있으며, 실내악 중심의 프로 오케스트라인 오케스트라 앙상블 가나자와, 전통공예에 대한 복원 및 보존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가나자와시는 일본 내에서 가장 먼저 문화재 보존조례를 제정한 곳으로 유명하다.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근대화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전통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아 일찍부터 이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지구 보존지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게이샤의 거리’는 일본 전통차와 지역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하였으며, 참여형 문화시설인 ‘시민예술촌’ 및 ‘플래트 버스’를 운영하여 상점가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방직공장이 폐쇄된 부지를 사들여 예술촌으로 조성하였으며, ‘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각종 예술교육, 수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다.

예술촌 내 대학을 두어 생활재 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소프트웨어 디자인산업 등 지역내발형 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지역 내로 순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공예를 도시의 경제기반으로 삼음으로써 옛것을 되살릴 뿐 아니라 지역이 가진 제조, 유통, 서비스 등 전통산업을 보존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경제적 효과를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였다.



<그림 13> 가나자와 시민문화예술촌



<그림 15> 가나자와 전통차 거리, 염색옷감

4) 도시 경관을 통한 정체성 제고 모델-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은 싱가포르 주요 국가 부처로서 싱가포르가 지속가능하며 노동, 휴양,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및 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 볼 수 있다. 도시 재개발국은 향후 40~50년간의 종합 발전을 위한 장기적 플랜을 세우면서 (The Concept Plan) 주요 부문으로는 주택문제, 여가문제, 산업, 그리고 정체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플랜은 660km²의 좁은 국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

장과 인구 증가에 맞춰 주거, 여가, 산업 및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플랜은 특히 향후 5천 5백만 인구로 성장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플랜에서 앞서 언급한 4대 부분의 비전을 통한 주요 부분은 다음 7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① 친근한 장소에서의 새로운 주거 형태 ② 고층 위주의 도시 생활 중심 : A room with a view(전망 좋은 방) ③ 여가를 위한 다양화된 선택의 제공 ④ 비즈니스를 위한 유연성의 증대 ⑤ 국제적 비즈니스 중심지 추구 ⑥ 활성화된 철도 네트워크 구축 ⑦ 정체성 확립에 집중

또한 이러한 과제의 제시를 통하여 역동적인 도시, 차별된 도시, 쾌적한 도시 (A city that's Dynamic, A city that's Distinctive, A city that's Delightful)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에 따라 정체성 구현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은 기본 구상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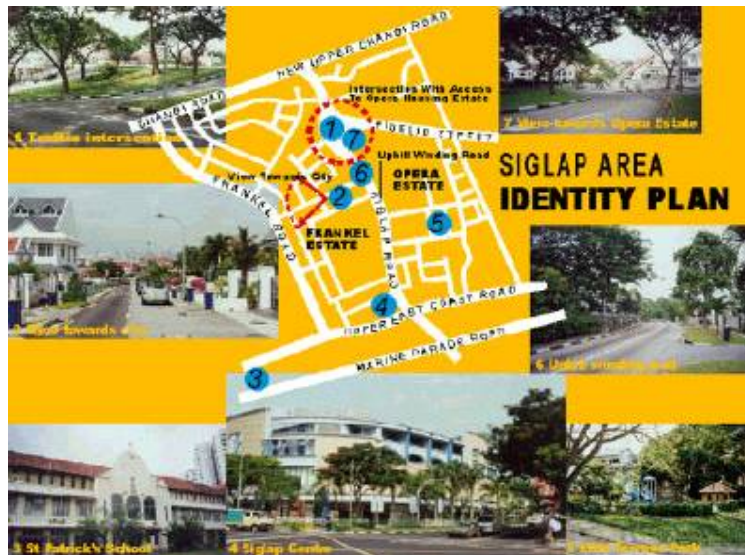
첫째, 정체성에의 초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여러 기본구상과 현재 추진중인 기본구상의 차이는 바로 정체성 구현이 첨가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싱가포르가 물리적 경관에서 정체성을 구현하여 국가적 동질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단위에서 독특한 건물, 근린 시설(놀이터, 학교, 시장 등)은 이러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기념행사 및 축제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일원화된 모델을 통하여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다양한 모자이크의 조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문화유산을 통한 정체성 확립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5,600개 이상의 건물들은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는 더욱 많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건물군이 보존되고 또한 현재 지정된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적 동질감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도록 한다.

세 번째의 특징은 신도시에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환경은 신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미래에 지역적 동질감을 심을 수 있는 주요 랜드마크, 자연 경관을 신개발의 중요 요소로서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에 따라 차별된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제도적으로 제시되어 다양성 안에서의 정체성이 구현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신도시들은 현재보다 보다 작은 규모로 건설되어 주민 간에 더욱 큰 주민의식과 지역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 요소들 역시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보존 및 활용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심팡(Simpang) 같은 신도시의 만그로브 수목의 늪지대, 해변 및 하안 지구의 보존을 존중하여 도시 및 교통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네 번째 특징은 도시 중심과 특수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특히 주민들이 집중되는 도심 지역에는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장소에서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친근한 지역 및 요소, 자연 경관, 문화유산 등이 표기된 정체성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림 15> 싱가포르의 신도시 근린공간의 정체성 지도

2. 국내 사례 도시 검토

1) 국가주도형 정체성 확립 모델-광주광역시

광주시는 2002년 이후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문화도시’라 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으로 명명된 이 국가사업은 초기 구상단계 예산이 2조 원이라는 점에서 보듯이, 대규모 국가사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 문화도시 조성을 자극하고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사업의 성격에서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는 공간적 지향성을 갖고 있어 ‘지역, 국가, 글로벌의 차원을 횡단’ (전효관, 2006)하는 복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문화도시 의미와 위상의 측면에서 광주, 한국, 아시아 등 지구 문화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화 시대 지역과 현대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 다양한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도시의 자산, 이념적 지향성, 추진 주체, 제도적 조직 등 다양한 수준에서 주체들 사이의 갈등 및 경합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문화도시의 기획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담론이 형성되고, 문화관련 세력이 등장했다. 또한 이 세력들 사이의 상호 경합, 연대, 배제관계가 표출되고 있는 도시이다. 따라서 광주 문화도시 조성은 특정한 역사적·지리적 조건 속에서 사회적 제 집단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정치적 동역학을 거쳐 형성되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 과정을 다양한 변수를 통해 그려볼 수 있게 해 준다.

2) 전통문화 유형의 지속성 확립 모델-전주시

전주시가 표방하는 문화도시의 목표는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이다.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근대성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현재의 도시에 전근대적인 ‘전통’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주는 문화도시 재구성을 위한 자원을 ‘전통’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 선별과 창출, 전통의 배제와 변형, 전통의 보존과 현대화 등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근대성이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오늘날의 시공간적 상황에서 전통이 갖는 문화적 기능과

효과를 문화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전주는 지역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예향’의 도시 이미지를 놓고 광주와 일정한 경험관계에 있고, 지역의 경제발전 측면에서 호남의 낙후성을 공통적으로 경험해온 역사를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을 문화도시 조성 국면에서 어떻게 전략화하고 의미화 하는가를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전주의 사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에 대한 구상이 지방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내부에서의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민간과 지방정부 사이의 협의체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문화도시 조성의 다양한 양상을 점검하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이후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와 지역 내부에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전략의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차원의 문화도시 재구성과 국가적 차원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상호 대비시켜 공간 구성의 양상, 지역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문화도시 의미화 방식, 문화도시의 이념적 지향성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추진 주체의 측면에서 시민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으로 변화·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 시기 시민주체의 문화도시 재구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와 시민사회 주체들의 활동성과 및 한계를 드러내는 데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공간 재현물은 ‘한옥마을’이다. 한옥마을은 전통에 대한 상징화와 공간 구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의미화되고, 한옥마을을 실질적인 삶의 공간으로 하는 주민들과 이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곧 문화도시의 공간적 재현이 현실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가를 밝혀준다.

3) 새로운 정체성 형성 모델 - 부천시

부천시는 1960년대 이후 수도권 주변의 공업도시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발전의

기초를 형성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문화도시만들기’ 라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현재에는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변신한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특히 부천시는 국가나 민간단체가 주도한 문화도시 전략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체장이 문화도시를 선점해 이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 관광, 역사, 자연 등을 조합해 자신들의 지역을 ‘문화도시’ 이미지로 재구성해 가는 반면, 부천시는 1998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을 캐치프레이즈로 설정하고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음악, 만화, 영화, 박물관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핵심적인 문화사업을 기획하여 문화산업도시를 지향해 나갔다.

하지만 부천시는 주민소득과 삶의 질 면에서 전국 74개 기초시(市) 가운데 최하 위권인 72위에 그쳤다. 또한 전반적인 도시경쟁력도 41위에 그쳐(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4) ‘문화도시’ 이미지가 실질적인 삶의 문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위와 같은 특징은 문화도시에서 문화는 단지 ‘문화공간’ 의 외형적인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문화적 고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천의 사례는 문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의 재창출’ 노력이 주민들의 문화적 삶 전반과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문화도시 구성 과정에서 주로 동원 및 활용하는 자원들이 지역 안에 존재하는 역사, 전통, 인물, 자연환경 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천의 경우는 이러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적 자원이 근본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도시가 문화도시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성을 반영하지 않은 문화도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의 문제로, 결국 현 시기 문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의 전반적인 특징을 진단할 수 있게 한다.

4) 국내 사례도시의 정체성 확립 전략 비교

아래 표는 사례지역인 광주, 전주, 부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광주, 전주, 부천의 정체성 확립 전략 비교

인구/면적	광주	전주	부천
	141만명 / 501km ²	62만명/206km ²	86만명/53km ²
사업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 첨단산업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
추진 유형	중앙중심형	지방중심중앙지원형	지방중심형
지역정체성	예향, 민주도시, 문화도시	예향, 전통문화도시	공업도시, 문화도시
주요 정체성 자원	광주비엔날레, 5·18민중항쟁, 남도화맥, 지역축제	한옥마을, 한지, 소리, 음식, 서화, 한방, 지역축제	5대 문화사업, 각종 박물관, 지역축제
주요 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옥마을	박물관, 영상문화산업단지, 만화의 거리
추진 조직	문화중심도시 조성추진 기획단,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광주시무노하수도추진지원단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천시 정책개발연구단, 부천시청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
제도적 장치	특별법, 조례	특별법 추진, 조례	조례

사례 지역들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의 구체적인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 세 지역을 정책 추진의 주도력이라는 관점에서 구분해 보면, ‘광주=중앙중심형, 전주=지방중심중앙지원형, 부천=지방중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여하는 주요 행위 주체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로 설정했다. 이들 세 주체들은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자신들의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문화도시라는 구체적 공간에 실현하려는 적극적 실천활동을

전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합, 연대, 배제 등의 다양한 사회관계가 형성된다. 세 가지의 유형으로 진행되는 문화도시 구성을 사회적 생산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각 수준별 차이와 특징을 드러내 문화도시의 구성을 둘러싼 전체적인 내부 동학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

지역정체성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제4장 지역정체성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본 장에서는 현재 대전지역정체성의 실체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의식과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논의되는 조사내용은 대전에 대한 이미지, 대전에 대한 관심, 자부심, 대전사람들의 기질적 특성, 대전의 상징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 조사 결과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한다.

제1절 조사개요

이번 조사는 대전시민이 대전의 지역정체성의 실체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민을 비례층화표집방법으로 611명을 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주로 대전에 대한 이미지, 대전에 대한 관심, 자부심, 대전사람들의 기질적 특성, 대전의 대표 인물, 음식, 상징적 장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제2절 조사결과

1. 조사자 특성

〈표 9〉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10	50.7
	여자	301	49.3
연령	20-29세	88	14.4
	30-39세	128	20.9
	40-49세	188	30.8
	50-59세	122	20.0
	60세 이상	85	13.9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7	1.1
	중학교 졸업	42	6.9
	고등학교 졸업	246	40.3
	전문대 졸업	104	17.0
	4년제 대학 졸업	189	30.9
	대학원 이상	23	3.8
직업	전문직	47	7.7
	경영관리직	15	2.5
	사무/기술직	147	24.1
	판매/기술직	45	7.4
	자영업	138	22.6
	생산/노무직	20	3.3
	농업/어업	4	0.7
	전업주부	120	19.6
	학생	40	6.5
	기타	25	4.1
	무직	10	1.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	0.5
	100-200만원 미만	43	7.0
	200-300만원 미만	132	21.6
	300-400만원 미만	189	30.9
	400-500만원 미만	142	23.2
	500-600만원 미만	71	11.6
	600-700만원 미만	17	2.8
	700만원 이상	14	2.3

2. 대전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 이미지

1) 현재 모습에 대한 평가

현재 대전광역시가지니고 있는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의미분화척도에 의하여 5점 만점으로 알아 본 결과 대전광역시 시민들은 대전의 현재 모습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3.60으로 활기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평균 3.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살기좋다’, ‘깨끗하다’, ‘편리하다’, ‘안전하다’의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3.5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비하여 ‘활기차다’라는 응답은 2.86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도시이미지에 투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대전이 최근 행복지수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비교적 타시도에 비하여 높다라는 평가는 주로 안정적이고, 편리하며, 깨끗한 도시이미지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10> 대전의 현재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대전광역시의 현재 모습	평균	표준편차
침체되어있다 ↔ 활기차다	2.86	1.18
더럽다 ↔ 깨끗하다	3.74	0.93
불편하다 ↔ 편리하다	3.72	1.01
살기 나쁘다 ↔ 살기좋다	3.96	0.92
안전하지 않다 ↔ 안전하다	3.70	0.97
전체	3.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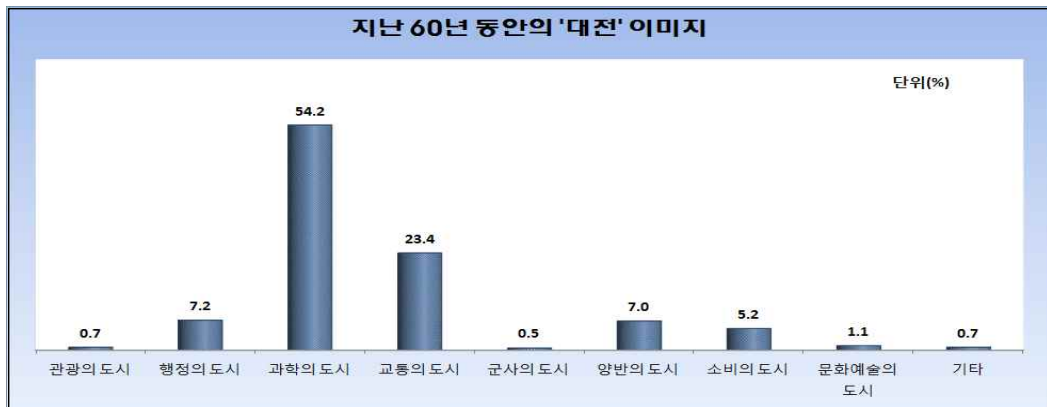


2) 대전에 대한 이미지

대전 시민들에게 1949년 대전시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전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의 결과 ‘과학의 도시’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타시도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교통, 행정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응답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의 특수한 환경과 관련하여 양반의 도시라는 응답 비중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과학의 도시, 행정의 도시, 교통의 도시, 양반의 도시 등 대전의 특수한 환경과 관련한 이미지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에 대전의 특수한 사정을 염두에 둔 특화될 수 있는 정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11〉 대전에 대한 이미지

‘대전’ 이미지	빈도	비율(%)	순위
관광의 도시	4	0.7	7
행정의 도시	44	7.2	3
과학의 도시	331	54.2	1
교통의 도시	143	23.4	2
군사의 도시	3	0.5	9
양반의 도시	43	7.0	4
소비의 도시	32	5.2	5
문화예술의 도시	7	1.1	6
기타	4	0.7	7
전체	6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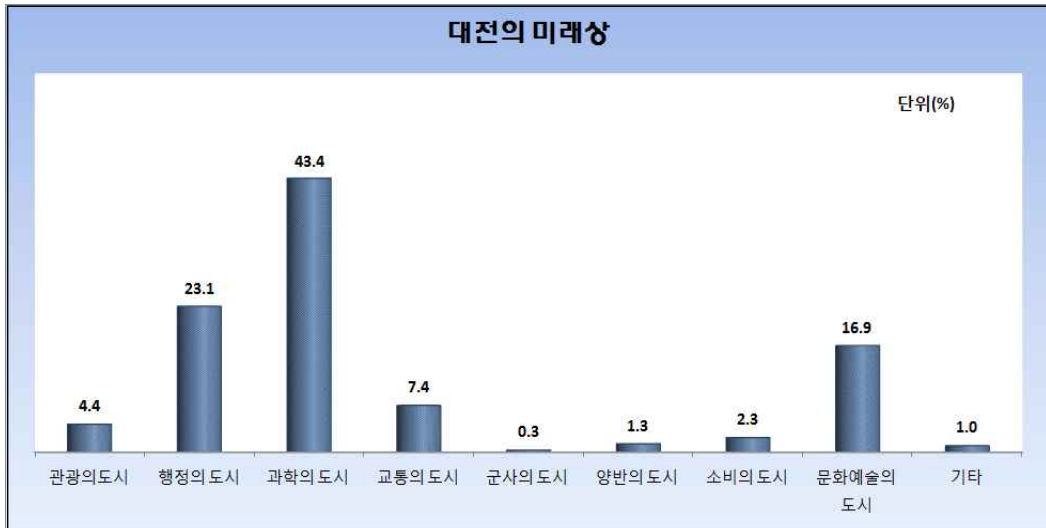


3) 대전의 미래상

대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도 ‘과학의 도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의 도시’ 또한 23.1%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의 도시’가 16.9%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 시민이 생각하는 대전의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으로 ‘과학의 도시’와 ‘행정의 도시’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꼽고 있으며, 이것에 비하면 적은 비중이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이 대전의 미래 모습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시민이 바라는 대전의 미래상

대전의 미래상	빈도	비율(%)	순위
관광의도시	27	4.4	5
행정의 도시	141	23.1	2
과학의 도시	265	43.4	1
교통의 도시	45	7.4	4
군사의 도시	2	0.3	9
양반의 도시	8	1.3	7
소비의 도시	14	2.3	6
문화예술의 도시	103	16.9	3
기타	6	1.0	8
전체	611	100.0	



4) 대전의 인적구성에 대한 인식

대전이 과학도시, 행정도시로서의 미래상을 추구하는 근거로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 또한 이러한 점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타지역민에 비하여 고학력자가 많은 도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응답자 중 71.3%가 동의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 대전은 고학력자의 구성이 타시도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도시로 미래도시로서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량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3〉 대전시에 고학력자가 많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고학력자가 많은 도시이미지에 대한 동의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	1.1
그렇지 않다	168	27.5
그렇다	398	65.1
확실히 그렇다	38	6.2
전체	6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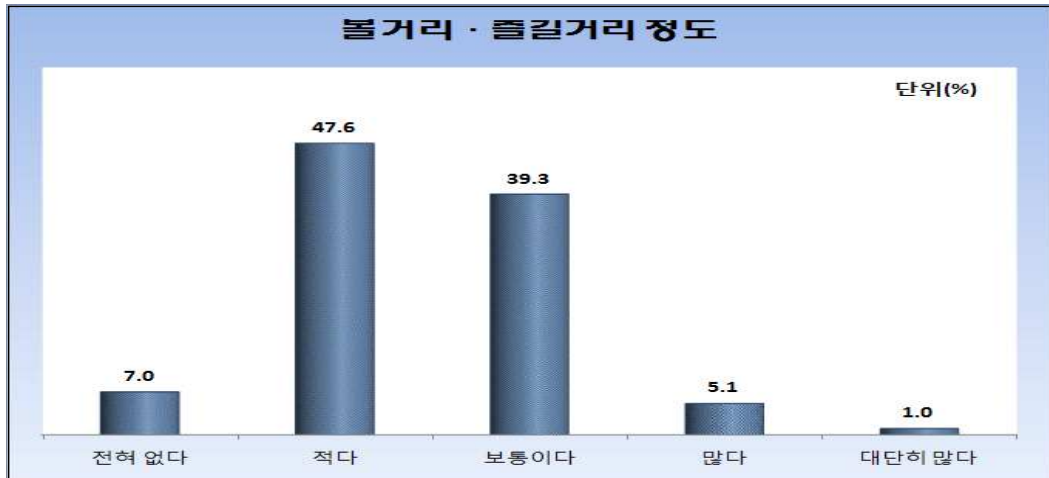


5) 대전의 개별성-볼거리·즐길거리에 대한 판단

이에 비하여 대전시의 이제까지의 모습과 미래 모습에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에 대한 회상과 바람의 간극은 현재 볼거리·즐길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대전 지역에 볼거리·즐길거리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응답결과 전혀 없거나 적다라는 응답이 54.6%로 나타났다.

〈표 14〉 대전의 볼거리·즐길거리 분포 정도

볼거리·즐길거리 정도	빈도	비율(%)
전혀 없다	43	7.0
적다	291	47.6
보통이다	240	39.3
많다	31	5.1
대단히 많다	6	1.0
전체	611	100.0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관광도시,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볼거리·즐길거리가 있다’라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볼거리·즐길거리를 복수 추천하도록 질문한 결과, 대전동물원, 엑스포과학공원, 뿌리공원, 대청댐, 보문산의 순으로 추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응답결과 나타난 취향의 특징은 특정 장소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축제와 같은 이벤트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대전시의 볼거리·즐길거리 다중응답 결과

대전시의 볼거리·즐길거리	빈도	비율(%)
대전동물원	128	17.7
엑스포과학공원	89	12.3
뿌리공원	64	8.8
대청댐	53	7.3
보문산	47	6.5
계룡산	40	5.5
계족산	32	4.4
동학사	27	3.7
벚꽃축제	23	3.2
유성온천	23	3.2
식장산	21	2.9
으능정이거리	21	2.9
국립중앙과학관	20	2.8
갑천축제	14	1.9
장태산	14	1.9
한밭수목원	10	1.4
꿈돌이랜드	9	1.2
동춘당	8	1.1
대전8경	7	1.0
시민천문대	6	0.8
예술의전당	6	0.8
유성장터	5	0.7
대덕연구단지	4	0.6
대전싸이언스축제	4	0.6
만인산	4	0.6
구룡산	3	0.4
사정공원	3	0.4
세천유원지	3	0.4
시립미술관	3	0.4
유성눈꽃축제	3	0.4
카이스트	3	0.4
화폐박물관	3	0.4
갑사	2	0.3
기타	23	3.8
전체	725	100

2. 대전에 대한 관심, 자부심

1) 지역관심도 및 정주의식

대전시민의 대전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주인의식’, ‘애향심’,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대전 거주 희망’ 등의 질문을 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의 평가 척도 기준으로 3.41로 나타났다. 대체로 대전시민들은 대전 시민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애향심이 있다’는 평균 점수가 3.57, ‘주인의식이 있다’는 3.51로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나타내는 평균 점수가 모두 3.5를 넘었다. 다만, 지역내 주민간 협력을 나타내는 ‘유대감이 강하다’는 평균점수가 3.07로 나타나 다른 정체성 항목의 응답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16> 대전 시민의 지역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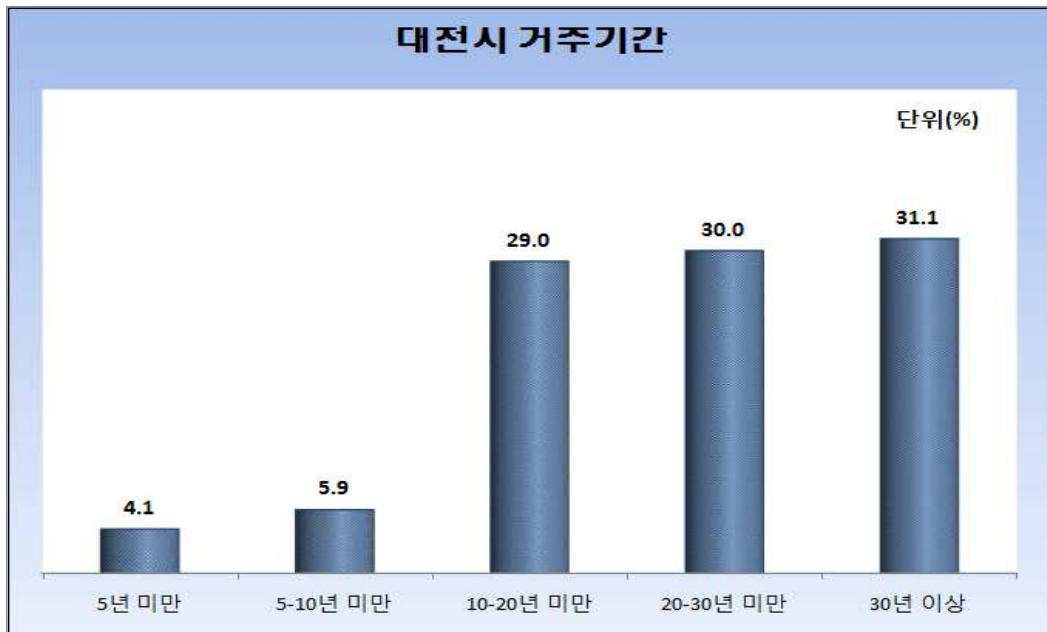
대전 시민의 정체성	평균	표준편차
대전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3.45	0.94
주인의식이 있다	3.51	0.95
애향심이 있다	3.57	0.96
유대감이 강하다고 느낀다	3.07	0.94
지역문제에 관심이 있다	3.42	1.02
자녀들이 대전에 살기원함	3.46	1.19
전체	3.41	-



대전시민의 정주의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정주기간을 물어 본 결과, 30년 이상이 31.1%, 20-30년 미만이 30.0% 등 응답자의 90%가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대전시 거주기간

정주기간	빈도	비율(%)
5년 미만	25	4.1
5-10년 미만	36	5.9
10-20년 미만	177	29.0
20-30년 미만	183	30.0
30년 이상	190	31.1
전체	6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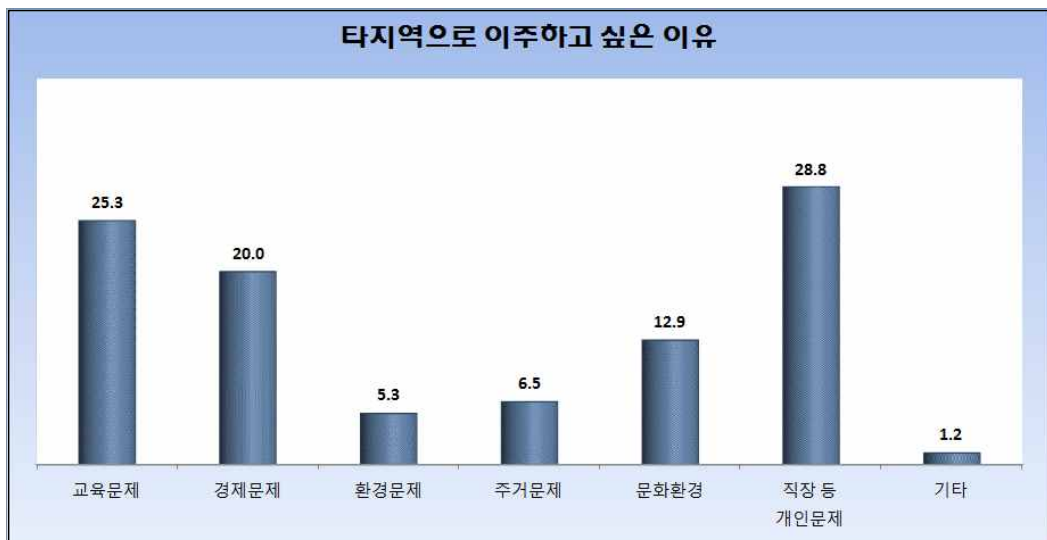


응답한 시민들 중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사를 표한 응답자는 28%로 비교적 현 대전 거주지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17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직장 등 개인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는 교육문제, 경제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주거문제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제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

타지역 이주 이유	빈도	비율(%)
교육문제	43	25.3
경제문제	34	20.0
환경문제	9	5.3
주거문제	11	6.5
문화환경	22	12.9
직장 등 개인문제	49	28.8
기타	2	1.2
전체	1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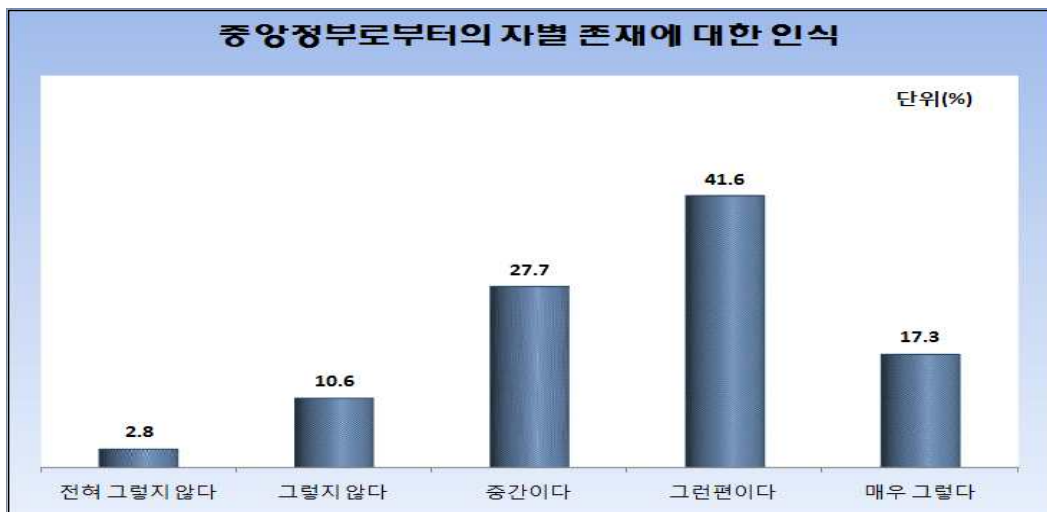


2) 중앙정부로부터의 차별성 인식

지역민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할 수도 있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지난 60년 동안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아왔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58.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13.4%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지역민의 정서상 지역차별에 대한 지역민의 공통적인 인식과 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9〉 중앙정부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차별 존재에 대한 인식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7	2.8
그렇지 않다	65	10.6
중간이다	169	27.7
그런편이다	254	41.6
매우 그렇다	106	17.3
전체	6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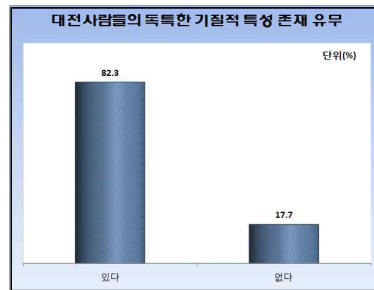
3. 대전사람들의 기질적 특성

1) 기질적 특성의 존재유무 및 특성

대전사람들이 타지역사람들에 비하여 독특한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전정체성을 가름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금번 조사에서 시민들에게 ‘대전사람들의 독특한 기질적 특성 존재 유무’ 를 물어 본 결과 무려 82.3%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실체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계 없이, 대전시민들은 무언가 대전시민 만의 독특한 기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다.

〈표 19〉 대전사람들의 독특한 기질적 특성 존재 유무

대전사람들의 독특한 기질적 특성 존재 유무	빈도	비율(%)
있다	503	82.3
없다	108	17.7
전체	611	100.0



그렇다면, 대전사람의 기질적 특성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복수응답을 전제로 물어본 결과,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대전사람은 느긋하며, 온순하고, 뜨뜨미지근한 면이 있으며, 속을 알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고, 심성은 소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하면, 심성은 온순하고 소박하지만,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는 다소 우유부단하고, 선명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대전사람들의 기질적 특성(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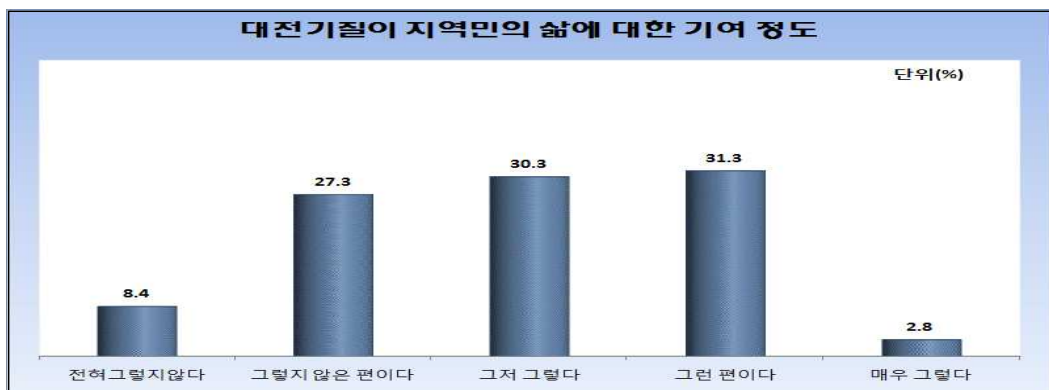
기질적 특성	빈도	해당 비율(%)	순위
느긋하다	277	45.3	1
소박하다	167	27.3	5
온순하다	253	41.4	2
둔하다	43	7.0	7
약하다	45	7.4	6

단순무식하다	13	2.1	12
상냥하다	42	6.9	8
뜨뜨미지근하다	221	36.2	3
속을 알 수 없다	168	27.5	4
강건하다	11	1.8	13
야무지다	19	3.1	11
약다	24	3.9	9
씩씩하다	4	0.7	15
간사하다	21	3.4	10
거칠다	0	0.0	16
과격하다	5	0.8	14
전체	725	100	

이러한 기질적 특징은 과연 대전시민의 삶에 있어 어떠한 기능을 한 것일까? 대전시민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표 21> 대전기질이 지역민의 삶에 대한 기여 정도

대전기질이 지역민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에 대한 동의정도	빈도	비율(%)
전혀그렇지않다	42	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7	27.3
그저 그렇다	152	30.3
그런 편이다	157	31.3
매우 그렇다	14	2.8
전체	502	100.0



2) 대전사람 기질- 친밀성

전술한 기질적 특성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질적 특성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친밀성, 삶의 자세에 있어 책임성,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활동성, 전통 및 권위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친밀성 정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따뜻하다는 점과 상대하기 편하다는 평가가 차갑다와 상대하기 어렵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22〉 대전시민의 기질적 특성(친밀성)

대전시민의 기질적특성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친밀성)	평균	표준 편차
상대하기 어렵다 ↔ 상대하기 편하다	3.61	1.04
차갑다 ↔ 따뜻하다	3.70	0.90
냉담하다 ↔ 다정하다	3.59	0.94
딱딱하다 ↔ 부드럽다	3.51	0.99
전체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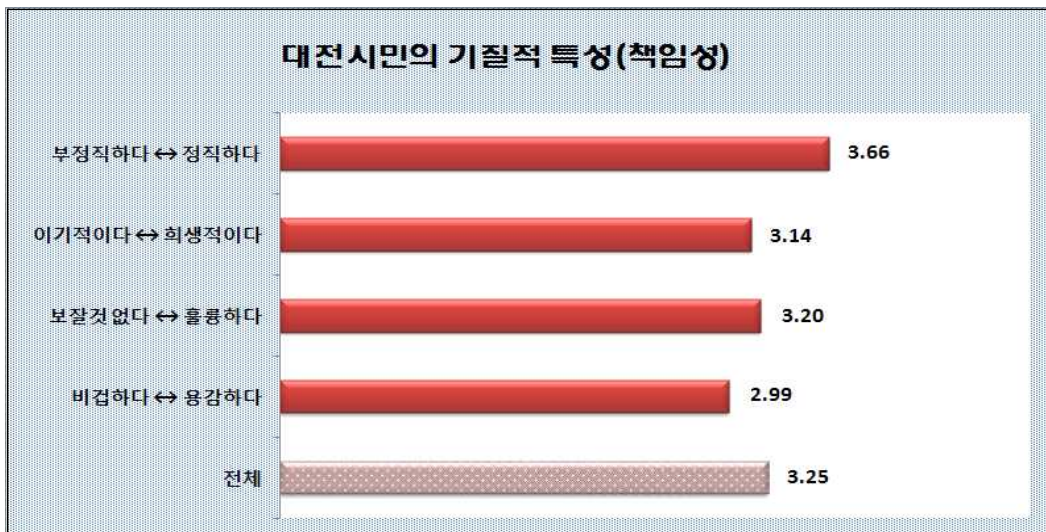


3) 대전사람 기질-책임성

다음으로 삶의 자세에 있어 책임성은 정직하다, 훌륭하다라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비하여 용감하지 않은 비겁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 23〉 대전시민의 기질적 특성(책임성)

대전시민의 기질적특성 (삶의 자세에 있어 책임성)	평균	표준 편차
부정직하다 ↔ 정직하다	3.66	0.98
이기적이다 ↔ 희생적이다	3.14	0.93
보잘것 없다 ↔ 훌륭하다	3.20	0.84
비겁하다 ↔ 용감하다	2.99	0.88
전체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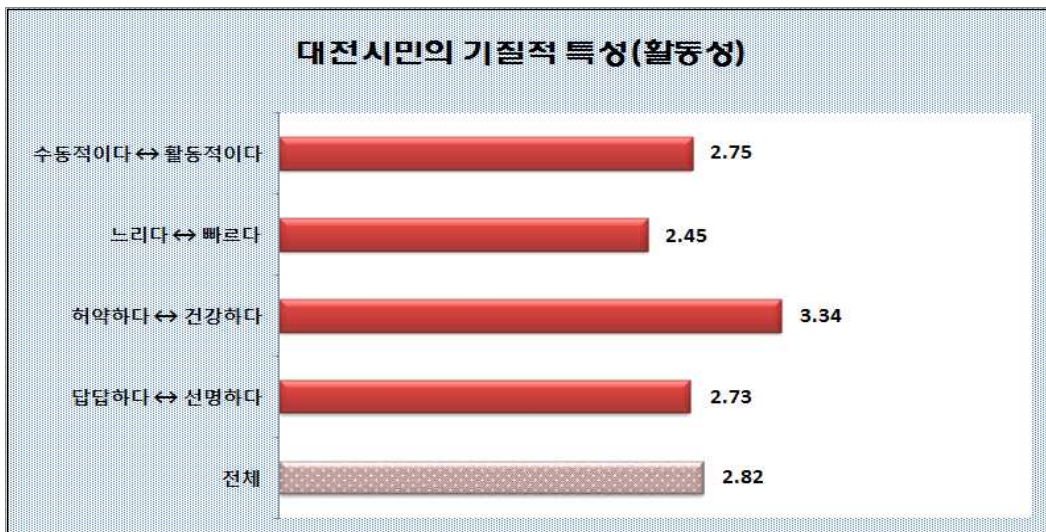


4) 대전사람 기질-활동성

일상생활에 있어 활동성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느리고, 답답하며, 선명하지 못한 경향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표 24〉 대전시민의 기질적 특성(활동성)

대전시민의 기질적특성 (일상생활에 있어 활동성)	평균	표준 편차
수동적이다 ↔ 활동적이다	2.75	1.05
느리다 ↔ 빠르다	2.45	1.04
허약하다 ↔ 건강하다	3.34	0.94
답답하다 ↔ 선명하다	2.73	1.07
전체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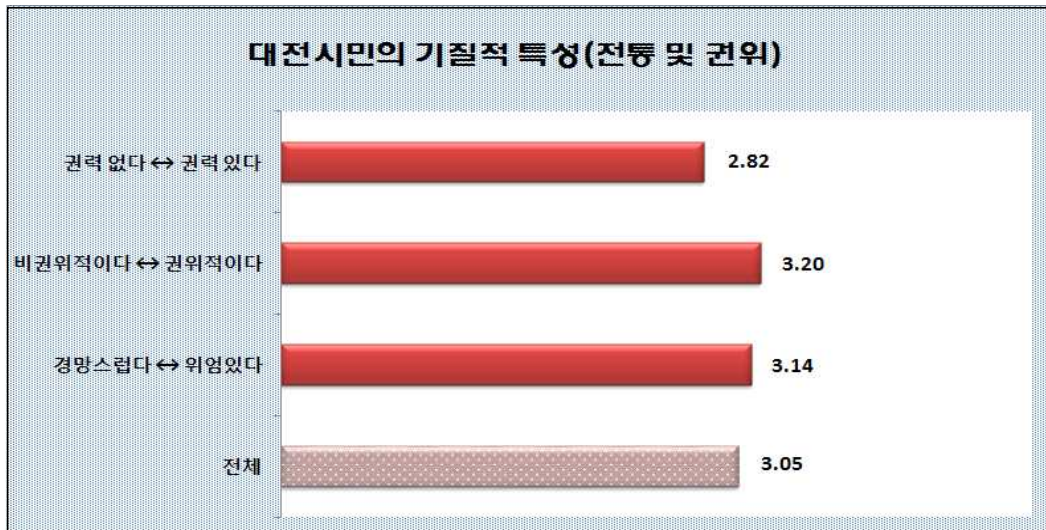


5) 대전사람 기질-권위와 권력

권위와 권력 측면에서 보면, 권위와 위엄은 있으나 권력은 없다는 다소 이율배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대전시민의 기질적 특성(전통 및 권위)

대전시민의 기질적특성 (전통 및 권위)	평균	표준 편차
권력 없다 ↔ 권력 있다	2.82	1.03
비권위적이다 ↔ 권위적이다	3.20	1.02
경망스럽다 ↔ 위엄있다	3.14	0.84
전체	3.05	



6) 정체성 형성의 계기

그렇다면, 대전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체감, 정서를 통하여 대전사람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계기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대전시민들에게 어느 때 “아, 나는 대전사람이구나” 라는 점을 자각하게 되는지를 물어 본 결과, 스포츠 경기 관람시, 타지역에 갔을 때, 사투리를 쓸 때, 선거 때, 대전관련 뉴스를 볼 때 등으로 나타났다.

<표 26> 대전시민이라고 느끼는 상황(다중응답)

대전시민이라고 느낄 때	빈도	비율(%)
스포츠경기 관람 시	138	29.3
타지역에 갔을 때	91	19.3
사투리를 쓸 때	35	7.4
선거 때	31	6.6
대전 관련 뉴스를 볼 때	30	6.4
우유부단 할 때	19	4.0
모임을 가질 때	17	3.6
느긋한 행동	15	3.2
정과 배려심을 느낄 때	10	2.1
편리한 교통망	9	1.9
대전공연 관람시	8	1.7
온순한 성격	7	1.5
대전역에 갔을 때	6	1.3
대전의 명소를 볼 때	6	1.3
반응이 없을 때	6	1.3
대전출신 유명인을 볼 때	5	1.1
지역차별 받을 때	5	1.1
대전 자랑 할 때	2	0.4
대전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때	2	0.4
자녀들이 오고 갈 때	2	0.4
충청도양반이라는 말을 들을 때	2	0.4
기타	25	5.3
전체	47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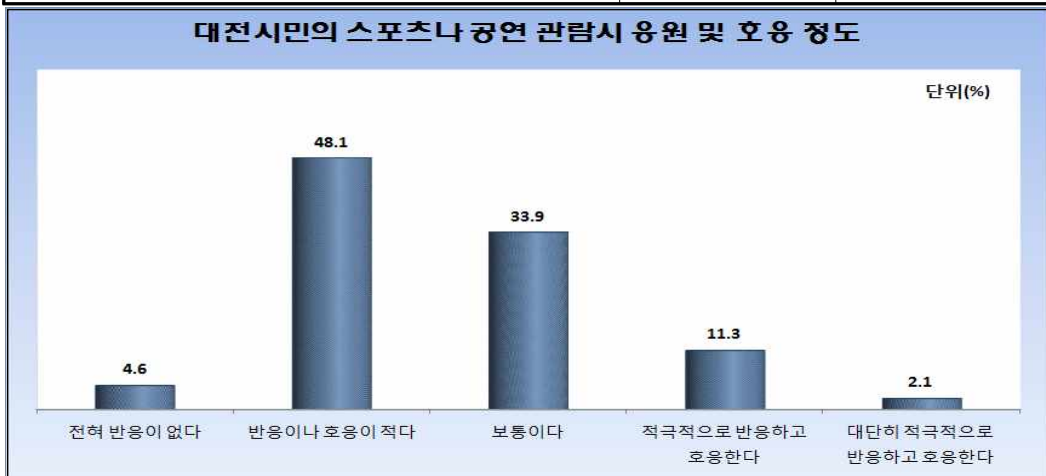
7) 스포츠 관람 정서

충청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벤트에 대한 응원이나 호응이 직설적이거나 정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말로 그러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전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이나 공연관람시 응원이나 호응이 타지역에 비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대전시민의 경우에 대해서는 호응이 적다라는 응답이 52.7%로, 일반적인 충청도인 정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는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응이 적다라는 응답이 30.5%로 적정하게 반응하거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호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응원이나 스포츠 관람시 충청도인의 정서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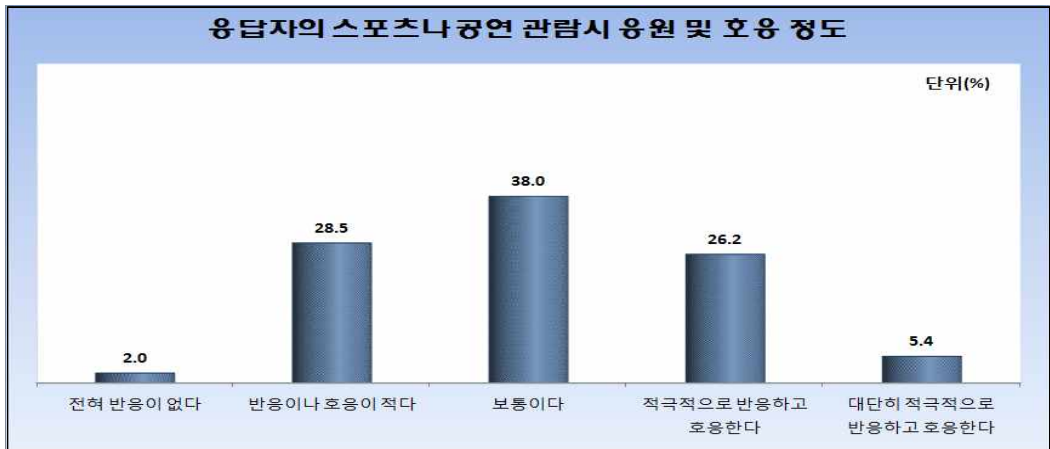
<표 27> 대전시민의 스포츠나 공연 관람시 응원 및 호응 정도

스포츠 관람이나 공연관람시 응원이나 호응의 정도(대전시민의 경우)	빈도	비율(%)
전혀 반응이 없다	28	4.6
반응이나 호응이 적다	294	48.1
보통이다	207	33.9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호응한다	69	11.3
대단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호응한다	13	2.1
전체	611	100.0



<표 28> 응답자의 스포츠나 공연 관람시 응원 및 호응 정도

스포츠 관람이나 공연관람시 응원이나 호응의 정도(본인의 경우)	빈도	비율(%)
전혀 반응이 없다	12	2.0
반응이나 호응이 적다	174	28.5
보통이다	232	38.0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호응한다	160	26.2
대단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호응한다	33	5.4
전체	6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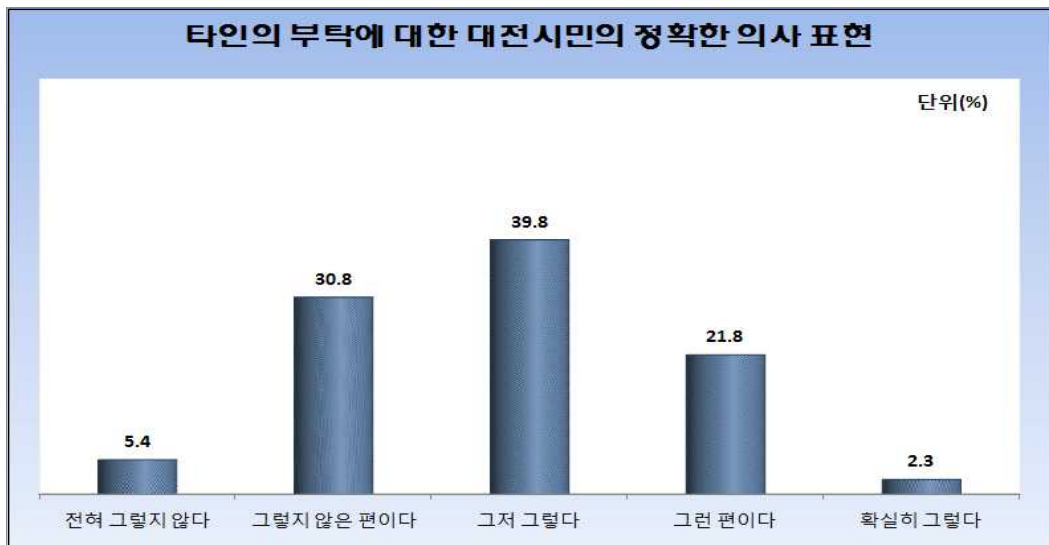


8) 의사 표현 기질

또 한 가지 충청도사람들에게 별칭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의사가 분명치 않다라는 것이다. 실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하여 ‘타인의 부탁을 받았을 때, 본인의 의사(예 혹은 아니오)를 정확히 표현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결과, 대전시민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확히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정확하게 의사를 표명한다는 의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언뜻 이러한 응답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의사가 분명치 않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9> 타인의 부탁에 대한 대전시민의 정확한 의사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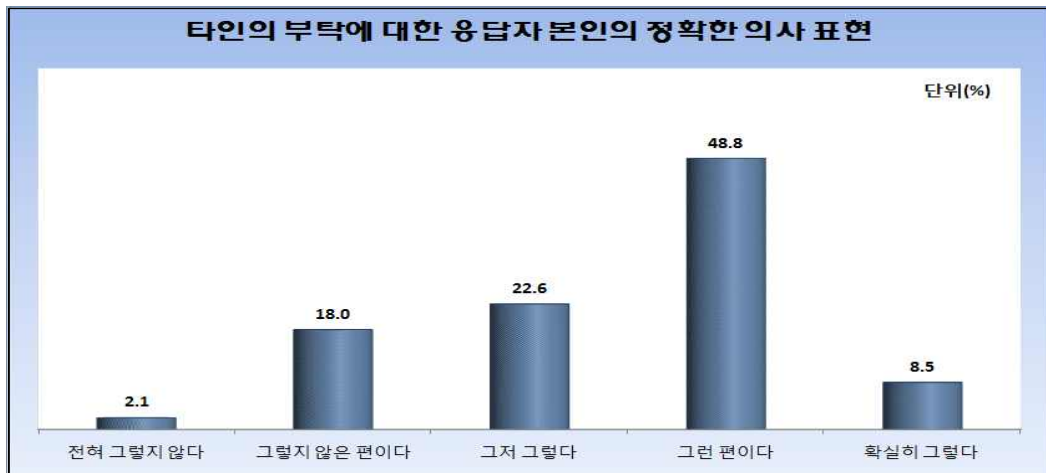
타인의 부탁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의사(예 or 아니오)표현 (대전시민의 경우)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3	5.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8	30.8
그저 그렇다	243	39.8
그런 편이다	133	21.8
확실히 그렇다	14	2.3
전체	611	100.0



하지만 본인의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 본 결과, 위의 가설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본인의 경우에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수용하거나 의사를 분명히 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의사가 불분명하기 보다는 분명한 쪽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 역시, 대전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가 잘못 형성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 30> 타인의 부탁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의사 표현

타인의 부탁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의사(예 or 아니오)표현 (본인의 경우)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3	2.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0	18.0
그저 그렇다	138	22.6
그런 편이다	298	48.8
확실히 그렇다	52	8.5
전체	611	100.0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타인의 부탁에 대하여 거절할 때, 대전사람들은 어떠한 표현을 쓰는지를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본 결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된다’, ‘다음에 해 주겠다’의 표현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안된다’라는 단호한 표현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절 표현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각해 보겠다라는 유보적 표현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1〉 타인의 부탁거절시 쓰는 표현

타인의 부탁 거절표현	빈도	비율(%)
죄송합니다	102	17.8
미안하다	90	15.7
생각해보겠다	69	12.1
안된다	65	11.4
다음에 해주겠다	46	8.0
시간이 없다	23	4.0
우회적인 방법사용	21	3.7
아닙니다	19	3.3
사정상 어렵다	17	3.0
글쎄요	12	2.1
곤란하다	11	1.9
거절이유를 설명함	10	1.7
나도 어렵다	9	1.6
핑계를 댈다	9	1.6
못할거 같다	6	1.0
가족과 상의해 보겠다	5	0.9
나중에 연락 하겠다	5	0.9
무반응을 보임	5	0.9
안되겠다	5	0.9
거절을 잘못함	4	0.7
힘들다	4	0.7
괜찮습니다	3	0.5
회피한다	3	0.5
능력이 안된다	3	0.5
미안한 표정지음	2	0.3
어색한 웃음	2	0.3
기타	22	3.8
전체	572	100

〈표 32〉 대전시민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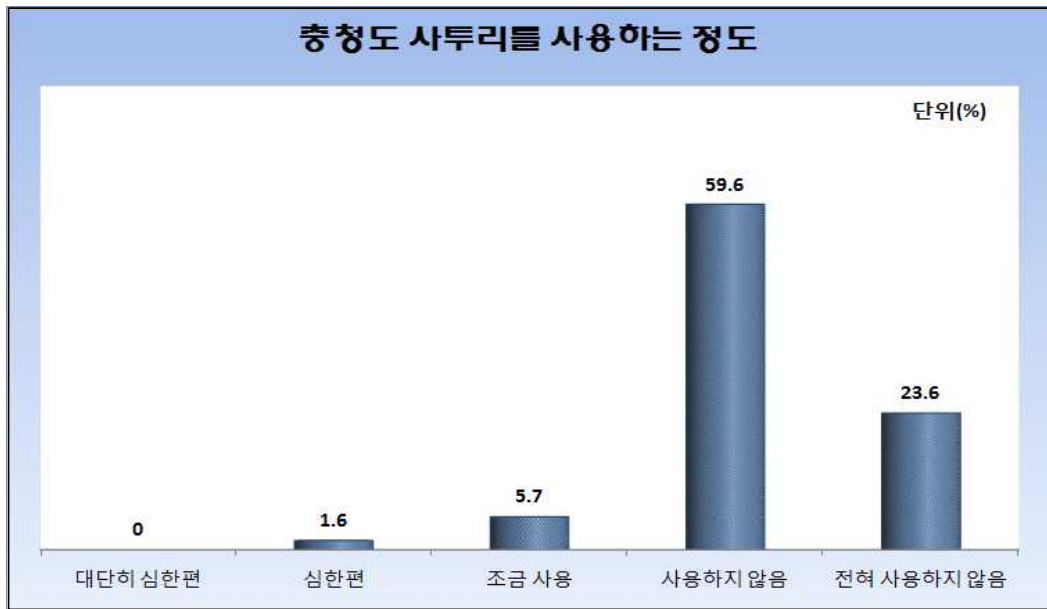
대전 사람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는 상황	평균	표준편차
대전연고 프로팀 경기 응원시	3.70	1.15
외지에 나가서 생활할 때	3.79	1.02
모임에서 대전부르스라는 노래를 부를 때	3.03	1.20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때	3.29	1.15
타지역민과 대화시 사투리를 사용할 때	3.34	1.08
대전소재 초중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시	3.08	1.41
전체	3.37	



위 6가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대전사람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지에 나가서 생활할 때’, ‘대전연고 프로팀 경기 응원시’에 다른 상황보다 동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정도

충청도 사투리 사용정도	빈도	비율(%)
대단히 심한편	10	1.6
심한편	35	5.7
조금 사용	364	59.6
사용하지 않음	144	23.6
전혀 사용하지 않음	58	9.5
전체	611	100.0



평상시 충청도 사투리를 조금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심하게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사용하는 사투리 또한 말끝에 붙는 접미사 중심으로 그려, -유, -겨, 기여, 그랴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듣는 사투리도 사용하는 사투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34>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투리

가장 많이 하는 사투리	빈도	비율(%)
그려	141	29.3
~유	76	15.8
~겨	45	9.4
기여	31	6.4
그라	20	4.2
뛰여	16	3.3
기야	15	3.1
아녀	15	3.1
그래유	13	2.7
대간하다	8	1.7
그랬슈	7	1.5
그려유	6	1.2
~여	5	1.0
시방	5	1.0
엄청	5	1.0
할겨	5	1.0
~혀	4	0.8
괜찮아유	4	0.8
근디	4	0.8
하는겨	4	0.8
~려	3	0.6
거시기	3	0.6
그런겨	3	0.6
궁께	2	0.4
물러	2	0.4
안그려	2	0.4
왜그라	2	0.4
왜그려	2	0.4
저려	2	0.4
정구지	2	0.4
기타	29	6.0
전체	4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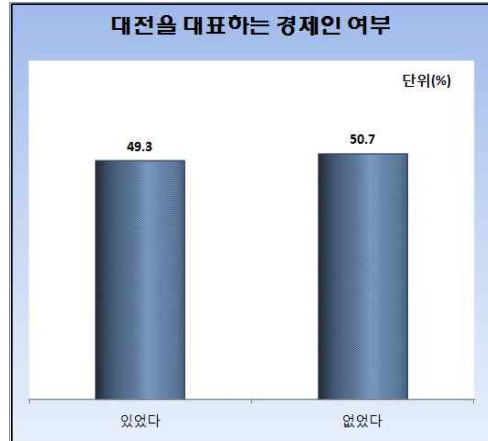
〈표 35〉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듣는 사투리

가장 많이 듣는 사투리	빈도	비율(%)
그려	172	26.4
~유	107	16.4
~겨	68	10.4
기여	48	7.4
그래유	24	3.7
그랴	21	3.2
뛰여	20	3.1
기야	15	2.3
아녀	12	1.8
할겨	12	1.8
했어유	12	1.8
괜찮아유	11	1.7
거시기	10	1.5
~려	8	1.2
~여	7	1.1
그랬슈	7	1.1
근디	7	1.1
~한겨	6	0.9
엄청	6	0.9
~혀	5	0.8
그런겨	5	0.8
그려유	5	0.8
글쎄유	5	0.8
됐슈	5	0.8
대간하다	4	0.6
안녕하슈	4	0.6
~햐	3	0.5
앵간히	3	0.5
했다	3	0.5
날망	2	0.3
기타	35	5.4
전체	652	100.0

4. 대전의 인물, 대표음식, 장소

<표 36> 대전을 대표하는 경제인 여부

대전을 대표하는 경제인 여부	빈도	비율(%)
있었다	301	49.3
없었다	310	50.7
전체	6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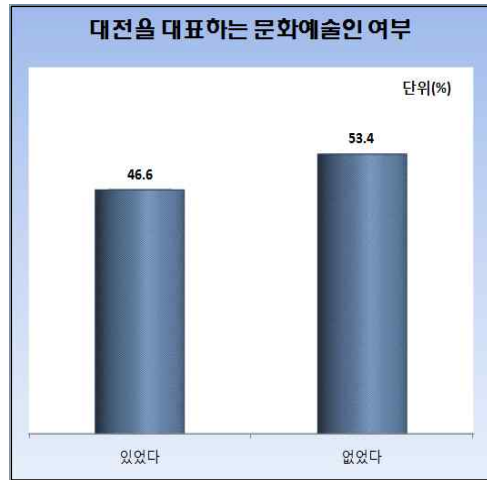


<표 37> 대전을 대표하는 경제인

대전을 대표하는 경제인	빈도	비율(%)
이인구	277	92.0
선양소주대표	6	2.0
김승연	7	2.4
최원석	2	0.7
LG대표	2	0.7
김동현	1	0.3
나웅배	1	0.3
심대평	1	0.3
오영근	1	0.3
이상구	1	0.3
진미식품대표	1	0.3
홍선기	1	0.3
전체	301	100.0

〈표 38〉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여부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여부	빈도	비율(%)
있었다	285	46.6
없었다	326	53.4
전체	6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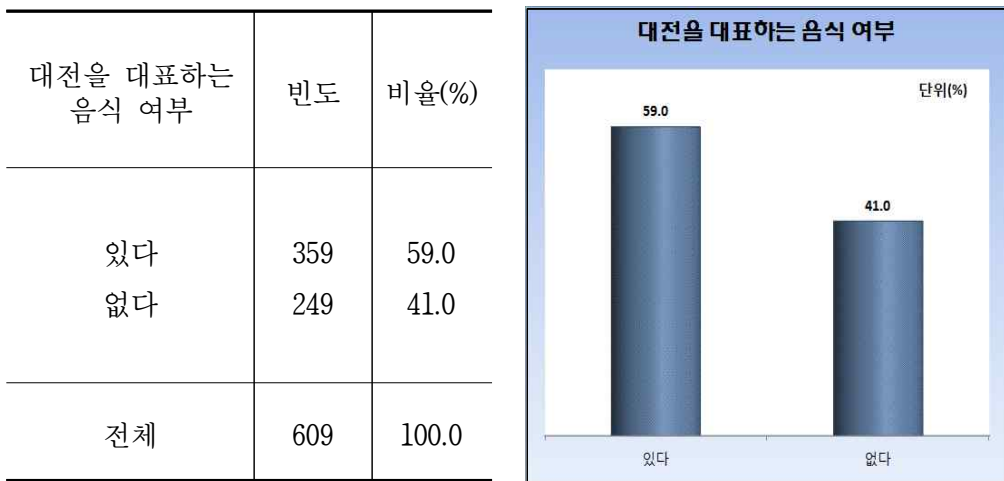


〈표 39〉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	빈도	비율(%)
권상우	67	23.7
서경석	45	15.9
신승훈	29	10.2
이용노	26	9.2
박동진	23	8.1
이상용	21	7.4
박세리	18	6.4
박찬호	12	4.2
김덕수	9	3.2
심신	3	1.1
이보영	3	1.1
조광자	3	1.1
김지미	2	0.7
김태균	2	0.7
김홍신	2	0.7
이종수도예가	2	0.7

전양자	2	0.7
최병서	2	0.7
기타	12	4.2
전체	283	100.0

<표 40>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 여부



<표 41>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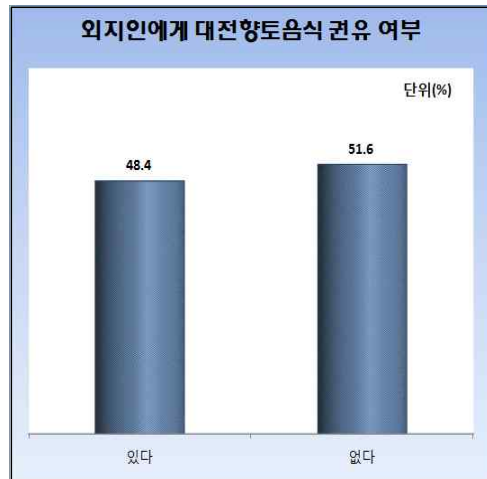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	빈도	비율(%)
구즉묵	201	50.1
두부두루치기	64	16.0
칼국수	28	7.0
냉면	18	4.5
설렁탕	18	4.5
산내솥두부	17	4.2
민물매운탕	13	3.2

보리밥	11	2.7
삼계탕	8	2.0
오리고기	8	2.0
도리뱅뱅이	2	0.5
돌솥밥	2	0.5
기타	11	2.7
전체	401	100.0

대전에서만 독특하게 맛 볼수 있는 음식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59%에 이른다. 있
다라는 응답자 2명 중 1명은 구즉묵을 추천하였다. 이외에도 두부두루치기, 칼국수,
냉면, 설렁탕의 순으로 추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박하고 서민취향에 맞
는 음식이 대부분이다.

<표 42> 외지인에게 대전향토음식 권유 여부

외지인에게 대전향토음식 권유여부	빈도	비율(%)
있다	295	48.4
없다	315	51.6
전체	610	100.0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은 대전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외지인에게 대전향토음식을 권유한 적이 있는지

우선 물어보았다.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8.4%로 2명 중 1명은 외지인에게 대전향토음식을 권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외지인에게 어떠한 음식을 권유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 ‘구즉묵’, ‘두부두루치기’, ‘설렁탕’, ‘냉면’, ‘칼국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대전에 독특한 음식을 추천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구즉묵이 대표적인 추천 및 권유음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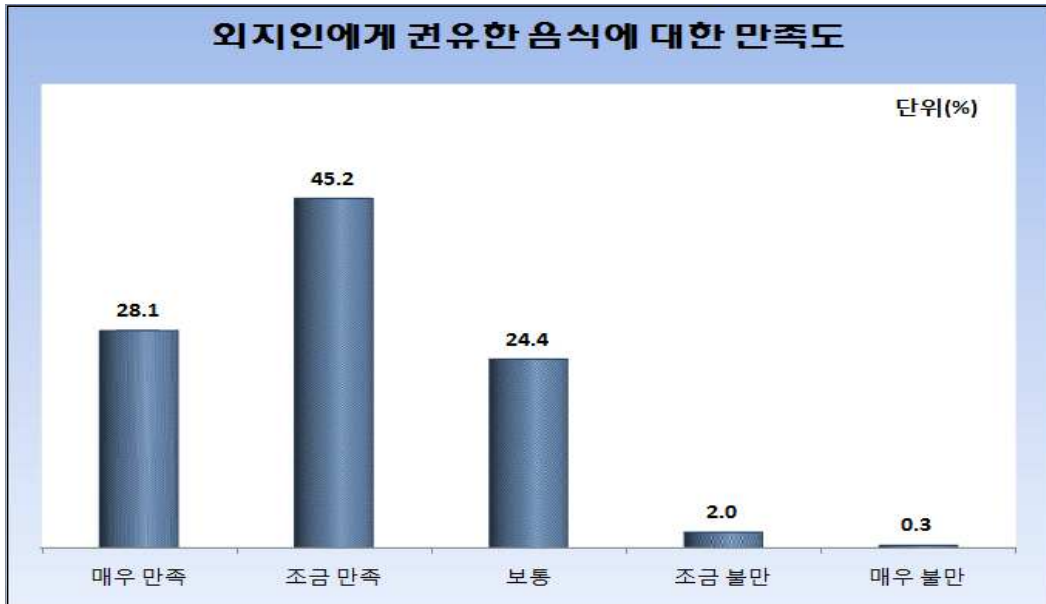
<표 43> 외지인에게 권유한 음식

외지인에게 권유한 음식	빈도	비율(%)
구즉묵	151	47.9
두부두루치기	30	9.5
설렁탕	17	5.4
냉면	16	5.1
칼국수	15	4.8
순두부	14	4.4
민물매운탕	13	4.1
오리고기	13	4.1
삼계탕	10	3.2
보리밥	8	2.5
돌솥밥	5	1.6
육개장	4	1.3
회	4	1.3
어죽	3	1.0
추어탕	2	0.6
기타	10	3.2
전체	315	100.0

외지인에게 권유한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전에서만 독특하게 맛 볼 수 있는 음식을 지역브랜드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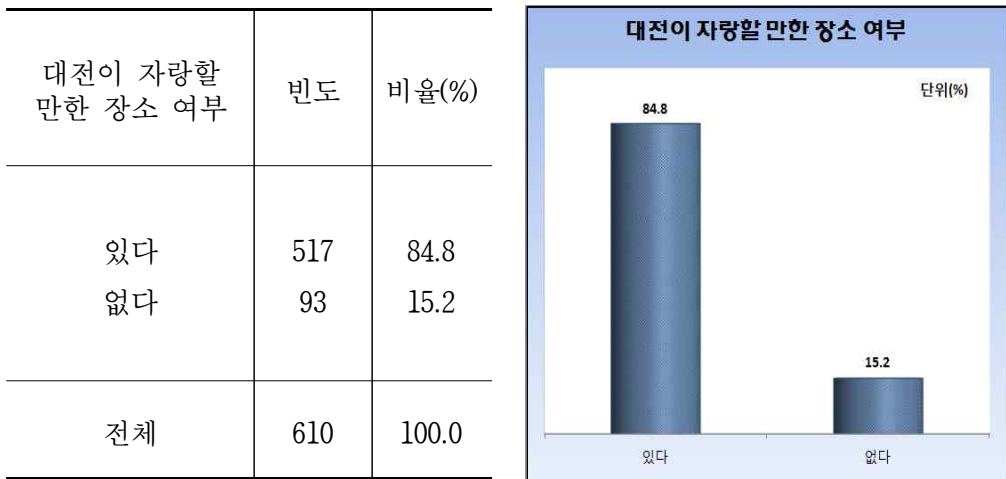
<표 44> 외지인에게 권유한 음식에 대한 만족도

권유한 음식에 대한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만족	84	28.1
조금 만족	135	45.2
보통	73	24.4
조금 불만	6	2.0
매우 불만	1	0.3
전체	299	100.0



대전이 자랑할 만한 대표장소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대전시민 10명 중 8명이 대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다라는 응답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상징적 장소에 대한 지역민의 결집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5> 대전이 자랑할 만한 장소 여부



<표 46> 대전이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장소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장소	빈도	비율(%)
엑스포과학공원	111	17.1
대청댐	68	10.4
계룡산	63	9.7
뿌리공원	59	9.1
대전동물원	55	8.4
보문산	54	8.3
대덕특구	42	6.5
동학사	39	6.0

계족산	31	4.8
유성온천	25	3.8
국립중앙과학관	16	2.5
식장산	12	1.8
장태산	9	1.4
카이스트	8	1.2
대전8경	7	1.1
대전역	5	0.8
동춘당	5	0.8
한밭수목원	5	0.8
대전정부청사	4	0.6
꿈돌이랜드	3	0.5
시민천문대	3	0.5
으능정이거리	3	0.5
기타	24	3.7
전체	651	100.0

대전이 자랑할 만한 장소가 존재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장소가 대표적인 장소인지를 복수추천토록 한 결과, 엑스포과학공원, 대청댐, 계룡산, 뿌리공원, 대전동물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보문산, 대덕특구, 동학사 등을 추천하였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이 지닌 상징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로 다소 운영상의 애로점이나 유지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보존하고 이용해야 할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7> 대전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 사건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 사건	빈도	비율(%)
대전엑스포개최	282	55.2
지하철개통	88	17.2

중앙테파트철거	32	6.3
정부종합청사이전	28	5.5
월드컵8강경기	22	4.3
발바리사건	7	1.4
신행정도시	7	1.4
월드컵16강전승리	5	1.0
광역시로승격	4	0.8
대덕특구지정	4	0.8
오대양사건	3	0.6
6.25사변	2	0.4
대전시청준공	2	0.4
둔산신도시	2	0.4
산내학살사건	2	0.4
카이스트설립	2	0.4
기타	19	3.7
전체	511	100.0

제3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대전시 현 위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 대전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하여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 대전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편리하며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대한 현재 이미지는 ‘과학의 도시(54.2%)’가 ‘교통의 도시(23.4)’, ‘행정의 도시(7.2%)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미래상 또한 ‘과학의 도시(43.4%)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의 사람 차원에서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고학력자가 많은 도시이미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71.3%로 높게 나타나,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개별성 판단에 있어 볼거리·즐길거리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거나 적다라는 응답이 54.6%로 나타나 정체성 지속의 측면에서는 전통성이 낮은 도시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전시민이 대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해 본 결과 3.41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정체성(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대감의 경우 강하다는 인식이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다른 차원의 동질성 가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연대성은 타 지역에 비하여 두드러진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의식 또한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사를 표한 응답자는 28%로 현 대전 거주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는 58.9%가 차별을 받아왔다고 응답하여 지역차별에 대한 지역민의 공통적인 인식과 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전 사람들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동일성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대전 사람들의 독특한 기질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8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전 사람은 느긋하며, 온순하고, 뜨뜨미지근한 면이 있으며, 속을 알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대전사람이구나라는 자각의 계기(동일성 가치 형성의 계기)는 주로 ‘스포츠경기 관람시(29.3%)’, ‘타 지역에 갔을 때(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특기할 만한 점은 대전사람만의 특징 다시말하여 기질과 관련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 정도였다는 점이다. 지역토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든, 대전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사람이든 대전사람으로서 집합적 특성, 다시말하여 대전시민의 기질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비추어볼 때 대전의 공간적 특성과 역사성이 시민의 삶에 있어서 지향점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전사람은 스스로 자신들만의 지역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대전사람은 느긋하며, 온순하고, 뜨뜨미지근한 면이 있으며, 속을 알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고, 심성은 소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심성은 온순하고 소박하지만,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는 다소 우유부단하고, 선명하지 못한 점이 대전사람의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대전 사람들의 기질적 특성 및 동일성 가치를 참조하되, 대전이 다른 도시와 차별적으로 보이는 개별성의 관점에서 시민들은 대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전은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고향력자 정주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의미와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이하에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한다.

1) 시민 주도의 대전 정체성 확립 방안 필요

시민 주도의 대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정체성 확립 의지를 시민에게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개인과 조직에 대한 동일성 인식

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대전의 미래 지향적 가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안정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뚜렷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앞서, 시민주도의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2) 다차원적 문화시설 및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필요

향후 다차원적 문화시설 및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대전에 볼 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향후 희망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대전은 이 점에 있어 타 도시에 비견할 만한 흥미 있는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향후 자기계발에 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문화시설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이것이 대전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전시에 적합한 창조적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적 직업 확충 필요

대전시에 적합한 창조적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적 직업 확충이 필요한 형편이다. 조사결과에서 보이듯이 대부분의 시민은 대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의식에 대한 분석에서 전체의 72% 정도가 대전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주희망에 대한 이유로는 직장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아,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다양한 직업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4) 기존 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계구성 및 적극적인 활용 노력 필요

조사 결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전의 대표 장소이미지로는 엑스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의 장소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집중되지 않고 매우 산만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의 가지고 있는 대전에 대한 이미지는 다소 추상적인 상황인 것으

로 해석된다. 대전의 공간 정체성이 대전시민의 일상과 연계되고, 그것이 대전의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로 발현 될 수 있으려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장소를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대표이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대전의 차별화된 공간과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5)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정체성 확립

조사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대전을 대표하는 장소는 엑스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시민들이 대전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입장과 달리 지역적 위치로 인한 상징 장소로 정체성과 결부지어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들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대전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과학도시의 모습 지향

시민들은 미래 대전의 모습으로 과학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접목된 도시, 이러한 도시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학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도시에 대한 비전을 재해석하여, 주력분야와 연관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7)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다차원적 발전전략 필요

도시 정체성을 과학도시의 비전에 맞추어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적인 환경이 필수적이다. 조사 결과 이에 대한 계층별 욕구가 크게 나타나 이에 초점을 맞춘 발전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제 5 장

지역정체성 확립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1절 지역정체성 확립의 기본 전제

제2절 대전 지역정체성 확립의 여건과 추진전략

제3절 세부 전략 과제

제5장 지역정체성 확립의 정책방향과 과제

본 장에서는 전술한 도시정체성 확립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검토한 사례도시의 정체성 향상을 위한 시도와 대전시민의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가 고유여건과 잠재력을 살리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전제되어야 할 사항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별 추진과제를 검토·제안하기로 한다.

제1절 지역정체성 확립의 기본전제

국내 대부분의 도시들은 근대의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균질화 획일화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산업사회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개별 도시의 전통적 지역적 개성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여 대전이 도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1. 지역주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화 자치화 촉진

첫째 지역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물리적 팽창 위주의 개발철학을 지양하여야 한다. 즉 도시의 정체성이 회복 또는 확립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경제사회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수준에서 자율화와 자치화가 촉진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위에서부터 지시 또는 외부로부터 통제에 의하기보다는 대전지역의 일반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유로운 선택과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도시의 정체성 확립은 훨씬 용이할 것이다

2.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및 새로운 개발 철학 정립

그동안 우리사회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급속한 인구 및 산업의 도시집중 속에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대전 또한 예외 없이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성과 채산성이 철저히 중시된 결과 시가지의 확산과 도시생활에 필요한 물리적 시설의 확충은 이루어졌지만 대전은 개성이 없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도시의 발전을 기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도시 계획 및 개발은 오히려 도시정체성 확립에 역행하고 나아가 한 단계 높은 지속적인 발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원래 대전이라는 도시가 경관 차원이나 지리적 차원에서 나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변화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철학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양적인 수요를 따라서 효율성 위주로 수행되어왔던 도시개발 및 정비를 지양하고 대전 지역 내에서 변화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내어 이를 육성하거나 새로운 것과 융합하고자 하는 도시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새로운 개발철학의 정립이 대전시나 시민들의 공통인식으로 자리잡아야 하겠다.

3. 자치구별 특성화를 통한 다양성 전략 추구

자치구별 정체성 확립 전략이 차별성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정체성에 관련되는 몇 가지 관점에서 대전시 자치구를 유형화하고 대전시의 경우 그 유형에 부합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적 전략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간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정체성 확립은 대전 전역보다는 자치구에게 더욱 전략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 자치구는 대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거와 이어지는 시간의 지속성, 변형되지 않은 자연형태가 남아있는 공간의 지속성, 전통적인 인정, 습관 등이 잔존하는 삶의 지속성이 강하므로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회복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4. 공공주체와 민간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 및 파트너십 형성

공공주체와 민간주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파트너십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정체성의 확립은 특정주체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다. 우선적으로 공공주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각종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부문을 육성하는 등의 민관협력행정을 전개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정책을 평가하고 자발적인 지역정체성형성의 주체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관련 주체들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 역할이라 함은 정책의사결정 재정지원 사업계획 수립, 기술적인 자문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주민의식제도 등 다양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바람직한 조직형태는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5.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기 발전 목표 및 전략의 체계성 구축

도시의 비전은 그 도시민과 그 도시의 고객들이 꿈꾸는 10년 내지 20년 후의 도시 모습을 이야기한다. 일단 대전의 도시 브랜드 에센스 및 가치 제안에 근거한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그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로 표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의 목표는 그 도시가 장차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그리고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선언문이다. 예를 들면, 대전시가 장기적으로 국내 관광 1위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면, 목표는 “ 2020년까지 도시 인지도 국내 1위, 선호도 1위, 연간 평균 도시 방문 관광객수 000만명” 와 같이 표현해 주어야 좀더 실현 가능하고 실천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할 때 더욱 쉽게 도시의 자원을 할당할 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시가 도시 브랜드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도시의 브랜드비전, 목표를 수립하여, 도시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도시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풀뿌리식 접근방법(Grass-rooted Approach)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도시의 미래 비전을 개발함에 있어서 외부 자원, 컨설턴트 등의 영감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주요한 결정과 조치는 도시에 뿌리를 둔 주체들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비록 브랜드 에센스와 비전의 수립과정이 많은 내·외부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 일 지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성공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면 지속성, 효과성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오래지 않아 다시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실을 볼 때, 지방 정부 자체 내지 외부 자원을 이용해서 후보 안을 만들고 단체장이나 의회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 도시브랜드의 내외부 고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단체장이나 의회가 교체되면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며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다 하겠다.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 멀리 가려는 노력,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만인의 꿈을 만들려는 노력이 기울여 질 때 그것은 지속되는 현실이 될 것이다.

6. 지역정체성의 내재화 전략 및 모델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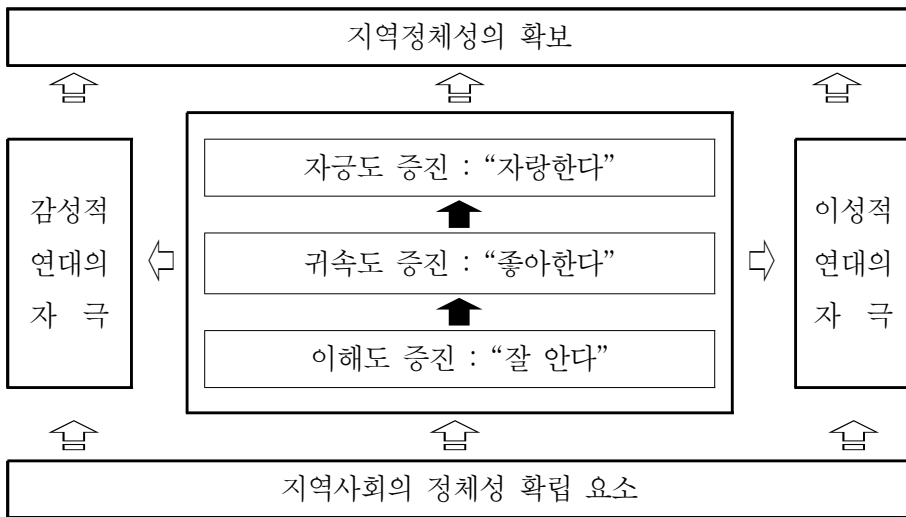
대전지역과 같이 다양한 전입인구의 분포로 존재하는 지역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의식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그 지역에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행위는 대전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징성을 먼저 대전시민에게 내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부각될 수 있는 바, 상징성은 지역적 정체성을 둘러싼 본질주의와 구성주의간의 갈등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며 어떠한 상징성과 전통성이 채택되고 재현되는 것은 사회집단 또는 개인들간의 끊임 없는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갈등과 협상의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전시민이 지역의 동질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이해에서부터 대전 지역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적 행정서비스의 제고는 물론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없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모형을 정립하여 정체성 내면화 전략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지역정체성 내면화 모형

제2절 대전정체성 확립의 여건과 추진전략

이 절에서는 대전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제발굴에 앞서 대전의 현재 정체성의 상황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전망해보도록 한다.

1. 대전정체서 확립을 위한 여건 분석

1) 대전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건 분석

지역정체성은 결국 인적 구성과 인적 네트워크, 소위 공동체성이 어떻게 발현되어 있는가에 따라 동일성과 개체성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출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1) 강점

대전의 사람 중심의 정체성 확인에 있어 가장 개별성의 특징이 두드러진 부분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R&D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 R&D 인력은 25,929명으로 국가전체의 9.9%를 차지 (서울 : 30.1%)하고 있어 서울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특정한 공간으로의 집중도 또한 매우 높은 상태로 대덕 특구에는 박사급 6,990명을 포함, 약 2만 여명의 R&D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전시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 비전을 갖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데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젊은 계층 비율이라는 점이다. 인구구성으로 보면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항아리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 지수도 6.86%로 전국 평균인 9.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성으로 인하여 대전시의 8개 대학 재학생은 88,389명으로 인구 중 대학생 비율이 6%에 달해 국내 광역시 중 최고 수준 (그 다음으로 광주 5.7%, 부산 5.2%, 서울 4.4% 순, 2007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는 개별성의 뚜렷한 특징을 읽을 수 있다.

(2) 약점

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대전이 지역정체성, 집단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약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류의 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동호회, 문화 단체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 시설이 부족하며, 각종 동호회의 자율적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이 적다는 사실이다. 지역별로는 동구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들간 상호 교류를 통한 문화적 자극이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영화, 연극 관람 등)이 중심이며 자극, 학습, 집단 창작 등을 이끌어내는 동호회 활동은 저조(활동경험 : 18.7%)한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직업과 관심사, 문화를 가진 시민들이 교류하면서 나타나는 상호 자극이 부족하며 특히, 대덕 연구단지과 대전 시민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약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기회

대전 사람 특성이라는 차원에서만 한정해서 볼 수 없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삶의 질(문화예술, 여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소득이 증가하고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즐기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와인, 요트 등의 고급 문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점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 교류와도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욕구가 발현되고 조합되는 미래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위협

위협요인은 특히 문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에서의 교류 인프라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여전하고, 오히려

려 심화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 종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대전은 3,423명이 거주(2.4%))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위협이 되고 있다.

2)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여건분석

지역정체성은 사람 뿐만아니라 어떠한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고유한 특성과 동질성이 유지되거나 변해간다.

(1) 강점

대전은 첨단과학 및 R&D 핵심도시라는 개별성이 두드러진 도시이다. 우선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소를 비롯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 775개 기관이 입주하여 있으며, 국내특허 3,689건, 국제특허 443건 등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기준)

(2) 약점

산업측면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연구성과물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가 낮은 형편이라는 점이다. 풍부한 R&D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전의 과학관련 벤처기업 수는 521개로 부산(724개), 대구(603개) 보다도 낮은 수준 (2007년 기준)이어서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에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산업 비중이 낮은 형편이라는 점이다. 2006년 대전 문화산업 매출액은 3,380억 원으로 전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따라서 대전정체성 형성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예술 자원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 기회

대전시에서 최근 두드러진 특징 중 한 가지는 창조산업의 성장세에 따른 중요한 호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연평균 3%에 머무는 것에 비해 창조산업은 5%이상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창조산업 고용자수 연평균 증가율은 7.2%(99년~2005년)로 전 산업 고용 성장률 2.6%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은 창조산업의 첨단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에 발맞추어 대전은 첨단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영상 특수효과 타운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및 게임 제작에 특화된 집적시설 건립이 완료되면 차세대 영상/영화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4) 위협

대전이 향후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산업 측면에서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과학도시 대전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덕단지 연구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는 점에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 R&D 거점에서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한 구성 요소로 위상이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과학 도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도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첨단 로봇, 자기부상열차 등의 유치 실패로 이를 추진하는 도시들이 차세대 과학 도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과학도시로서의 개별성이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여건분석

정체성 형성에 있어 공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간은 아이디어의 네트워킹과 순환이 이루어지며, 정보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동일성의 정체성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매개 수단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전이 역동적이고 과학적이

며 창의적인 정체성을 확립함에 있어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강점

대전은 공간의 특성에서 정체성 확립에 강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내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여 철도, 도로 등 육상 교통 인프라가 풍부 (고속국도 5개, 일반국도 4개, 일반 철도 3개 노선 등)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의 융복합이 수월한 곳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수의 잠재적 교류 공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수량이 풍부한 도시하천인 갑천 및 넓은 부지와 함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엑스포 공원 등 잠재적 교류 공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전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친환경적 도시라는 특성도 강점으로 갖고 있다. 30분 이내의 거리에 순수한 자연을 향유 가능한 친환경 도시라는 이미지는 타도시와의 비교에서 개별성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약점

대전은 앞서 살펴 본 공간여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데 공간 차원에서의 취약한 특징 또한 갖고 있다. 가장 큰 약점은 대전시의 국제교류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대전은 지리적 특성이기는 하지만 항만, 공항 등 국제 교류에 필요한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관광자원의 이용률이 저조한 형편 또한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전 동물원, 엑스포 공원 등 대전의 대표적 관광시설에 대한 지역 외부의 수요가 부진하고, 특화된 온천 자원인 유성의 경우도 관광보다는 위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성 확립에 있어 약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기회

공간 차원에서 대전이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보다도 웰빙,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전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살기 좋은 도시 1위, 주민 만족도 1위 도시 등 양호한 도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음은 대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유리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축제, 이벤트 등의 행사가 다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기회요인이다. 원도심, 갑천 등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 전시회 등 정기적인 이벤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4) 위협

하지만 위협요인을 여건분석을 통하여 고려해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대전의 동일성을 해치는 요인 중 공간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원화 문제이다. 신도심의 개발 및 활성화로 원도심의 상권이 쇠퇴하고 있으며, 대전시 내의 인구가 서구로 이동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교류 차원에서 보면 인근지역, 해외로의 관광객 유출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내국인의 해외 관광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대전의 관광객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유료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81%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대전의 정체성 확립에도 위협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다.

4) 제도를 중심으로 한 여건분석

정체성 형성에 있어 제도는 사람들간 교류와 일체감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체계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대전이 역동적이고 과학적이며 창의적인 정체성을 확립함에 있어 어떠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강점

제도차원에서 정체성 확립에 강점으로 들 수 있는 요인은 대전시가 과학도시로서의 뚜렷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과학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많은 지원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빠른 행보로 과학도시 대전을 위한 여러 정책,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또한 대전시에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들 수 있다. 사회 통합, 시민사회 구축, 소외계층 인권신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대전시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242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2) 약점

시민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약점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전 시민이 공유하는 비전과 공감대가 매우 낮은 형편이며, 지역 및 계층 간 소통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전시가 제도적으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도시정체성의 전략이 수시로 바뀌거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전만의 자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전만의 고유성, 문화 등의 부족으로 시민이 가지는 대전에 대한 자부심이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이며, 가능하면 이주하고 싶다는 이주 희망도 타시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3) 기회

시민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의식 향상으로 시정에 참여하려는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청 홈페이지 제안게시판 개편 후 일평균 10여건에 달하는 제안이 계속해서 등록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변화는 결국 대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시민사회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여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4) 위협

위협요인은 대전과 같은 규모의 도시가 비슷한 맥락의 정체성 추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부산, 대구, 인천 등) 다수의 도시가 거의 유사한 정체성 확립 전략을 선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개별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지역 입장에서는 획일화된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대전지역정체성 확립의 전망과 전략

상기와 같은 관점 하에서 앞선 논의들을 중심으로 대전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4대 전략영역의 전략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전략방향에 따라 4대 전략영역이 변화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작동하면서 대전만의 특성 및 메커니즘을 생성토록 세부 과제를 발굴·제안코자 한다.

1) 사람 부문 확립 전략

<표 48> 사람 부문 SWOT 전략

		강점 (S)	약점 (W)
		풍부한 R&D 인력 높은 젊은 층 비율	문화예술 인프라 및 환경 취약 상호교류를 통한 자극 미 흡
기 회 (O)	삶의 질(문화예술, 여가 등)에 대한 관심 증가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대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위 협 (T)	문화예술의 수도권 집중	교육기능 차별화	시민 주도의 운영, 공연 지원

(1) SO 전략 :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대

대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자원은 결국 문화예술이라는 토양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대전이 갖고 있는 인적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의 소수자, R&D 인력, 젊은 계층 등의 문화 활동을 육성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ST 전략 : 교육기능 차별화

대전이 지니고 있는 차별화된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을 통한 확산과 연계전략이 필요하다. 공개강좌 및 초/중/고/대학 등의 교육에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을 포함시키고 대덕단지 R&D 인력을 참여시켜 교육기회를 다양화 및 차별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WO 전략 :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람 부문의 전략 중 약점요인을 줄이고, 기회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문화예술 인프라를 추가로 확보하고 공연, 전시 등의 횟수를 늘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WT 전략 : 시민 주도의 운영과 공연 지원

시민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참여를 확대시키고 보텀업(Bottom-up) 방식의 고유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산업부문 SWOT 전략

〈표 49〉 산업 부문 SWOT 전략

		강점 (S)	약점 (W)
		첨단과학 및 R&D 핵심도시	대덕 단지의 낮은 사업화율 낮은 문화예술 산업 비중
기 회 (O)	창조 산업의 성장세 첨단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통섭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위 협 (T)	과학 비즈니스 벨트화 차세대 과학도시의 경쟁 치열	과학기술 차별화(사업화 관점)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1) SO 전략 :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통섭

대전의 산업 부문에 대한 여건분석에서 지적하였듯이, 대전은 기초과학분야에 특성이 두드러진 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과 문화예술의 통섭⁹⁾인 문화기술(CT)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2) ST 전략 : 과학기술 차별화(사업화 관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학기술을 선별 및 지원하여 인근 도시와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여,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실질적인 위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3) WO 전략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개인 및 소규모 단체들도 아이디어를 손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9) 通攝 : 물리적 결합, 화학적 융·복합을 넘어선 생물학적 결합 및 재생산을 의미

강화(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토록 한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을 비즈니스화 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WT 전략 :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 한다. 특히 영상문화, 집적 시너지가 높은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3) 공간부문

<표 50> 공간 부문 SWOT 전략

		강점 (S)	약점 (W)
		다수의 잠재적 교류 공간 국내 교통의 중심지, 친환경 도시	관광자원 이용률 저조 국제교류 기반 미흡
기회 (O)	월빙, 주거 환경의 중요성 부각 다양한 축제, 이벤트 등의 행사	교류 공간의 경쟁력과 고유성을 강화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강화
위협 (T)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원화 관광객 유출의 심화	대전시의 랜드 마크 조성	관광자원 정비

(1) SO 전략 : 교류공간의 경쟁력과 고유성을 강화

갑천, 원도심, KTX 역사 등 교류 공간을 정비하고 축제, 이벤트 등을 차별화 하여 각각의 공간이 가지는 고유성을 강화토록 한다.

(2) ST 전략 : 대전시의 랜드 마크 조성

도청 청사, 엑스포 공원 등 상징적인 공간에 대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 마크를 조성토록 한다.

(3) WO 전략 :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강화

상점가, 주거 환경 정비, 녹지 확보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강화

(4) WT 전략 : 관광자원 정비

유성, 엑스포 공원 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활용도가 저조한 관광자원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한다.

4) 제도부문

<표 51> 제도 부문 SWOT 전략

		강점 (S)	약점 (W)
		이미 시작된 정체성 확립에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	시민의 공감대 부족 대전만의 자부심 부족
기 회 (O)	시정참여 요구 증가 공동체성에 대한 높은 관심	정체성 확립의 시민 참여 확대	시정참여 기회 확대
위 협 (T)	경쟁 도시의 정체성 확립 추구	정체성 확립 정책 재정비	정체성 확립 캠페인 강화

(1) SO 전략 : 정체성 확립 시민 참여 확대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에 시민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 정체성 확립에 대한 주인의식을 확대한다.

(2) ST 전략 : 정체성 확립 정책 재정비

도시 이미지, 브랜드 구축 및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기존 정책과 사업을 일관성 및 통합성 차원에서 재정비하거나 조정한다.

(3) WO 전략 : 시정참여 기회 확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활발하게 반영될 수 있는 행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공청회, 게시판 등 제안 기회를 넓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한다.

(4) WT 전략 : 정체성 확립 캠페인 강화

도시 정체성 확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도시의 브랜드를 선점한다.

3절 세부 전략과제

여기에서 제안하는 세부 전략과제는 앞서 논의한 사람, 산업, 공간, 제도 영역에서의 대표 사업들인 동시에 실행영역에서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한 가치 및 정체성 확립의 방법, 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1. 대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류체계 강화

1) 사업의 필요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전은 충청권이라는 권역 속에서도 특성화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국제 사회에서 문화에 관해서는 뚜렷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역사성이 부족한 도시로 과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엄밀하게 보면 현재 브랜드로서의 대전의 도시 이미지는 아직도 강하지 못하며, 대전시의 홍보방식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대외 홍보와 도시 정체성 확립 전략은 현재 당면한 세계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또한 대외 문화경쟁을 통해 우위성을 인정받는 문화적 자산이 대내적 문화통합에도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과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대전의 도시 정체성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고 대외 홍보 및 교류 활동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대전시의 대외 문화교류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도시 정체성 확립이나 제고 전략과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은 특정 부서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대전시의 문화상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실제 대 내외적으로 대전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징들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전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 이미지를 확립, 개발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영역과 다원화된 홍보 창구의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

시 차원의 대외홍보는 주로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대중적 의사소통의 흐름이 오피니언 리더를 매개로 일반 수용자에게 전달된다는 마스크 이론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홍보영역으로는 효과적인 대전시 이미지제고 및 홍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화교류에 있어서 대전시보다는 민간기구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대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는 대전시가 주도하는 문화교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민간차원에서의 문화교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NGO의 역량과 문화교류 활동을 위한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추진과제

(1) 대전 정체성 확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전시 공보관실 산하에 대전시 정체성 통합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한다. 여기에는 현재 대전시 도시이미지에 대한 여론과악 및 국내외 문화교류와 홍보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기반한 전략 개발, 대전시 관련 정보오류 수집 및 시정조치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교류를 더욱 다원화하기 위해 대전시·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전략을 개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전시 주요 기관을 비롯해 자치구의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를 담당하여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의 내용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들 기관에서 발간하는 대전 관련 소개 팸플렛, 책자 역시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하고 차별화하여야 한다.

(2)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

대전시에서는 대전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전시의 해외소개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대전시의 문화 홍보 등을 비롯해 종합적인 대전시 소개 행사인 대전시 문화주관, 대전방문의 해 행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개행사가 국제문화교류

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류 행사로 (가칭) 대전시 세계 문화교류의 해 사업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다양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문화교류 사업으로 진행한다. 그간 대전시의 국제문화교류는 대전시를 해외에 소개하는데 집중되어 왔다면, 앞으로 문화의 세계화 전략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류를 포함한 상호교류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습이 대전시의 미래지향적 정체성 확립에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사업은 대륙별로 구분하여 아프리카 문화의 해, 유럽문화의 해, 중동문화의 해, 호주 및 남태평양 문화의 해, 남아메리카 문화의 해, 북아메리카 문화의 해, 인도문화의 해, 동남아시아 문화의 해, 아시아 문화의 해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문명권을 중심으로 힌두문명, 이슬람문명, 서구기독교, 유교,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대전 문화상징 개발

대전을 표상하는 이미지 개발 및 홍보·보급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한 도시브랜드 사업은 대전시의 이미지 제고에 일정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본다. 향후에는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영상화, 다큐멘터리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가 수상하는 상장, 주요 외교 문서, 정부 각 부처의 문서 등 다방면에 걸쳐 현대화한 대전시의 문화상징을 활용하고, 대전시 주요 기관을 상징하는 엠블럼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전시 각 부서와 자치구, 주요 공공기관이나 시설들의 이미지 통합관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각 기업이나 회사가 자사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통합적인 CI작업을 실시하듯이, 대전시 각 부서와 자치구, 주요 공공기관이나 시설들 가운데 통합적인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의 CI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4) 대전문화 가이드북 발간 및 보급

대전의 문화유산,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공연장 등), 축제, 관광지, 국립공원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북을 발간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대전시 문화시설과의 연계, 공연, 방문, 관광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세부적인 정보를 수록한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기관의 경우 기관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웹사이트, 대표자(기관을 운영하는 정부/인명 혹은 기관), 기관장, 기관장 전화번호, 기관장 E-mail 주소, 기관의 주요 목적과 사업, 기관의 활동과 성격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수록한다.

현재 관광지, 관광사에서 관광안내 팸플렛은 많이 발간되어 있으나 대전시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내책자가 부재하여 일목요연하게 대전의 문화시설 및 문화관광 정보를 수록 발간하는 책자가 아쉬운 실정인데 이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1) 사업의 필요성

대전에서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콘텐츠들은 무한하게 많다. 하지만 정체성 확립 연구는 이런 자원들을 모두 복원하자는 것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을 시민의 삶에 배치시키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연구하자는 것이다. 대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는 세계화 시대에 로컬 콘텐츠의 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대전 지역의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기능전환을 염두에 둔다는 의미이다. 이 콘텐츠 개발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문화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도를 찾을 필요가 있다.

현재 대전학 분야의 연구역량 부족과 연구축적의 미비로 인해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지닌 다양한 측면에 대한 조사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존하는 초보적 단계를 넘어서 대전학 연구

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에는 대전학 연구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은 타연구기관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킹 등을 통해 단절되어 있는 대전의 전통과 현대, 미래를 창조적으로 재결합하는 데 기여할 본격적인 대전학 연구의 산실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콘텐츠 생산을 위한 실용적 연구 지원에 힘써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전학 연구가 본격화되어야 그 연구성과가 문화산업에서의 창조적 콘텐츠 제작으로 피드백될 수 있겠으나, 이제까지 연구된 성과 자체만 하더라도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시급히 피드백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많은 연구사업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의 폭이 넓고 연구과정이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반해, 상품적 가치나 효과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특히 대학처럼 인문학이나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부재하며, 기업 수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자생적 연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의 정체성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의 정책적인 관심 제고와 기초적인 자료조사 및 심층연구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전시의 문화정책에서 대전시 정체성의 문제는 항상 정책기조에 나와 있었어도 그 내용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구호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내용적인 연구를 위해 실제적인 예산의 배정과 제도적 지원은 시급한 형편이다.

2) 추진과제

(1) 대전 정체성 규명 연구 사업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우선되어야 할 것은 어떠한 내용의 연구성과를 축적해내느냐의 문제이다.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역사의 서사구조와 캐릭터 등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이라든가, 도시공간의 특

성이나 일상생활의 다양한 실상 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조사와 재해석 등 심층연구이다.

둘째, 음악, 미술, 건축, 주거, 복식, 음식, 오락, 여가 생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연구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독교를 위시한 서양문물 수용의 역사라든가, 회화·문학·풍경의 비교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비교연구나 주제 중심의 연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분단 이후 현대사회 변화와 연계된 문화지형과 관행 변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 역시 절실한 형편이다. 계속되는 전국적인 개발에 의해 1980년대까지 남아 있던 근대문화유산 들이 급속하게 사라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청각적 기록을 남기는 일도 필요하다.

여섯째, 지난 최근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고 있는 영상기록들도 제대로 보존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청각아카이브 형태로 근현대문화에 대한 시청각기록을 충실하게 보존하는 일도 필요하다.

(2) 대전학연구 활성화 지원

대전은 대전이 갖고 있는 지역의 현실적인 이슈를 포함하여, 향토사, 유·무형유산, 자연환경, 공동의례와 축제, 문화공간과 시설 및 인물 등에 대한 연구활동들이 축적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역학 전담시설이 운용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와 반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서울학을 필두로 인천학, 부산학, 경기학, 영남학, 호남학, 충청학, 강원학, 제주학 등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또한 안산학, 전주학, 안동학, 천안학 등이 전담기관에 의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전시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중점연구사업으로 대전학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대전학 지식저장소 운영

미래의 도시 비전을 중심으로 대전이 창출하는 지식과 노하우를 보관 및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대전의 정체성 관련 기존 보고서, 연구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대전발전연구원, 대전 정체성 포럼, 대전시청 등이 보유한 기존 자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텍스트,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여 대전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각 활동의 산출 과정 및 결과물을 저장 및 공유토록 한다.

또한 지역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통합하는 지역 보물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대전의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 찾아오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며, 지역 중고 장터, 공연, 맛집 정보 등 유용하면서도 타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기 어려운 정보로 차별화하여 운영한다.

특히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인 등 시민이 참여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형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대전학 국제 세미나 개최

대전지역의 외국 문화 및 도시분야 연구자, 해외학자들이 참여하고, 대전발전연구원, 각 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대전학 연구 정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전의 주요 이념으로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문간 상호협조 차원에서 연구사업, 정책사업 개발에 기여하도록 한다. 특히 대전 정체성 확립의 가능성과 특성에 대한 분석은 외부 학자들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잘 파악될 수 있으며, 그들의 분석과 충고가 대전 정체성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기대효과는 대전시 정체성 요소의 다양한 특성 파악, 정체성 연구 방법론 심화, 대전학의 세계적 보편성 추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전시 정체성 규명을 위한 다학문적 연계성을 추구하고, 지역 정체성 요소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대전학 연구의 다원화, 국제화를 추구한다.

3. 사람 중심의 정체성 확립 - 인재 발전소

1) 사업의 필요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전은 인적자원의 유출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위상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국내외 다양한 인적자원을 적극 유입하고, 인재의 정착지원 및 거주편의를 제공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대전시는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역량을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고 창조계층을 육성하는 내발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숙된 사람 차원의 역량을 공간개발에 응용할 필요도 있다. 신도심의 형성으로 공동화된 구도심의 오랜 문화와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람 차원의 내발적 전략이 요구된다.

대전시는 인적교류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한 측면에서의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글로벌 인재의 장이라는 인식을 통한 간접 마케팅으로 창조 인재들이 이끄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적 교류 및 소통을 증진시키는 다문화 공동체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적 노력 또한 사람 측면에서의 과제를 통하여 실현해야 할 것이다.

2) 추진과제

(1) 커뮤니티 커넥트 지원사업

사람부문에서 대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커뮤니티 커넥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되어 활동 중인 지역의 커뮤니티와 동호회들의 상호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체성 확립은 지역민의 동일성 가치를 확인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집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섭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상호 이질적인 분야의 커뮤니티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 학술행사

나 합동 봉사, 전시회 등 사회문화적 기획행사 그리고 체육행사나 상호 초청 등 단순 사교적 성격의 모임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교류, 협력에 필요한 총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절차는 행사를 기획하는 개인 또는 동호회가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하고 소정의 심사 후 지원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준용하되,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행사 공간 알선, 전문가 지원, 비품 및 기자재 대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참여의 장 조성

시민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연계를 위하여 정체성 참여의 통합 공간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참여게시판, 시민 대화방 등 제안 및 참여 기능과 함께 대전 지역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문화시설 사용, 강좌 수강 등 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포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 및 성향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의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한다. 갑천 조명, 예술의 전당 분수, 건물 네온사인, 스카이로드 등 오프라인 시설에 대해 대전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행사시간을 마련하고 시민 공모를 받아 시민이 직접 만드는 도시 야경, 도시 분수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3) 대전상상포럼 발족 및 운영

시민이 만들어가는 대전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시민들로 구성되는 자발적 학습, 교류 조직의 발족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칭) 대전 상상포럼을 발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행정, 문화,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 등 대전학과 관련하여 자발적 시민학습 교류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5만 개의 포럼 육성을 사업 목표로 삼고 지자체가 지원하되 창의적이고 유연한 운영방식을 보장한다.

대전시는 소정의 심사를 통해 우수 포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결정하고 활동 결과를 시정 혁신에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민들이 소정의 형식과 기준을 갖추어 포럼 구성 후 지자체에 활동 기획안을 접수하고, 지자체는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공간 알선 및 운영비 일정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포럼은 매년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물을 시정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등 포럼에 시민 참여의 제도적 창구 기능을 부여한다.

(4) Voluntainment(즐겁고 신나는 자원봉사) 도입

대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공동체성 이념을 시민생활에 뿌리 내리도록 즐겁고 신나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도록 한다. 특히 즐거운 여가와 뜻 깊은 봉사 활동을 결합한 즐겁고 신나는 복지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대전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수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신적인 만족감을 극대화 하고 접촉기회를 증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레포츠로 즐기는 자원봉사 행사, 함께하는 요리 축제, 사랑의 산타 봉사 등의 세부 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하여 봉사활동 참여 계층의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재미있고, 뜻 깊은 과정을 통하여 일체감을 형성해나가도록 한다.

다음은 개인, 지원 단체, 민간 기업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봉사 연합회, 기업, 대학봉사단, 수요처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연간,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토록 한다.

(5) 다문화 공동체 구축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전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언적인 글로벌 사회가 아니라 대전시 내에서 다문화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명실공히 다문화공동체로서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첫 번째로 창의시민 멘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전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멘토 제도를 제공하여 대전시민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Mentor가 이주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해 줌으로써 이주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주희망자들이 Mentor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으로 이주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민원 집사제도와 유사하지만 Mentor는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Mentor의 지원 실적에 따라 Point를 부여하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Point제도를 실시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두 번째로 외국인 거주 및 편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대전에 정착한 외국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국제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병원, 문화시설, 관공서 등의 시설 활용 시 외국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언어, 안내, 핫라인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대덕특구 내 외국인 거주 전용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주택물량을 확대하여 보급토록 한다. 외국인 전용 단지조성 및 보육지원 시설 구축, 외국인 진료 가능한 병원 지정 및 홍보, 각 대학 캠퍼스 내에 외국 유학생 전용 기숙사 조성 등의 세부 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전문 카운슬러 운영으로 외국인 거주자들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외국인 행정지원을 확대 운영토록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로 확장되는 국제적 차원에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출입국관련 업무, 운전면허 및 민원서류 발급, 신용카드 및 휴대폰, 관광안내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교통 표시판, 지하철 안내 멘트 등 글로벌 안내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외국인을 위한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것 또한 지역사회 융합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대전의 상주 외국인 및 방문객을 위한 교류 공간 조성으로 타 문화 간 ‘통섭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축제를 대전 시민과 외국인, 외국인들 사이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현재 운영 중인 대전국제교류센터, 국제친교센터,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인터내셔널친선협회, 국제교류문화원 등의 확대 운영 및 외국인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유성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외국인과 대전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산업 중심의 정체성 확립 - ‘대전형 Cre - Biz’ 육성

1) 사업의 필요성

대전의 정체성 확립은 산업의 성과와 연계되어야 지속가능하며, 새로운 차원에서 정의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 과학도시 대전 정체성의 성과를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전은 산업부문에서 대전이 갖고 있는 특성과 연계하여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새로운 발상의 재창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적 산업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사업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산업과 문화의 융합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대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산업부문에서 강점요소인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벤처기업 간의 연계 협력체계 강화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창조적 지식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전형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전을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역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융·복합 비즈

니스 창출, 문화예술의 산업화, 친환경 녹색산업의 육성으로 창조비즈니스 허브로 대전이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의 지식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창의인재의 인턴십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여 대전이 과학기술 및 창조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추진과제

(1) 지식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지원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대전은 지식서비스산업이 타 시도에 비하여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 특성을 잘 부각시키려면, 대전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따른 제조업 노하우의 지식서비스 상품화 분야 개척 등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발굴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유망 분야 발굴을 사업화로 연결시켜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따라 새롭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의 발굴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개발 모델을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신규 유망 지식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가능하도록 매년 5개의 과제를 공모하여 비즈니스 모델개발비를 지원하고, 개발된 신규 모델 사업화는 대덕특구의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지식서비스 산업 기반을 확대하며, 예비창업자 및 시민들에게 지식서비스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한다.

(2) 융복합 산업 육성

대전은 창조인력의 비중이 높은 도시라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미래 대전의 산업차원에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복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전의 미래 정체성을 이러한 방향에서 확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를 구축하고, IT, BT, NT 기술을 융합한 첨단의료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첨단 의료 바이오 제품의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첨단의료산업연구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 촉진, 국내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의료관광산업 분야로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5. 문화예술전략을 통한 과학도시정체성 강화

1) 사업의 필요성

미래 대전이 추구해야하는 가치는 앞서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바 대로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히 하는 것이라는 시민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과학도시 그 자체보다는 과학도시의 미래가치를 공고히 하고, 시민의 삶 속에 체화될 수 있는 도시의 위상을 갖추는 것에 대한 의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데 있어 문화예술과 과학과의 융합이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대전을 과학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이 이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 시민의 창의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 인프라 및 도시디자인에 대한 투자 확대로 도시공간을 명품화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일상생활 공간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예술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전의 과학도시로서의 정주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사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세계의 도시들은 문화가 창조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문화를 도시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는 과학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창조성의 주요한 전략 요소임에 분명하다는 점이다.

문화 예술에 대한 창작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일상생활 공간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 시민들이 평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복지의 실현이 문화예술을 통한 과학도시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하다.

2) 추진과제

(1) 아트 플라자 조성

과학도시 정체성을 확립해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창조성이란 일상생활에서의 습관, 문제해결 등에서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창조적 환경 확대가 필요하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도시의 경쟁력이며, 문화 예술은 한정된 사람에 의해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가까이에서 시민 모두가 예술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 시민들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공간을 일상생활 공간 안에 소규모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아트 플라자를 조성한다.

이러한 소규모 분산형 문화 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창조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문화 예술의 창작연습 공간, 무대 공간, 전시 공간을 도시 곳곳에 분산 배치시켜 과학도시의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공간으로는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자투리 공간, 유휴 사유지, 공원, 철도 역사, 터미널, 공가 등을 검토한다. 학생, 시민들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시민합창단, 시민교향악단, 시민오페라, 시민사물놀이 등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창작활동 과정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문화 예술의 일상화에 의해 창출되는 즐거운 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문화산업 창업기반 확충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분야의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사업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한다. 문화예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의 용도로 대전 문화산업 펀드를 조성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분야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분야의 사업 아이템, 민간기업의 문화예술 분야 투자 시 매칭 또는 펀드 조성 시 공동 출자, 문화예술인,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운영 및 사업화 지원 등으로 정하고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사업 아이템, 민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 투자 시 공동 출자 등으로 운용한다.

(3) 상상력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원도심의 문화 비즈니스 개발특구에 사업화를 촉진할 인큐베이터를 설치한다. 사업화를 목표로 원도심 거주 문화예술인(residential creator)과 대덕단지의 과학기술인(scientist & engineer)이 교차하는 공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도심의 문화 콘텐츠와 대덕단지의 과학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단계 기업을 수용하여 입주 공간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판매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4)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기술·문화 융합형 산업의 선점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군의 형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현재 기술·문화 융합형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지원 및 유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하에서 대전을 디지털콘텐츠를 선도하는 도시로 육성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술·문화 융합형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콘텐츠 기업군을 형성하고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6. 대전정체성 확립 지원시스템 구축

1) 사업의 필요성

시민의 대전정체성의 공유, 유지, 확산을 위한 개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성 증진과 함께 다양한 업종과 전문분야, 세대와 조직을 넘나드는 ‘소통의 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전 정체성 요소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체성 확립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의 정비는 시급한 사안이 된다.

그리고 대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시행정체계를 창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공무원 양성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추진과제

(1) 「미들 업-다운」(Middle Up & Down)式 행정체계 구축

리더의 철학 및 방향제시하에 중간레벨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행정의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행정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체계에서는 중간층이 행정을 이끄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담당한다.

상의하달식의 탑다운 방식은 조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하의상달식의 보텀 업(Bottom-Up) 방식은 중장기적 방향성이 부족하며 추진력이 약화되는 우려가 있다.

대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되어야 가능한 정책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결합형 행정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2) 창의행정 인프라 구축

미래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를 확립해가기 위해서는 창의행정 인프라 및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시청사 내에 전략 공간(strategy room)으로서 아이디어 창출,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공감 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개인 간·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협력을 통해 대전의 미래 정체성 확립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 참여,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대전 정체성 확립 사업 실행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가칭 「대전 정체성 확립 전략수립위원회」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관리, 평가 등 PDCA 사이클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성과별로 대전 도시정체성 확립 관련 사업을 배분하고 도시 비전 및 전략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제 6 장

결론

.....

제1절 논의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

제6장 결론

제1절 논의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논자는 지역 정체성을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이며,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정체성 확립은 지역의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공유된 상징을 갖고 그들 상징에 대하여 자기 것이라는 정서적 관여(commitment)를 하며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행위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도시 이미지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연환경, 전통적 요인,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인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되, 개별성과 동질성의 매개 요인을 중심으로 대전의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1.

문헌연구를 통하여 대전시 정체성의 특성과 형성요인을 찾아낸 결과, 역사적 요인과 자연생태적 요인에서 보면, 접경 지대에 위치한 탓에 뚜렷한 의사표명을 하지 못하는 기질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회운동의 참여가 타 지역에 비하여 부재한 탓에 자기주장이 뚜렷하지 못한 기질이 형성되었다는 사실, 연줄망 의존도가 낮은 탓에 지역정체성이 다른 지역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 강한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전의 특성 때문에 정보 생산과 유통력이 미미하여 지역정체성 형성 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는 점, 인구이동의 추이를 볼 때, 충청권 인구이동 유형상 권역내에서의 인구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탓에 대전과 충남의 고유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불리

하게 작용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재적 요인(내부 인식-대전 사람들 스스로의 인식) 차원에서 스스로 ‘양반의 고장’, ‘행동이 느리다는 기질’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던 탓에 정적인 이미지의 기질 형성에 일조하였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2.

그렇다면 대전의 현 위상은 타 도시와 비교하여 개별화 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대전의 현 도시 정체성이 어느 정도 뚜렷한 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사람측면에서의 개별성 양상을 고려해 보면, 대전은 인구증가 지속의 젊은 도시, 전입인구가 높은 도시, 창조계층의 집적 도시, 과학기술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로서의 차별화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업 중심 도시, 지역혁신여건이 우수한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물리적, 자연적 환경 차원에서의 특성은 교통결절점으로서의 중심지, 전형적인 분지 형태의 재해 없는 도시, 4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도시 성격이 강하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다.

3.

국의 도시의 정체성 확립 사례를 4가지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인재의 양성이나 유입의 기재를 통하여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여간 글래스고, 어바인, 밴쿠버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화와 산업의 연계 또는 과학과 문화와의 융합을 통하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한 블로냐, 가나자와의 사례는 대전시의 과학도시 정체성의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공간 차원에서는 단일 시설을 개발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례와 시설의 분산을 통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발현한 사례, 분산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통합한 사례로 나누어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체성 확립의 중심적 역할을 민간에서 주도한 사례, 관 주도의 사례, 민관 협력 사례로 나누어 보고, 대표적인 관 주도 방식으로 정체성을 확립해간 싱가포르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국외사례에서 정체성 확립이나 재확립에 매우 성공적인 요인이었던 것은 결국 주어진 자원에 대한 활용 및 융합 전략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형을 유지, 확립하려는 지속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정체성 확립의 국내 도시 사례는 국가주도형 모델(광주광역시)과 국가와 지자체 연계형 모델(전주시), 지방중심형 모델(부천시)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대전의 경우는 광주광역시나 전주시의 문화, 전통 중심의 정체성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라는 판단이다. 결국 부천의 경우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시민의 힘을 합쳐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고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4.

지역의 정체성은 결국 지역민이 어떠한 의식을 공유하고,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 가느냐에 그 특성과 개별성이 드러난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정체성에 대한 대전시민의 의식조사 내용은 정책적으로도 시사한 바가 크다.

우선 대전시 현 위상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대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하여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대전의 도시이미지를 ‘안정적이고 편리하며 깨끗한’ 도시로 보고 있다.

대전에 대한 현재 이미지는 ‘과학의 도시(54.2%)’가 ‘교통의 도시(23.4)’, ‘행정의 도시(7.2%)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대전의 미래상 또한 ‘과학의 도시(43.4%)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전시민은 대전이 전문가 집단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전의 사람 차원에서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고학력자가 많은 도시 이미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7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개별성 판단에 있어 볼거리·즐길거리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거나 적다라는 응답이 54.6%로 나타나, 정체성의 전통적 요소라든가, 장소나 상징물에 대한 뚜렷한 도시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대전에 대한 관심, 자부심을 물어 본 결과, 대전에 대한 자부심은 5점 만점에 3.41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정체성(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대감의 경우에는 강하다는 인식이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다른 차원의 동질성 가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사를 표한 응답자는 28%로 현 대전 거주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는 58.9%가 차별을 받아왔다고 응답하여 지역차별에 대한 지역민의 공통적인 인식과 태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사람들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동일성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대전사람들의 독특한 기질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8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질적 특성에 있어 대전사람은 느긋하며, 온순하고, 뜨뜨미지근한 면이 있으며, 속을 알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타인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기질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지, 정작 나의 태도나 의식을 물어 보면 자신은 이러한 특성이 아니라는 응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대전사람들의 기질적 특성이 이른바 고정관념화 되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가 대전사람이구나라는 자각의 계기(동일성 가치 형성의 계기)는 주로 ‘스포츠경기 관람시(29.3%)’, ‘타 지역에 갔을 때(19.3%)’의 순으로 나타나 전통적 요소라기 보다는 생활 가운데에서 수시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의식 조사결과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시민 주

도의 대전 정체성 확립 방안이 필요하고, 다차원적 문화시설 및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대전시에 적합한 창조적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적 직업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기존 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체계 구성 및 적극적인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도시의 미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다차원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제2절 정책 제언

본 보고서에서 문헌연구와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정체성 확립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우선, 지역정체성 확립에 있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해보도록 한다. 첫째, 지역주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화 자치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거의 중앙집중화된 의사결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만 지역정체성이 되살아나거나 확립될 수 있다. 둘째, 도시정비 패러다임을 변화하여야 하며, 새로운 개발 철학을 정립하여야 한다.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유형 유지에 대한 철학과 융합적인 발상이 도시 정체성 확립에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치구별 특성화를 통한 다양성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공공주체와 민간주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기 발전 목표 및 전략의 체계성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내재화 전략 및 모델을 강구하여 시민의 삶 속에 지역의 정체성이 투영되거나 체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대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전의 현 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강점 (S)	약점 (W)
		<p>풍부한 R&D 인력</p> <p>높은 젊은 층 비율</p> <p>첨단과학 및 R&D 핵심도시</p> <p>다수의 잠재적 교류 공간</p> <p>국내 교통의 중심지, 친환경 도시</p> <p>이미 시작된 정체성 확립에</p> <p>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p>	<p>문화예술 인프라 및 환경 취약</p> <p>상호교류를 통한 자극 미흡</p> <p>대덕 단지의 낮은 사업화율</p> <p>낮은 문화예술 산업 비중</p> <p>관광자원 이용률 저조</p> <p>국제교류 기반 미흡시민의 공감대 부족</p> <p>대전만의 자부심 부족</p>
기 회 (O)	<p>삶의 질(문화예술, 여가 등)에 대한 관심 증가</p> <p>창조 산업의 성장세</p> <p>첨단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p> <p>월빙, 주거 환경의 중요성 부각</p> <p>다양한 축제, 이벤트 등의 행사</p> <p>시정참여 요구 증가</p> <p>공동체성에 대한 높은 관심</p>	<p>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대</p> <p>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통섭</p> <p>교류 공간의 경쟁력과 고유성을 강화</p> <p>정체성 확립의 시민 참여 확대</p>	<p>문화예술 인프라 확대</p> <p>창업 및 사업화 지원</p> <p>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강화</p> <p>시정참여 기회 확대</p>
위 협 (T)	<p>문화예술의 수도권 집중</p> <p>과학 비즈니스 벨트화</p> <p>차세대 과학도시의 경쟁 치열</p> <p>원도심과 신도심의 이원화</p> <p>관광객 유출의 심화</p> <p>경쟁 도시의 정체성 확립 추구</p>	<p>교육기능 차별화</p> <p>과학기술 차별화(사업화 관점)</p> <p>대전시의 랜드 마크 조성</p> <p>정체성 확립 정책 재정비</p>	<p>시민 주도의 운영, 공연 지원</p> <p>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p> <p>관광자원 정비</p> <p>정체성 확립 캠페인 강화</p>

이에 따른 세부 전략과제를 6개 영역 개 과제로 제안하였다.

영역	세부과제
대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류체계 강화	대전 정체성 확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
	대전 문화상징 개발
	대전문화 가이드북 발간 및 보급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	대전 정체성 규명 연구 사업
	대전학연구 활성화 지원
	대전학 지식저장소 운영
	대전학 국제 세미나 개최
사람 중심의 정체성 확립-인재 발전소 대전	커뮤니티 커넥트 지원사업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참여의 장 조성
	대전상상포럼 발족 및 운영
	Voluntainment(즐겁고 신나는 자원봉사) 도입
	다문화 공동체 구축
산업 중심의 정체성 확립 - 대전형 Cre-Biz 육성	지식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지원
	융·복합 산업 육성
문화예술전략을 통한 과학 도시정체성 강화	아트 플라자 조성
	문화산업 창업기반 구축
	상상력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대전정체성 확립 지원시스템 구축	Middle Up & Down식 행정체계 구축
	창의행정 인프라 구축

3.

충청도사람들을 멩청도 혹은 핫바지 같은 고정관념으로 부르는 현상들이 있었다.

아마도 기회가 주어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소극성이 있다는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말들이다. 이러한 편견은 국가의 중차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지역내 의사결정이 느리고, 일사분란한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하여, 지역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소외받고 있는 현상을 충청도인의 기질 탓이라고 일반화시켜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모두 개연성인 것이지, 확증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특질을 연결시키고, 긍정적 현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특질을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실 명칭도에서 명칭함이란 사심과 사욕 없이 사물과 세계와 인생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대전이 지향하고 있는 도시미래상인 개방성, 창의성, 관용성과 연계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지역성이란 것을 운명론적이고 자기체념적 현상과 연결시켜 부정적이며 영원무궁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가 아닐까 한다.

대전은 근대화 과정에서 교통의 중심지로서 급속히 발전한 도시이다. 외지사람들의 이주가 많아 오히려 토박이 비율이 적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복합 도시로 발전해 왔다. 대덕연구단지과 정부중합청사의 입주로 대전 시민들의 지역적 다양성은 더욱 커졌다. 앞으로 세종시 등 여러 발전요인은 대전으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 잡힌 지역성으로는 현재 다양화된 대전 사람들의 성향을 제대로 표현 할 수 없다. 기존의 주민뿐 아니라 대전에 새롭게 이주해 오는 사람도 이 지역의 지역민으로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서로 긍정적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지역성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서로를 구분 짓는 닫힌 지역성이 아니라 모두 함께 아우르는 열린 지역성이 필요하다.

지역정체성은 과거 역사의 교훈이나 쾌적 위에서 쌓인 퇴적물과 같은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사하는 창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전이 지역정체성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과거의 역사도 현재의 필요에 의해 창조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의 정체성 역시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 지향적인 창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대전은 양반의 고장에서 첨단과학과 창조도시로 그 변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결과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현대사회에서 대전의 정체성은 새로운 정체성과 창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사통팔달 교통망의 허브로, 첨단기술과 정보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전해가면서, 대전이 갖고 있는 포용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이 개방과 창조의 기질로 결합해나가는 미래의 모습을 미래의 대전이미지를,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계기석 외, “도시정체성과 도시발전”, 「 도시정보」 4월호, 서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001.
- 계기석. 「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연구」. 서울 : 국토연구원. 2001-19
- 김문조·윤인진·장호·류승호, 1998, [대전충청지역의 도시화와 지역발전, 백산서당.
- 김민아, 2006, 부천시의 ‘문화도시’ 만들기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
리교육전공 2006년 석사학위 논문.
- 김상호, 2005,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역개발연구』 제45
집,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김성국·석현호·임현진·유석춘, 2003,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
트워크, 전통과 현대.
- 김효정 외, 2004, 『문화도시 육성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대전발전연구원, 2009,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대전광역시
- 대전발전연구원, 2009, 대전비전 2030, 대전광역시.
- 류정아, 2008, 한국의 지역문화 : 현황 및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대왕사.
- 박세훈 외,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 변창흠, 2006a, ‘계획환경의 변화와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적 도
시계획 패러다임 모색』 심포지엄 자료집
- 부천시, 2005, 『Vision Bucheon 2010-첨단산업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천』
- 사사키 마사유키, 2004, 『창조하는 도시』, 정원창(역), 소화
- 삼성경제연구소, 2004,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Issue Paper』, 2004. 2. 16.
- 유석춘 편,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 이재열·강희경·설동훈, 2004, 충청지역의 사회의식과 지역정체성, 백산서당.

이홍, 2013, 창조성의 본질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문화와 융합 연속토론회 자료집.

찰스 랜드리, 2005, 『창조도시』, 임상호(역), 해남

찰스 랜드리, 2007, 『크리에이티브 시티메이킹』, 메타기획컨설팅 한국어판(역), 역사넷

하지영, 2013,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영향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대학원

부 록

부록. 설문지

『대전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대전의 지역정체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평소에 품고 계시던 생각을 꾸밈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소견은 대전광역시의 발전적인 지역 정체성 발현을 위한 정책수립의 밑거름으로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4.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책임자	박 노 동	문의 : (042)530-3523 (E-Mail: labourbak@djdi.re.kr)
-------	-------	---

지 역	①대덕(동) ②동구(동) ③서구(동) ④유성(동) ⑤중구(동)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만 _____세(만 20세 이상만 대상으로 함)

I. 대전에 대한 귀하의 일반적인 느낌(이미지)

1. 다음 중 현재 대전이 지니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정체되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활기차다
<input type="checkbox"/> 더럽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깨끗하다
<input type="checkbox"/> 불편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편리하다
<input type="checkbox"/> 살기 나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살기 좋다
<input type="checkbox"/> 안전하지 않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안전하다

2. 1949년 대전시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전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① 관광의 도시 ② 행정의 도시 ③ 과학의 도시 ④ 교통의 도시 ⑤ 군사의 도시
 ⑥ 양반의 도시 ⑦ 소비의 도시 ⑧ 문화예술의 도시 ⑨ 기타(_____)

3. 귀하는 앞으로 대전이 어떤 도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광의 도시 ② 행정의 도시 ③ 과학의 도시 ④ 교통의 도시 ⑤ 군사의 도시
 ⑥ 양반의 도시 ⑦ 소비의 도시 ⑧ 문화예술의 도시 ⑨ 기타(_____)

4. 대전은 타지역민에 비하여 고학력자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확실히 그렇다

5. 귀하께서는 대전지역에 볼거리·즐길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6번으로) ② 적다 (5-1번으로) ③ 보통이다 (5-1번으로)
 ④ 많다 (5-1번으로) ⑤ 대단히 많다 (5-1번으로)

5-1) (추천하고 싶은 볼거리·즐길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II. 대전에 대한 관심, 자부심

6.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그저 그렇다 |
| ④ 조금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input type="checkbox"/> 대전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input type="checkbox"/> 대전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input type="checkbox"/> 대전에 대해 애항심을 가지고 있다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민간의 유대감이 강하다고 느낀다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input type="checkbox"/>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input type="checkbox"/> 자녀들이 계속 대전에 살기를 원한다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

7. 귀하께서는 대전지역에 몇 년째 살고계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20년 미만 ④ 20-30년 미만 ⑤ 30년 이상

8. 귀하께서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8-1번으로) ② 없다(9번으로)

8-1) 귀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문제 ② 경제문제 ③ 환경문제 ④ 주거문제 ⑤ 문화환경 ⑥ 직장 등 개인문제
 ⑦ 기타(_____)

9. “지난 60년 동안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아왔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중간이다 ④ 그런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Ⅲ. 대전사람들의 기질적 특성

10. 귀하께서는 대전시민으로서 타지역사람들에 비하여 대전지역민들만의 독특한 기질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다(10-1번으로) ② 없다(11번으로)

10-1)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느긋하다 ② 소박하다 ③ 온순하다 ④ 둔하다 ⑤ 약하다
 ⑥ 단순무식하다 ⑦ 상냥하다 ⑧ 뜨뜨미지근하다 ⑨ 속을 알 수 없다 ⑩ 강건하다
 ⑪ 야무지다 ⑫ 약다 ⑬ 씩씩하다 ⑭ 간사하다 ⑮ 거칠다
 ⑯ 과격하다

10-2) 이러한 기질적 특성이 대전시민의 삶 속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1. 귀하께서는 대전시민의 기질적 특성이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1-1)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친밀성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input type="checkbox"/> 상대하기 편하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상대하기 어렵다 |
| <input type="checkbox"/> 따뜻하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차갑다 |
| <input type="checkbox"/> 다정하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냉담하다 |
| <input type="checkbox"/> 부드럽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딱딱하다 |

11-2) 삶의 자세에 있어 책임성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input type="checkbox"/> 정직하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부정직하다 |
| <input type="checkbox"/> 희생적이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이기적이다 |
| <input type="checkbox"/> 훌륭하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보잘것 없다 |
| <input type="checkbox"/> 용감하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비겁하다 |

11-3)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활동성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활동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수동적이다
<input type="checkbox"/> 빠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느리다
<input type="checkbox"/> 건강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허약하다
<input type="checkbox"/> 선명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담담하다

11-4) 전통 및 권위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권력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권력 없다
<input type="checkbox"/> 권위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비권위적이다
<input type="checkbox"/> 위엄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경망스럽다

12. 귀하께서 ‘아! 나는 대전사람이구나.’라는 정서를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면 어느 상황인지를 응답해주세요.

12-1) 대전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이나 공연관람시 응원이나 호응이 타지역에 비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반응이 없다 ② 반응이나 호응이 적다 ③ 보통이다
 ④ 적극적으로 반응이나 호응한다 ⑤ 대단히 적극적으로 반응이나 호응한다

12-2) 본인의 경우 스포츠 관람이나 공연관람시 응원이나 호응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반응이나 호응하지 않는다 ② 반응이나 호응이 적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호응한다 ⑤ 대단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호응한다

12-3) 대전사람들은 타인의 부탁을 받았을 때, 본인의 의사(예 혹은 아니오)를 정확히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2-4) 본인의 경우 타인의 부탁을 받았을 때, 본인의 의사(예 혹은 아니오)를 정확히 표현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2-5) 귀하께서는 남의 부탁을 거절할 때 어떠한 표현을 쓰십니까?

13. 귀하께서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대전사람이라는 동질감을 어느정도 느끼십니까?

- | | | |
|--------------|--------------|----------|
|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 ② 별로 느끼지 않는다 | ③ 그저 그렇다 |
| ④ 조금 느낀다 | ⑤ 매우 많이 느낀다 | |

	①	②	③	④	⑤
<input type="checkbox"/> 대전연고 프로팀 경기시 응원할 때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input type="checkbox"/> 외지에 나가서 생활할 때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임에서 대전부르스라는 노래를 부를 때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input type="checkbox"/>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때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input type="checkbox"/> 타지역민과 대화시 사투리를 사용할 때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input type="checkbox"/> 대전소재 초중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시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14. 귀하께서는 평상시에 충청도 사투리를 어느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단히 심한편 ② 심한편 ③ 조금 사용 ④ 사용하지 않음 ⑤ 전혀 사용하지 않음

14-1) 사투리를 사용한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14-2) 충청도 사투리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IV. 대전의 대표 인물, 음식, 상징적 장소

15. 지난 60년(1949년-현재)간 대전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누구
입니까?

16. 지난 60년 이후 현재까지 대전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었다(누구 : _____) ② 없었다

17. 지난 60년 이후 현재까지 대전지역의 대표 경제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었다(누구 : _____) ② 없었다

18. 지난 60년 이후 현재까지 대전지역의 대표 문화예술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었다(누구 : _____) ② 없었다

19. 귀하께서는 타지역에 비하여 대전지역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다(19-1번으로) ② 없다(20번으로)

19-1) (있다면) 어떤 음식입니까?

20.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대전의 향토음식으로 특정음식을 권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20-1번으로) ② 없다(21번으로)

20-1) (있다면) 권유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20-2)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조금 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불만 ⑤ 매우 불만

21. 귀하께서는, 대전이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다(21-1번으로) ② 없다(22번으로)

21-1) (있다면) 어느 곳입니까?

22. 1949년 대전시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전시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일·반·사·항 ♣

0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이상

0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직 ② 경영관리직 ③ 사무·기술직 ④ 판매/기술직 ⑤ 자영업
⑥ 생산/노무직 ⑦ 농업/어업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기타(_____)

03. 가족의 월 평균 수입(세전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만원

04. 귀하께서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출신광역시 또는 도를 써주십시오)

_____시 _____도

05. 귀하께서 주로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출신광역시 또는 도를 써주십시오)

_____시 _____도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자료로 살겠습니다.

기본연구보고서 2014-04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과 과제

발행인 유재일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19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000-0000 FAX 042-000-00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